금주의 법구-〈화엄경〉
성불하려는 마음 굳으면
의심하지 말고 꼭 믿어라.
붓다의 큰 지혜를 얻을 것이다.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189호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불기 2562년 · 단기 4351년 음력 2월 5일) 2018년 3월 21일 수요일



"영미!" 대신 명상 찾은 컬벤저스 평창동계올림픽 기간 대한민국 안방을 뒤흔든 유행어 "영미~!"로 '국민 영미'를 탄생시킨 여자컬링 대표팀이 3월 12일 의성 고운사에 떴다. 이들이 사찰을 찾아온 까닭은 단 하나. 5년 전, 고운사에서 명상을 배우며 다졌던 초심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다. 주지 호성 스님은 선수들과 함께 명상하며 "힘든 상황에도 평정심을 잃지 말라"고 조언했다. 선수들은 사부대중의 환영에 감사인사를 남긴 뒤 캐나다서 열리는 세계여자컬링선수권대회로 향했다. 박영애 영주지국장

조계종 상반기 출가 55명 '출가 절벽' 가속화 우려

한해 출가 120명 '위태'… 종단적 대책 시급

출가자 감소가 눈에 띄게 가속화되고 있어 종단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조계종 교육원(원장 현응)은 3월 14일 제8교구본사 직지사서 제54기 사미 사미니계 수계교육을 회향했다.

수계교육은 지난 3월 5일 입재해 10일 동안 진행됐으며, 13일 열린 5급 승가고시에 합격한 남 · 녀 행자들이 각각 사미계와 사미니계를 받았다. 이를 통해 예비 스님이 된 행자는 사미 33명, 사미니 22명 등 총 55명이다.

조계종은 매년 상 · 하반기에 걸쳐 사미 · 사미니 수계교육을 시행한다. 교육원에 따르면 현재 55기 수계교육 신청자는 70명 안팎이다. 하지만 27%의 평균 퇴사율을 감안하면 54기와 인원 수는 별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한해 출가 인원이 120명도 어려울 수 있다는 진단이 나오는 이유다.

출가자 감소는 지속적인 문제지만, 최근 들어 그 예우가 더 좋지 않다. 우선 출가자 감소 추이가 가속화되고 있다. 교육원 통계에 따르면 2015년까지는 한해 출가자 200명 선을 유지했다. 2016년에는 157명으로 처음 150명대로 감소했고, 2017년에는 151명으로 줄었다. 이후 단 2년 만에 120명 선도 위태로워진 상황이다.

또한 출가자 고령화도 심각하다. 통계에 따르면 2016년 출가자 중 40대 이상 출가자는 78명으로 이는 전체 출가자의 49.6%에 달하는 수치다. 40대 이상 출가자들이 늘어나는 출가 고령화는 승단 고령화를 가속화 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뚜렷한 돌파구를 찾기 어렵다는 점이다. 조계종 교육원은 2016년을 출가진흥 원년으로 삼고 출가 콘서트 등 다양한 진흥 사업을 펼쳤다. 지난 연말에는 종단 사상 최초 출가자 모집 홍보에 나서기도 했지만, 가시적 성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출가자 감소는 악화일로를 걷고 있지만, 교육원을 제외하고는 별 다른 종책을 고민하지 않는 점도 문제이다. 전문가들이 종단적 T/F 구성들을 요구해왔고, 총무원장 설정 스님 역시 신년 기자회견에서 올해 사업 계획으로 '출가

감소 · 고령화 추세 뚜렷
출가T/F 구성 논의 無
실효 · 지속적 종책 필요

T/F' 구성을 내놨지만 현재까지 관련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조계종 교육원 관계자는 "현재 출가자 감소 추이를 보면 1~2년 후에는 한해 출가자가 100명도 안될 수 있다. 더불어 출가자 고령화로 정말 일할 수 있는 연령의 출가자가 많지 않다"면서 "종단 차원의 '출가 T/F' 구성을 통해 지속적이며 실효성 있는 출가 종책 방향을 정하고, 질 높은 인재들이 교단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조계종 교육원이 개최한 제54기 사미 사미니계 수계교육 회향식 모습.

통일 기금 · 교육… 실천 가능 로드맵 필요

[현안진단] 불교 통일 로드맵 'Up-Grade'

2009년 첫 로드맵 발표
2014년 로드맵 2.0 완성
남북 경색으로 모두 무산
통일인식 개선 교육 등
정세 무관 진행 가능해야
협력기금 조성해 장기대비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남북이 4월 말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전격 합의한데 이어 준비위 구성 등 후속절차에 들어감에 따라 그동안 민간교류의 주도적인 역할을 해온 불교계의 행보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가 북한 조선불교도연맹과 중국 심양에서 회동을 제안한 상태로 남북 정부간 협의 후 본격적으로 남북불교교류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상황에서 불교 통일로드맵을 재점검하고, 정세에 영향받지 않는 기금 조성 등 준비 작업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두 차례 통일로드맵 발표

앞서 불교계는 조계종이 2009년과 2014년 두차례에 걸쳐 통일로드맵을 발표했다. 2009년 조계종 통일종책연구위원회(위원장 세영)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경색 국면에서 종책보고서 〈민족통일과 불교통합: 남북불교의 교류와 협력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당시 통일종책연구위는 2년간의 연구 끝에 △남북불교 상호인정 및 교류협력 △불교도왕래 및 남북불교종단협의회 등 조직구성 △통일종단 · 종법 구성의 3단계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2014년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본부장 법타)가 사회와 불교계 전문가로 위원회를 구성해 3개월간의 작업 끝에 '민추본 2.0' 로드맵을 발표했다.

두 번째 로드맵에는 △북한 주요지역 교류거점 마련 △통일의식 확산사업 △대북인도적 지원 △남북불교 경협 사업 △남북불교교류 컨설팅 서비스 △북한불교문화재 공동보존사업 등이 제시됐다.

남북 경색에 모두 무산

하지만 이러한 남북불교교류 및 통일 로드맵은 10년간의 남북 경색 국면 속에 모두 무산된 상황이다.

2014년 발표된 로드맵 계획인 주요지역 교류거점 사업의 경우 1단계 금강산 관광 재개시 신계사 운영 정상화, 2단계 2015년 평양불교문화회관 건립, 3단계 2016년 개성지역 사찰 불사 등이 있었다. 또 북한 불교문화재 보존사업의 경우 1단계 2015년 내금강 불교문화유적 보수보존, 2단계 2016년 개성지역 불교문화유적 보존보수, 3단계 2017년 북한 전통사찰 남북공동전수조사사업 등이 제시됐다. 하지만 이들 계획 모두 진행되지 못했다.

박재산 민족공동체추진본부 사무국장은 "현재 불교 교류 사업은 남북 정세에 큰 영향을 받는 한계가 있다. 민간교류를 우리 정부에서 허가하더라도 북측이 거부하는 경우도 있다. 세부적인 로드맵 계획은 실제로 진행될지 미지수"라고 말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불교계가 두 차례 계획을 발표하는 등 실천적 노력을 기울였지만, 결실을 맺지 못한 원인은 남북 정세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이라며 "남북관계 부침과 별도로 진행되는 통일 종책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평화에 대한 우호적인 여론조성 등은 우리 내부에서 진행되기에 남북 정세와 별개로 진행 가능하다. 또 조계종뿐만 아니라 다른 종단을 포함한 범불교적인 종책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통일기금 · 자원 확보 나설 때

로드맵 실천 문제와 함께 현재 불교계는 교류 및 통일 과정에 대비한 자원 확보가 전무하다. 정부의 경우 남북협력기금을 조성해 남북교류와 통일 과정에 소요되는 자원을 충당하고 있으며, 현재 13조 8137억 원이 조성된 상태다. 협력기금은 통일 후에는 통일기금으로도 활용 가능하다.

현재 조계종은 민추본을 단일 창구로 남북교류를 진행하고 있으며, 종단 예산 편성과 구미 도리사 인근 경작지에 통일쌀을 심어 쌀 수매 이익 일부분을 대북 인도지원과 자원으로 활용해왔다.

천태종 등 불교 각 종단도 각각의 기관 예산 편성을 통해 남북교류를 진행하고 있다. JTS 등 불교계 NGO단체서 진행되는 후원 캠페인도 남북정세에 따라 후원 집행의 애로점이 있다.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가톨릭 등 이웃종교계의 경우 이북 교구 설립 계획과 장기적인 재원 마련에 나서고 있다. 불교계가 그동안 민간교류에 앞장 섰지만, 남북불교교류 외에도 통일시대를 대비한 장기적인 준비가 필요하다"며 "일관성 있는 교류와 통일사업의 근간이 될 기금의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방세계 A5
태고종 전북종무원 영산문화축제
함께가요 강의실 A6
초서란 무엇인가… 양진석 연구원

번煩뇌惱를 끊는 이야기
- 간화선看話禪의 길

번뇌를 끊는다니 말이나 되는가!
번뇌를 끊으려는 그 생각이 또한 번뇌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번뇌를 끊는다고 말하고 나와야 한다.
사람 성품性品에는 본시 번뇌가 없지만 성품을 보지 못한 이는
날마다 번뇌를 보듬고 산다.
이 책은 본래 없는 것을 있다고 지키고 있는 이에게 '뜬 눈'을 갖게 할 것이다.
현응玄雄 스님
송광사 구산九山 스님 문하로 출가하고, 용화사 전강田岡 선사 문하에서 공부길을 간택받았다. 그 후 대중 선방 생활을 뒤로하고 깊은 산중 토굴에 들어가 6년간을 홀로 지냈다. 1984년 스위스 불승사에서의 초청을 계기로 유럽과 미국에서 20여 년 동안 서양인들에게 선을 지도하였다. 2005년 한국에 돌아와 서울 육조사 선원을 열고 간화선을 지도하고 있다.
조계후학 현응 저/신국판 양장/520쪽/값 25,000원

종회 앞서 멸빈자 사면 구상 '본격화'

조계종, 종헌 개정 이후 계획 발표… 종정 교시도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조계종이 멸빈징계자 사면관련 종헌 개정안을 다룰 중앙종회 임시회를 앞두고 대화합을 위한 멸빈자 특별사면 세부 과정을 발표했다.

조계종 기획실(실장 금산)은 3월 1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종단 대화합을 위해 1962년 이후 멸빈의 징계를 받은 자에 대해 특별사면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조계종 기획실에 따르면 1962년 통합종단 출범 이후 멸빈징계자는 총 230명이다. 징계사유별로 구분하면 △해종행위자 37명 △직무비위자 16명 △재산비위자 22명 △승풍실추자 91명 △성보도난 및 훼손자 8명 △폭력행위자 8명 △승적 허위 취적 2명 △징계사유 미확인자 11명이다.

멸빈자 사면, 중앙종회에 달려

이들 멸빈자에 대한 사면은 2003년부터 꾸준히 추진돼 왔다. 새 집행부가 출범할 때마다 멸빈자 사면 추진은 계속적으로 이뤄졌으며, 종정 스님의 사면 관련 교시만 3번 내려졌지만 성과가 나오지는 못했다.

현 집행부가 추진하는 멸빈자 특별사면 방안도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다. 중

1962년 이후 멸빈자 230명 대상
사면특위 구성해 원칙 · 절차 확정
사면 後 일정 권리제한 있을 듯
종헌 개정안 종회 통과가 '관건'

앙종회에 계류 중인 종헌을 개정하는 것이다. 현재 조계종 종헌 제128조에는 멸빈자는 복권을 할 수 없도록 단서조항이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조계종은 지난 집행부 당시 부칙 삽입을 통해 '멸빈의 징계를 받은 자에 대해 종헌 제128조 단서 조항에도 불구하고 1회에 한해 사면 · 경감할 수 있다'는 골자의 종헌 개정안을 중앙종회에 상정해 계류 중이며, 3월 20일 열리는 중앙종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가 이뤄진다.〈차주상보〉 사실상 중앙종회가 멸빈자 사면의 열쇠를 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이다.

종헌 개정 이후 사면계획들

종헌 개정이 이뤄진 후 구체적인 사면 추진 계획들은 마련된 상황이다. 조계종 기획실이 밝힌 계획에 따르면 종정 진제 스님을 증명으로, 총무원장 설정 스님을 위원장으로 한 '종단 대화합을 위한 멸빈징계자 특별사면심사위원회(가칭)'을 구성하며, 이를 통해 사면 기준과 원칙, 절차 등을 확정할 계획이다.

사면에는 재산 비위와 바라이죄, 환속자, 탈종자, 개종자들은 제외된다. 또한 사면 이후에도 일정한 권리제한을 진행하는 방안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사면위원회에서 사면안이 마련된 후에는 중앙종회의 사면 동의, 종정 스님 재가를 거쳐 사면이 이뤄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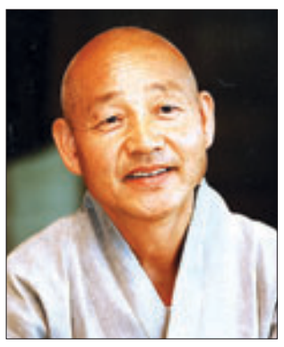
이에 대해 금산 스님은 "종헌 개정안이 통과하면 특별사면위원회를 구성해 엄격한 원칙을 마련해 소홀함 없이 사면을 추진할 것"이라면서 "사면이 이뤄지면 새로운 변화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승가화합을 위한 진정한 대작불사"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조계종 기획실은 이날 종정 진제 스님이 내린 특별사면 관련 교시도 공개했다. 진제 스님은 3월 12일 내린 교시에서 "승가의 운영원리는 오직 화합만이 있을 뿐이다. 과거 우리 종단에는 구성원 중 일부가 과오로 이탈했으나 참회하고 자중하며 다시 함께 수행하고자 하는 이들이 있다"면서 "대중 앞에서 진심을 다해 자자하여 종단의 일원으로 더욱 정진해 나갈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해달라"고 당부했다.

진제 스님은 또 "화합 조치를 통해 종문을 더욱 높고 빛나게 하고 교단의 존재 이유인 지계청정, 정진화합, 광도중생의 길에 모든 종도가 일치 단결해달라"면서 "나아가 수행공동체의 신심과 원력으로 남과 북의 모든 민초들이 함께 번영해나갈 활로를 여는 데 진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도사 방장후보에 성파 스님 추대

방장선출 산중총회 1년 만에 성원… 단독후보로 추천돼



약 1년간 방장을 선출하지 못해 혼란을 겪은 영축총림 통도사가 방장후보에 현 방장대행 성파 스님〈사진〉을 만장일치로 추대했다.

통도사(주지 영배)는 3월 9일 방장후보 선출을 위한 산중총회를 비공개로 열고, 단독 후보로 추천된 성파 스님을 만장일치로 추대했다. 구성원 473명 중 310명이 참석해 성원된 산중총회서는 前방장 원명 스님을 비롯해 원로의원 월파 스님, 前주지 원산 스님, 조계종 총무부장 정우 스님 등이 성파 스님을 후보로 추천했다. 특히 산중총회가 별도의 이견 없이 개회 30분만에 끝나 각 문도회가 사전 조율을 마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그간 문중 간 화합이 어려웠던 통도사의 정상화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방장후보로 추대된 성파 스님은 "여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 산중에서 대중을 위해 노력하며 살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주지 영배 스님은 "많은 분들이 산중총회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다. 불지종가로 위상을 세울 수 있어 다행"이라며 "후보자 스님을 잘 모시고 앞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인사했다.

산중총회 후 통도사 총무국장 혜철 스님에 따르면 통도사는 사전에 각 문중이 만나 의견을 나눴다. 또한 투표를 해선 안 된다는 주지 영배 스님의 결단도 만장일치 추대에 힘을 실었다.

방장후보로 추대된 성파 스님은 월하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60년과 1970년 통도사에서 월하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와 비구계를 각각 수지했다. 1971년 통도사승가대학을 졸업한 이후 총무원 사회부장과 교무부장, 통도사 주지 소임을 맡았으며, 제5 · 8 · 9대 중앙종회의원을 역임했다.

통도사=하성미 기자

선학원 원로들마저 이사회 비판

원로 39인 시국성명 발표… 법진 스님 사퇴 촉구

선학원 이사장 법진 스님이 여직원 성추행 혐의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이사회마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데 대해 선학원 원로스님들이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선학원 원로 39인은 3월 13일 시국성명을 발표하고 △이사장과 이사회의 석고대죄 △법진 스님은 피해여직원에게 용서를 구할 것 △법진 스님의 공직 사퇴 △전국분원장회의 개최 및 선학원 혁신안 마련 등을 촉구했다.

원로스님들은 "선학원은 일제강점기 청정승풍의 한국불교 전통을 수호하기 위해 설립된 불교재단이다. 해방 후 정화불교의 산실로서 오늘날 조계종이 정립할 수 있는 모태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선학원"이라며 "오늘날 선학원은 안으로는 법진 이사장이 여직원 성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도 버젓이 이사장직을 유지하고 있다. 밖으로는 법인법으로 종단과 대립각을 세우고 파행운영 해온 지 어언 6년이 됐다"고 지적했다.

스님들은 이어 "선학원 대중은 행정부실과 종단과의 갈등으로 인해 크고 작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이미 벌어진 일을 주워 담을 수 없기에, 이사회가 현명하게 사태를 수습해주길 기다렸지만 오히려 이사장을 공식적으로 비호하고 있다"고 밝혔다.

원로스님들은 또 "일생을 선학원에 몸담아온 원로로서 지금의 위기상황을 수수방관 한다면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다. 이에 칠십 넘은 빈승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분원 대중스님들께 청한다"면서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선학원 창립정신을 구현할 때 한국불교 미래가 열린다. 원로들도 미력하나마 이 생의 마지막 힘을 보태겠다"고 역설했다.

한편 시국성명에는 강남포교원과 서봉사 등 28개 분원 39명의 원로 스님들이 자필서명과 직인을 담았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성운 스님의
보리수 아래서

보시 ㊦

깨달음에 이르는 첫걸음

*재물이 아무리 많아도 잔뜩 움켜쥐고 나누지 못하는 인색한 사람은 마음이 가난합니다. 소유에 대한 집착이 강합니다.

자기는 주지 않으면서 많이 받는 것에 길들여져 있는 삶은 분노와 원망과 고통을 동반합니다. 주기보다 받기를 원하는 마음은 탐심입니다.

탐해서 뜻대로 안 되면 분노하게 되는데 여기서 지옥문이 열립니다. 모든 재앙은 탐심에서 시작됩니다. 재앙과 지옥에서 벗어나려면 내가 받는 것보다 더 많이 주는 보시 수행을 해야 합니다. 보시 수행은 봉사하는 삶이며 복전 가꾸기입니다. 이웃과 '좋은 관계'를 이루고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



제목 · 빈자일등 그림 · 조향숙

나누는 기쁨이 '보시 공덕'
주고 받는 사람 함께 행복
"재물 없어도 나눌 수 있다"

주는 유일한 길입니다. 인색과 탐욕은 불행이고 보시는 행복입니다.

콩 한쪽도 나눠먹는다는 속담이 있지요. 무엇이든지 나누는 연습을 합시다. '선행통장'을 만들어 공덕을 저축해보세요. 나눔이 습관화되면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망설임 없이 줄 수 있습니다.

주고 또 주십시오. 주는 일은 자비이고 사랑입니다. 탐욕과 집착의 감옥에서 풀려날 것입니다.

*보시에는 재보시(財布施), 무외보시(無畏布施), 법보시(法布施)가 있습니다. 부처님의 법을 전하는 법보시는 보시중에서 가장 수승한 보시입니다. 불법(佛法)은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하게 사는 법을 일러주는 '진리'이므로 법보시는 '진리 나눔'이며 행복으로의 초대입니다.

우리 불자들은 나만 절에 다니고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고 수행할 것이 아니라 이웃과 함께 해야 합니다. 경전을 법공양하고, 부처님 말씀을 전하는 법보시는 부처님의 '전도선언'을 따르는 불자의 사명이며 도리입니다.

무외보시는 공포와 두려움에서 벗어나 마음이 안정되고 편안해 지도록 도와주는 마음보시입니다.

가진 것이 없어서 재보시를 못한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재물이 없어도 보시할 수 있는 일곱가지 방법 무재칠시(無財七施)를 일러주셨습니다.

온화한 얼굴로 남을 대하는 화안시(和顔施), 칭찬과 배려와 같은 부드러운 말 언시(言施), 자비심으로 이웃이 잘 되기를 축원하는 심시(心施), 따뜻한 눈길을 보내는 안시(眼施), 몸으로 남을 돕는 신시(身施), 자리를 양보하는 상좌시(床座施), 상대방의 마음을 살펴서 돕는 찰시(察施). 〈잡보장경〉에 있는 무재칠시입니다.

무재시는 재물 없이도 마음을 부자로 만들어주는 나눔입니다.

보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스스로 깨닫게 합니다. 그러므로 보시는 지혜에 이르는 첫 걸음입니다.

*받는 사람이 기뻐하고 행복해 하면 주는 사람도 함께 기쁘고 행복합니다. 그 기쁨이 나눔의 보상이고 보시의 공덕입니다. 자리이타(自利利他)이고 '착한 관계'입니다.

일상의 모든 행위가 따뜻한 자비행이고 무주상보시일 때 보시바라밀은 완성됩니다.

이 모든 말씀은 불법에서 가장 으뜸인 연기(緣起)의 가르침입니다.

〈삼천사 회주 · 동국대 석좌교수〉



“제주4.3, 불교 피해 커”… 사찰 전소·승려 사망

한금순 박사, 제주4.3 70주년 세미나서 불교 피해 밝혀

1948~1949 초토화작전기 집중
예비검속 명분에 강제 수장도
제주불교 전통 단절 아픔 겪어
“적극적인 사회참여 기억해야”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제주4.3항쟁기 제주불교의 수난은 제주사회 현안에 깊숙이 참여해 활동했기 때문에 발생했다. 승려들의 인명 피해는 물론이고 관음사 등 사찰들이 제주4.3항쟁의 격전지로 수난을 당하기도 했다.”

제주4.3사건이 올해 70주년을 맞은 가운데 당시 제주불교계의 구체적인 피해 사례가 조명됐다. 한금순 문학박사는 3월 1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서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주최로 열린 제주4.3 70주년 학술세미나서 ‘제주4.3항쟁과 제주불교의 수난’을 주제로 발표했다.

한 박사에 따르면 제주4.3항쟁으로 인해 근대제주불교 활동을 주도한 승려들이 대거 희생되면서 제주불교 활동 전반에 큰 손실이 발생했다. 이 시기 승려 피해는 14개 사찰 소속 승려 16명으로, 총살 10명, 수장 2명, 고문 후유증 사망 1명, 일본으로 도피 1명, 행방불명 2명으로 조사돼 있다.

한 박사는 “가해자는 모두 토벌대다. 피해 시기는 제주4.3항쟁의 상황과 마찬가지로 1948년 10월 말부터 1949년 3월까지의 초토화작전 시기에 집중돼 있다”면서 “사찰 경내서 총살당한 경우가 많았다. 한국전쟁 발발 이후에는 예비검속이라는 명분아래 산채로 돌을 묶어 바다에 수장했고, 집단 학살 과정 등에 승려들이 살해당했다. 정식재판에서 죄를 묻지 않고 군경이 임의대로 인명을 살상한 불법적인 일”이라고 밝혔다.

당시 제주불교를 대표한 승려인 이일선은 선운사에서 출가해 백양사서 공부하고, 1938년 백양사 포교사로 제주도서 활동했다. 1945년 ‘조선불교혁신 제주도 승려대회’ 준비위원장으로서 친일을 반성하고, 왜색화 된 불교풍토를 정화하려는 노력을 주도했다. 1947년 ‘3.1절 기념 투쟁 제주도위원회’ 선정동원부에서 활동하고, ‘제주도 민주주의 민족전선’의 3인 의장단 중 한 명이었다. 하지만 정광사에서 예비검속돼 산지포구서 수장됐다.



인명피해뿐만 아니라 불교 재산피해도 막대했다. 한 박사에 따르면 제주4.3항쟁 당시 피해를 입은 제주불교 사찰은 37개소가 조사돼 있다. 이 중 사찰 건물 피해는 35개소로, 전소된 사찰만 18곳에 달한다. 또한 제 기능을 하지 못하도록 파옥한 곳 10개소, 오랫동안 접근과 사용이 금지되며 폐허된 곳 4개소, 강제 매각 당한 곳 1개소로 집계됐다. 전소시킨 후 토벌대 주둔소로 활용하거나 육군훈련소 숙영지 혹은 면사무소로 사용된 사찰도 있었다.

한 박사는 “사찰 내에 있던 법당과 요사채, 객사 등 건물 피해 위주로 조사돼 있다. 건물 이외에 불상 등의 피해는 오랜 세월이 흘러 쉽게 조사할 수 없는 실정”이라며 “소개령으로 피난할 경우 불상을 끌어안거나 등에 업어 옮겨 다녔던 상황이 증언되고 있다. 현재 제주도에 제주4.3항쟁 이전에 봉안한 불상과 탱화를 보유한 사례는 매우 드물다는 점에서 피해규모를 짐작할 수 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한 박사는 이어 “제주불교를 이끌던 인명의 피해는 오래도록 그 후유증이 컸으며, 사찰 건물 등의 피해 또한 재건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 적극적으로 참여한 만큼 피해 또한 막심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끝으로 “제주불교는 해방으로 새로운 국가 건설에 맞춘 한국불교 전통을 되살리고자 했다. 하지만 이런 희망은 4.3으로 인해 단절되다시피 했다. 오늘날 제주불교는 제주4.3항쟁기 치열한 제주사회 참여활동을 기반으로 한 것임을 기억해야 한다”면서 “불교계가 지금이라도 제주4.3항쟁과 제주불교의 사회참여 활동에 관심을 기울여 전반적인 연구에 나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법정 스님 8주기 다시 펼쳐진 ‘무소유’

길상사, 3월 13일 추모법회 간소하게 개최

영전에 국수 공양
육성법문 등 공개



법정 스님 입적 8주기를 맞아 스님이 평소 펼친 무소유 정신을 되새기는 자리가 마련됐다. 서울 길상사는 3월 13일 설법전에서 입적 8주기 기념법회를 개최했다. 이날 법회는 스님의 평소 가르침을 따라 간소하게 개최됐지만 송광사 법흥 스님을 비롯해 조계종 원로의원 인환 스님, 전 포교원장 혜총 스님 등과 대중 300여 명이 참석했다.

법회에서 길상사 주지 덕일 스님은 “앞으로 더욱 열심히 수행정진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서도 무소유 사상을 알리는데 일익을 담당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영단에는 생전 스님이 좋아했던 국수와 함께 최근 맑고향기롭게가 수상한 국민추천포상 대통령 단체표창이 함께 올려졌다.

법회 후에는 2016년 길상사 창건 9주년 당시 법정 스님의 법문을 바탕으로 제작한 영상이 상영됐다.

영상에서 법정 스님은 1994년 ‘맑고 향기롭게 살아가기’ 운동을 주창하며 길상사를 창건한 의미를 설명했다.

길상사는 앞선 3월 11일 ‘법정 스님을 그리는 맑고 향기로운 음악회’를 개최했다. 또 13일 맑고향기롭게 부산모임(회장 박수관) 등도 추모법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성주사 회주 흥교 스님과 부산불교교육대학장 범혜 스님을 비롯해 맑고향기롭게 부산모임 박수관 회장, 부산불교지도자 포럼 회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박수관 회장은 “법정 스님이 몸소 실천하신 삶을 다시 되새기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맑고향기롭게는 5월 5일 길상사에서 제2회 무소유 어린이 글짓기 대회를 개최한다. 노덕현 기자

패럴림픽서도 월정사 국빈 방문 활발

7일 패럴림픽 조직위 만찬
11일 노르웨이 공주 방문

2018패럴림픽 기간에도 평창 월정사가 국빈 방문지로 각광받고 있다. 평창 월정사는 3월 7일 국제패럴림픽위원회(IPC) 환영만찬을 개최한데 이어 11일 노르웨이 마르타 루이세 공주 일행이 사찰 참배를 진행했다.

만찬에는 앤드루 파슨스 IPC 위원장과 주지 정념 스님, 최문순 강원도지사, 최명희 강릉시장, 심재국 평창군수 등 50여명이 참석해 정갈하고 담백한 사찰음식을 맛봤다.

이들은 월정사 스님들이 시연한 법고와 타종, 이매방류 승무 전승자인 진유림씨와 정가악회 공연도 관람했다.

월정사에서 마련한 만찬은 월정사 산내 암자인 지장암 비구니 스님들이 준비한 것으로 사찰음식의 정갈함과 담백함을 맛볼 수 있어 참석자들의 찬탄을 자아냈다.

이날 행사를 위해 월정사 측에서는 대법륜전에 장애인 이동통로 및 이동식 장애인전용화장실을 갖추는 등 행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를 했다.


3월 7일 월정사 IPC 만찬서 펼쳐진 승무 공연 모습.

노르웨이 공주 일행은 월정사 총무국장 인광 스님 안내로 경내를 탐방하고 사찰 내 청류다원에서 차담을 나눴다.

월정사는 643년 신라 자장 율사가 창건한 전통사찰로 올림픽 개최 시·군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문화유산이다. 상원사 동종과 월정사 팔각구층석탑, 문수동자목조좌상 등 국가지정문화재를 포함한 강원도 유형문화재 60%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

월정사 측은 “월정사는 한국불교의 대표적인 사찰로 불교문화유산과 전통문화를 고스란히 간직한 곳”이라며 “올림픽과 패럴림픽 기간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에게 우리나라의 아름다움을 잘 보여주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림픽 기간에도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노르웨이 등 국가수반이 방문했으며 CNN과 NBC, NHK 등 해외 언론도 월정사를 찾아 한국 전통문화와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보도한 바 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쌍용차 해고자 복직 위한 사회노동위 오체투지

쌍용차 해고자 복직 문제 해결을 위해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가 나섰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혜찬, 이하 사회노동위)는 3월 12일 서울 조계사에서 청와대 방향으로 쌍용차 해고자 원직복직을 발원하며 오체투지를 진행했다. 이날 오체투지에는 윤충렬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수석부지부장을 비롯한 조합원들도 참여했다.

쌍용차 해고 사태는 현재 평택 쌍용차 본사서 정리해고자 1,400여 명을 2017년 상반기까지 순차 복직시키기로 했으나, 현재까지 103명 만이 복직되며 현재 진행 중이다. 쌍용차 측과 금속노조 측은 2월 20일부터 해고자 복직을 놓고 세 차례 실무교섭을 했으나 복직 규모와 시기를 두고 이견이 발생했고, 김득중 금속노조 지부장 등이 단식농성에 들어간 상태다.

사회노동위원장 혜찬 스님은 “쌍용차에선 사람과 노동이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 해고자들이 복직할 때까지 투쟁에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형 기자 realjeanp@hyunbul.com

敎 示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시고 승가 공동체를 구성하신 것은 傳法과 和合을 위해서 입니다. 승가의 운영 원리에는 오직 화합만이 있을 뿐입니다.

과거 우리 종단의 구성원 중 일부가 과오로 이탈하였으나 懺悔하고 自重하며 다시 함께 수행하고자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에 총무원장 스님을 비롯한 집행부와 중앙종회의원 스님들은 이러한 사정을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대중들 앞에서 진심을 다해 自恣하여 종단의 일원으로 더욱 정진해 나갈 수 있도록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러한 화합 조치를 통해 宗門을 더 높고 빛나게 하고 우리 교단의 존재 이유인 持戒淸淨, 精進和合, 廣度衆生의 길에 모든 宗徒가 일치단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아가 수행공동체의 신심과 원력으로 남과 북의 모든 민초들이 함께 번영해 나갈 活路를 여는데 進力해야 합니다.

오직 부처님 법 그대로 수행하여 常樂我淨의 기쁨을 중생들과 함께 누리시길 간절히 당부합니다.

불기 2562(2018)년 3월 12일

大韓佛敎曹溪宗 宗正 眞際 法遠

출가열반재일 맞아 특별한 행사 열린다

중앙신도회 계율산림 법회 포교원 특별신행일지 보급

사찰선 금강경 독송 정진 요가, 명상 강좌도 개최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2017년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열린 신행혁신 실천 계율산림법회에서 포교원장 지홍 스님을 비롯한 재가불자들이 가행정진을 다짐하고 있다.

3월 24일 출가재일부터 3월 31일 열반재일까지 불교계가 특별한 신행활동 증진에 나선다. 출가재일과 열반재일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탄생한 부처님오신날, 부처님이 되신 성도재일과 더불어 불교 4대 명절로 불릴 정도로 중요한 날이다. 특히 출가재일과 열반재일은 음력으로 일주일 차이를 두고 나란히 찾아와 20여년 전 부터 정진주간으로 삼아 수행풍토 조성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먼저 조계종 중앙신도회(신도회장 이기흥)는 출가재일을 하루 앞둔 3월 23일 서울 봉은사에서 '신행혁신 실천 계율산림법회'를 개최하며, 31일 조계사에서 회향법회를 연다. 중앙신도회는 지난해 처음으로 종무원조합, 대한불교청년회 등 재가불자 단체들과 함께 조계종 총무원이 위치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계율산림법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번 계율산림법회는 출가열반재일의 8일기간 동안 수행에 정진할 것을 다짐하는 자리로 신행혁신 활성화 차원에서 봉은사를 비롯해 조계사 등지에서 열리며 불자 대중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지난 1회 신행혁신 실천 계율산림법회에는 200여 불자들이 참여했지만, 2회 법회에 3000여 명이 넘는 불자들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23일 오후 6시 30분에 열리는 입재식에는 봉은사 주지 원명 스님이 법사로 나서며, 30일 오후 7시 열리는 회향식 및 수계식에는 전계사로 포교원장 지홍 스님이 나선다.

이와 함께 신행혁신 운동을 펼치고 있는 조계종 포교원(원장 지홍)은 이번 출가열반재일을 맞아 수행점검을 위해 특별 '붓다로살자' 신행일지를 제작해 보급한다. 이번에 제작되는 신행일지는 연초 포교원이 발간한 신행일지를 8일간 할 수 있도록 간소하게 만든 것으로 포켓북 형식으로 제작됐다.

종단 차원의 신행 운동과 함께 주요사찰들도 출가열반 정진기간을 맞아 특별기도를 진행한다. 서울 조계사는 24일부터 8일기도를 진행하며, 요가와 참선, 명상 강좌도 함께 연다. 특히 이번 출가열반 정진기간 동안 승보공양 운동을 함께 전개해 3월 17일부터 열반절인 3월 31일까지 헌공을 받는다.

서울 국제선센터는 사시예불에서 가족이 함께 동참 가능한 108배 기도를 진행하며, 양산 통도사, 서울 봉은사 등 사찰도 금강경 독송기도를 진행한다. 또 부산 흥법사의 경우 '우리도 부처님같이 출가에서 열반까지'를 주제로 특별기도를 진행한다.

김응철 중앙승가대 교수는 "승가에 공양을 올리는 승보공양을 비롯해 108참회기도, 자비실천으로 점차 출가열반 정진의 형태가 다변화 되고 있다"며 "부처님께서 출가하고 열반하신 진정한 의미는 사회적 약자를 보듬어 않는 회향의 의미도 있기에 대사회적인 자비실천의 노력을 더욱 기울였으면 한다"고 말했다.


불교계가 포항 지진 피해 이재민들에게 희망을 선물했다.

포항 이재민에 희망을 선물해요

재단법인 아름다운동행(이사장 설정, 조계종 총무원장)은 3월 12일 흥해읍 약성리에 조성된 희망보금자리 이주단지에서 희망보금자리 임시주택 기증식을 열고 지진피해 주민들에게 임시주택 20동을 기증했다. 사진 왼쪽 두번째는 주택을 전달하는 이사장 설정 스님.

박진형 기자

'인권' '문화', 판교복지 새해 키워드

판교노인종합복지관 2018 신년사업 발표

성남 판교노인종합복지관(관장 이명희)은 3월 12일 복지관에서 지역 어르신 150명을 초청해 2018년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판교노인종합복지관은 인권, 문화, 철학, 건강, 지역 등 8개의 테마로 사업을 기획했다. 특히 인권에 대한 이해와 감수성 향상을 위한 '인권도서관', 국가적 관심사인 치매를 예방하기 위한 '경증치매 인지지원 서비스' 등을 무료로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2018년 3대 특화 사업으로 노인 영화제 출품을 목표로 하는 '시니어 영화 공작소'와 '보이는 라디오'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박진형 기자 realjeanp@hyunbul.com

스마트 기기 활용법, 사찰서 배우세요

불교계, DSLR · 스마트폰 강좌 등 스마트 불자 양성 나서

올해 70이 넘은 김숙자 씨는 며칠 전부터 고민이 하나 생겼다. 아들이 사준 스마트폰에서 계속 진동이 울리는데 이것이 무엇인지 도무지 모르겠는 것이었다.

며느리에게 몇 번 묻기도 했지만 눈치가 보이는 상황. 김 씨는 자연스럽게 평소 다니던 사찰의 종무원에게 묻는다.

이처럼 최근 늘어나는 6070세대의 스마트 기기 활용에 맞춰 불교계가 스마트 기기 활용 강좌를 시작한다.

서울 조계사(주지 지현)는 3월 29일 개강하는 백송불교대학에서 스마트폰 강좌를 커리큘럼에 포함시켰다. 스마트폰 강좌는 4월 19일부터 20일까지 두 차례 열리며 총 180여 명이 수강할 예정이다.

이번 스마트폰 강좌는 종로노인복지센터와 연계해 전문강사가 어르신들에게 스마트폰 작동법부터 카카오톡, MMS 메시지 보내기, 유튜브 영상 보기, MP3 재생하기, 인터넷 하기 등 다양한 활용법을 친절하게 설명한다.

이은숙 조계사 교육국 팀장은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전법 포교를 고민하는 지금, 사찰에서 불자 대부분을 차지하는 어르신들에게 스마트 기기 활용법을 교육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같은 교육강좌는 인기가 높다. 서울 봉은사(주지 원명)의 경우 2016년부터 DSRL 등 카메라 활용법을 알려주는 사진강좌를 열고 있다. 매 회 강좌가 만원이 될 정도로 호응이 뜨겁다.

올해 3월에도 신도 및 일반인들을 위한 사진교실을 입문반과 심화반으로 나눠 모집한다. 입문반의 경우 3월 28일부터 5월 30일까지 총 10강에 걸쳐 진행되며, 스마트폰 카메라 활용법부터 DLSR 작동, 출사까지 배울 수 있다. 심화반은 3월 20일 개강한 상태로 6월 12일까지 총 12강이 열린다.

특히 입문반은 낮 시간에 교육 참여가 어려웠던 직장인, 학생, 신도들을 위해서도 저녁 7시부터 8시 30분까지 교육을 진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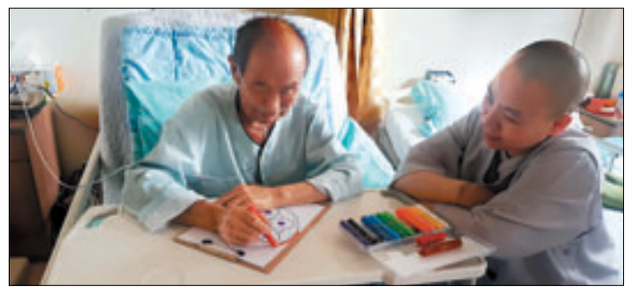
봉은사 관계자는 "카메라 활용법 등 교육을 받은 분들이 사찰의 다양한 행사를 찍어 알리는 또 다른 전법포교사 역할을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노덕현 기자

한국불교호스피스협회 'The 아름다운 사람'을 만나다 ⑤

도우 스님 정토마을 자재요양병원 영적돌봄가

매순간이 수행… "더욱 임종 돕겠다"



2013년, 막 강원을 졸업한 도우 스님은 봉사를 위해 정토마을 자재요양병원을 찾았다가 CPE 임상상담교육을 접했다. 임상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지만 자재요양병원 원장 능행 스님의 자신을 성찰하고 돌보아야 남을 돌볼 수 있다는 말에, 수행으로 생각하고 참여했다. 스님은 교육을 받으며 자신을 더욱 생각하고, 정화할 수 있었다고 한다. 또한 이렇게 나를 다듬는 것은 다른 사람을 더 잘 돕기 위해서라는 능행스님의 말에 봉사는 계속 이어졌다.

정토마을 자재요양병원에서는 환자가 임종을 해도 6~8시간 환자를 모시고 기도를 해주고, 가족들이 온전히 사별할 수 있도록 돕는다. 도우 스님은 특히 어린 아이들의 사별을 강조했다. 도우 스님은 "어른들은 어린 아이가 가족을 잃으면 애써 뒤로 아이를 빼곤 한다. 아이들은 가족의 죽음 앞에서 제3자가 되는 것"이라며 "아이들도 가족과 사별할 권리가 있다. 요즘은 임종을 지키러 오는 아이들의 의사를 묻고, 환자와 단 둘의 시간도 만들어주고 있다. 어른들 앞에서 아이들이 솔직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한다. 아이들과 가족들이 사별을 잘 마칠 때 가장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어린 시절의 도우 스님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아이였다. 스님은 죽음은 미지의 세계로 떠나는 것이라고 생각해 '신밧드의 모험'과 같은 이미지를 갖고 있었다고 한다. 그래서 어릴 때는 빨리 죽어 희망의 나라로 가고 싶다고 꿈꿨다고 한다. 그런데 막상 호스피스를 하며 보니 죽음이 사는 것만큼 중요하고, 쉬운게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고 한다. 특히 도우 스님은 임종을 맞는 환자들을 돌보며 죽음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다고 말했다.

"작년에 춤을 추며 임종을 맞이한 보살님이 있었습니다. 그 보살님은 평소에도 시민선방에 다니며 수행을 많이 하던 분이었습니다. 요양병원에 와서도 항상 웃으시고, 함께 염불을 외셨습니다. 기력이 다 하셨을 때에도 팔 다리를 흔들며 콧노래를 부르곤 하셨죠. 그리고 임종이 다가와 임종호흡을 하시는데, 저희가 옆에서 염불과 기도를 해 드렸더니 그 임종의 순간에도 입으로는 '나무아미타불'을 웅얼거리시고 손가락을 까닥이셨습니다. 그 모습이 생전 활발발하게 염불을 외며 춤을 추던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이때 저도 이토록 아름답게 죽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영적돌봄을 하면서 본인의 수행이 참 많이 된다는 스님은 '죽음 준비의 필요성'에 대한 프로그램과 강의를 준비하고 있다. 아이들이 편안하게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자리도 마련할 계획이다.

박진형 기자

▶한국불교호스피스협회는?

말기질환 환자 및 가족들의 생명존엄성을 높이기 위한 불교 호스피스 단체로서 2009년 창립됐다. 각 지역 · 지부 불교호스피스 활동을 총괄하며 조계종 승려연수 일환으로 불교호스피스 영적돌봄 1기를 모집 중이다.

▶조계종 승려연수교육 '불교호스피스 영적돌봄 1기'

승려연수 30점 인증

①임상과 수행의 만남 ②환자의 심리와 욕구 ③영적 대화기법 ④죽음 현상들에 대한 직관 ⑤임종간호와 영적돌봄의 실제 ⑥불교의 생사관과 정토신앙 ⑦불교적 임종의식과 입관의식 ⑧임종시점에서 西歸直指의 방법론

- **교육기간** | 2018년 3월 27일(화) ~ 3월 29일(목)
- **접수마감** | 3월 19일(월) (선착순 30명)
- **교 육 비** | 25만원(법납 10년 미만 및 학인스님 5만원 감면)
- **접수문의** | 052)255-8522, 8524, 8530 / www.kbha.kr

세계에서 침 제일 의과대학, 중국 1위 대학 -

세계 100위 대학 남경대 재경

2018년도 남경 의대(중의학) 학생 모집


혜인스님
한국총장

조기유학생 어학단기반 모 집
● 초 6년 ~ 고3 재학
● 남경사범대학 부속실험학교
www.njsdfc.co.kr

한국 유학생 중국의사 개업 취업
의료행위 할 수 있게 됐다
한국인 중국 의대졸업생 중국정부 중국 의사자격 취득한 외국인 개업 의사활동 허용한다고 중국정부는 발표했다.

❶ 특차모집(남경중의학대학)

학 과	학 제	모집인원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한의학과	5년	100명	• 최종학력증명 1부 • 최종성적증명 1부 • 입학신청서 1부 • 여권용사진 10부
석사과정	3년	50명	
박사과정	3년	10명	
재경대학	4년	80명	• 법학,경제,경영,무역,식품,금융 등

❷ 지원자격
▶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 주지스님 추천자

❸ 학교소개
▶ 세계침구 1위 명문 국립 한의과대학
▶ WTO 국제 전통의학 협력센터
▶ 부속병원3,제약공장,교육병원12,제약연구소 등 완비
▶ 중국어 어학원 및 유학생전용 기숙사
▶ 군입대 연기 가능
▶ 현재 생활관리 담당교사 상주하여 학사 관리
▶ 학자금 대출 가능
▶ 서울시내 대학 편입 가능
▶ **중국내 개업 의사 가능**

❹ 전형방법 및 모집기간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모집기간 : 2018년 3월 30일까지 수시전형

❺ 지원서 교부 및 접수
▶ 교부 : 한국 사무처 – 홈페이지에서 다운받거나, 불교조계종 교학과에서 직접 교부 (지방은 우편으로 배부 가능) www.njutcm.co.kr
▶ 접수 : 불교조계종 한국분교(빠른 접수 가능)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로 26가길 50-1(돈암동 83-2)
▶ 제출서류 특별전형 : 최종학력증명 및 성적증명서 각 1통
▶ 기 타 어학연수 및 조기유학에 관한 문의는 불교조계종 국제교류처(02-511-1080)으로 문의 바람.

❻ 학비(등록비 및 보험료 포함)
▶ 학사 과정 : 매년 25,800위안
▶ 석사 과정 : 매년 33,800위안
▶ 박사 과정 : 매년 41,800위안

■ 남경중의약대학(南京中醫藥大學)
南京市仙林大道138號(210023)
138 Xianlin Rd., Nanjing 210023, P.R.China
E-mail : overseas@njucm.edu.cn
Website : www.njucm.edu.cn

■ 한국상담처 : 불교조계종 총무원교육부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로 26가길 50-1 (돈암동 83-2)
▶ 교학처 : (02)511-2026, 2027
Fax (02)511-2028
▶ 총장실 : (02)511-1080
▶ http://www.njutcm.co.kr



2023 세계스카우트 잼버리대회 성공개최를 기원하고, 새만금 방조제 건립으로 인해 희생된 뭇 생명들의 넋을 위로하는 제1회 영산문화축제. 사부대중이 오색풍선을 하늘로 띄우며 발원하고 있다.



영산작법회 스님들이 유주무주 고혼들의 넋을 위로하며 극락왕생을 기원했다.



행사장에 운집한 5000여 사부대중이 삼귀의례와 반야심경 봉독을 하고 있다.

"세계청소년 화합, 佛法 아래서 이뤄지길"

태고종 전북종무원, 제1회 영산문화축제

새만금=조동제 전북지사장

부처님 가피로 인류평화를

2023년 전북 새만금서 열리는

세계잼버리대회 성공개최 발원

태고종 5000여 사부대중 운집

새만금 조성 희생 영혼 위로

영산작법보존회 30여 스님들

고혼 위로하며 영산작업 올려

세월호 희생자 극락왕생도 기원

"세계평화를 목적으로 열리는 2023 세계잼버리대회를 불자들의 원력으로 치러낼 것입니다. 전 세계 168개국 5만 세계청소년들이 모이는 평화의 대회를 부처님의 가피로 모든 갈등이 종식되고 인류평화를 꾀하는 출발점으로 삼고자 합니다."

오는 2023년 전북 새만금지역에서 세계의 젊은이들이 펼치는 새 시대, 새 희망 젊음의 축제인 '2023 세계스카우트 잼버리대회' 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는 문화축제가 불교계 원력 아래 거행됐다. 전북의 발전을 도모하며, 새만금 시대의 개막과 새만금 방조제 건립으로 희생된 뭇 생명들의 넋을 위로하는 '제1회 영산문화축제' 가 성황리에 열린 것.

태고종 전북종무원(종무원장 진성) 주관으로 3월 10일 새만금 방조제 서쪽 신시도 광장에서 열린 영산문화축제는 태고종 호법원장 지현 스님, 중앙종회의장 도광 스님, 前종무원장 도산 스님과 전주 참좋은우리절 회일 스님, 논산 안심정사 법안 스님, 전국의 태고종 지방 종무원장 스님 등 200여 명의 스님들과 송하진 전북도지사 내외, 문동신 군산시장 내외, 강현욱 前 전북도지사 내외를 비롯한 불자와 한국스카우트 연맹 관계자 등 5천여 명이 운집해 성황을 이뤘다.

'나의 꿈을 하늘에 그리자' 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날 행사는 대형 비행선이 새만금 상공을 선회하면서 축제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키고, 6천여 개의 연등이 행사장을 장엄한 가운데 군산지역 풍물패의 길놀이로 시작됐다.

이어 전북 영산작법보존회장 혜정 스님이 회심곡을 개사해 세계잼버리대회의 성공을 기원하고, 마이산 탑사 탑밴드는 신바람 나는 퓨전 난타 공연으로 식전공연의 막을 올렸다. 청소년들로 구성된 비보이 댄스 공연이 무대를 달구고, 군산 성흥사 주지 송월 스님은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는 대형 서예퍼포먼스를 펼쳤다.

한국스카우트 전북연맹 이재현 · 차정숙 씨의 사회로 진행된 기념법회에서 영산문화축제를 주관한 진성 스님은 대회사를 통해 "다양한 국적과 문화를 가진 청소년들이 우호증진과 문화교류 기회를 갖는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하고, 새만금 방조제 조성으로 인해 희생된 수많은 생명을 위로하는 영산재를 올려 전라북도의 발전을 기원한다" 고 행사 취지를 설명했다.

태고종 중앙종회의장 도광 스님은 법어에서 "전북에서 열리는 국제대회인 세계잼버리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전 불자들의 원력을 모아달라" 고 당부했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축사를 통해 "우리나라 지도를 바꾼 새만금에서 열리는 첫 번째 국제행사인 세계잼버리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전국에서 마음을 모아준 스님들과 불자들에게 도민을 대표해서 감사인사를 드린다"며 "전라북도 도민과 관계기관의 역량을 모두 결집해 성공적으로 대회를 개최하겠다" 고 약속했다.

영산문화축제에 동참한 사부대중은 현진 스님이 낭독한 발원문을 통해 인종과 문화가 다른 전 세계의 젊은이들이 펼치는 세계잼버리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서해 해수관세음보살과 호법신장들이 외호하고 세계평화와 한반도의 평화에 함께해줄 것을 발원했다.

행사에 참석한 스님들과 내빈, 사부대중은 5천여 개의 오색풍선을 바다 한가운데로 날려 보내며 세계잼버리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저마다의 소원을 기원했다.

이어진 3부에서는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18호 영산작법이 무대에서 펼쳐졌다. 영산작법보존회 전수자와 이수자 스님 30여 명은 무대에 올라 전라북도 불교문화의 진수인 영산작법을 선보였다.

혜정 스님은 "영산작법을 통해 새만금 방조제 조성으로 인해 희생된 수많은 생명들과 유주무주 고혼과 영령들의 넋을 위로하고 서해바다에서 희생된 세월호 희생자들의 극락왕생을 기원했다"며 "그동안 일반인들이 쉽게 접할 수 없는 다양한 전통악기와 작법과 범패를 알릴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다" 고 소감을 말했다.

인천에서 왔다는 보문행 불자는 "말로만 들었던 새만금 방조제의 규모에 놀랐다"며 "영산문화 축제를 통해 생명존중사상을 통해 국제적인 잼버리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되길 바란다" 고 말했다.

"종도 원력 모아 불교축제로 발전"

진성 스님 태고종 전북종무원장(영산문화축제 조직위원장)



"전라북도에서 개최되는 세계스카우트 잼버리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면서 불교의 소중한 문화유산인 영산작법을 일반인들에게 널리 알릴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영산문화축제를 기획하게 됐습니다."

지난해 태고종 전북종무원장에 취임한 뒤 잠시도 쉴 틈 없이 이번 영산문화축제를 준비한 진성 스님〈사진〉은 행사 직후 인터뷰서 쉰 목소리로 이 같이 말했다. 이번 행사를 준비하면서 겪은 어려움이 여실히 느껴졌다. 하지만 스님은 '불교 위상' 과 '불교의 사회참여' 에 도움이 됐다며 내색하지 않았다.

"전라북도에서 열리는 대규모 행사였지만 태고종 전북종무원과 불자들의 성원과 격려에 힘입어 추진 동력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전국의 태고종 종무원장 스님들과 불자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셔서 불교의 위상을 한껏 드높일 수 있었기에 감사드릴 따름입니다."

진성 스님은 이번 첫 번째 영산문화축제의 성공을 바탕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영산문화축제를 개최할 계획을 세웠다.

"불교문화 유산인 영산작법의 대중화를 위해 종도들의 원력을 결집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매년 영산문화축제를 개최하면서 남북관계 개선과 세계평화는 물론 전 국민들의 신뢰를 받는 불교축제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점차 내실을 다지겠습니다."

방금 행사를 마친 스님의 표정에서 지역발전과 불교발전에 대한 원력을 읽을 수 있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학술원 불교인문학 특강

"草書 알아야 불교문서 이해 가능"

주제 : 초서란 무엇인가… 초서로된 불교문서의 이해

양진석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양진석은… 고문서학회 학회장, 규장각한국학연구원 학예연구관을 역임중이다. 현재 국사편찬위원회 초서고급과정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공저로는 〈조선시대 생활사〉등이 있으며 저서로는 〈최승희 서울대 명예교수 소장 조선시대고문서〉가 있다.

고문서류에서는 사찰 기록 중 조선후기 사찰이 겪어야 했던 국가로부터의 요구, 혹은 지역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던 침탈과 관련한 내용이 많다. 따라서 고문서를 이용하면 국가적인 억불숭유정책 때문에 이루어졌던 조선시대 사찰에 대한 억압의 구체적 내용을 살필 수 있다. 그러나 이런 내용들은 대체적으로 초서로 작성됐기 때문에 당대 사찰들이 겪어야 했던 구체적 내용들이 잘 알려지지 않은 실정이다. 양진석 규장각 한국학연구원은 3월 14일 동국대학교 다향관 세미나실서 '초서란 무엇인가: 초서로된 불교문서의 이해'를 주제로 강의했다. 양 연구원은 "초서를 올바른 방향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고문서류의 본질을 파악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리=박진형 기자

초서의 구성

초서의 형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는 상식과는 다른 점이 있다. 우리는 해서를 알고 난 후에 초서에 대하여 공부하고 자획을 읽는 것이 차례라고 알고 있다. 그렇다고 초서부터 배워서 해서를 알려고 한다면 그것은 미련한 행동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당장에 해서로 된 글자, 그리고 한문에 대한 해독만 하더라도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초서를 알기 위해서는 초서의 구조를 알아야 할 것이다. 초서의 구조는 한자의 구조와 연관해 살필 수 있다. 우리가 초서를 배울때는 주로 초서의 구조와 형성의 틀을 잘 보여주고 책으로 엮어진 것으로 〈초결가(草訣歌)〉를 이용하고 있다. 그 중 가장 전형적인 것으로 많이 이용되는 것은 왕희지체로 쓰여 있는 것으로 '왕우군초결백운가(王右軍草訣百韻歌)'가 있다. 이 초결가는 동진(東晋) 때의 왕우군 즉 왕희지(王羲之)의 필체를 이용하여 만들어진 것인데, 이를 편찬한 이는 송대의 미불이다.

초결가는 5언(言) 2구(句)를 1개의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를 통해 초서의 구성 원리들이 설명되고 있다. 현재 전하고 있는 초결가는 백운(百韻)에 미치지 못하는 83개의 대구(對句)로 이루어진 것과 106개의 대구로 이루어진 것이 있다. 이외에도 초결가의 내용을 변형시켜 제작된 것들도 있다.

초서를 익히기 위해서는 초서의 형태에 대한 원리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초서의 구성 원리를 살피기 위해서 초서와 해서의 선후 관계를 따지면서 접근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러한 방법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지금 당장은 현실적인 필요성을 내세우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한자의 형태 즉 해서를 이용하여 초서의 모습에 역으로 접근해보는 수밖에 없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방법들이 있겠지만 〈초결가〉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유효하다.

〈초결가〉에 담겨진 글자의 구성 원리와 내용을 크게 유별해보면 다음과 같다. 우리가 알고 있는 부수를 중심으로 생각하면서, 그와 결합하여 글자를 이루는 모양들에 대하여 살펴보는 것이 우선 기본적인 형태라고 하겠다. 변형된 경우도 많지만 우선 기본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다만 〈초결가〉를 검토하기 전에 '초서'의 기본 획들은 점(點)과 선(線)들 간의 결합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명심해야 하겠다. 이 때문에 초서는 점과 선을 어떤 방법으로 표현하는 가에 따라 매우 다양한 형태로 표현된다. 따라서 초서는 유동적인 모습을 띠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모습만을 고집할 수도 없다.

그리고 초서의 획이 해서에서 표현되는 획들이 그대로 반영되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외형만이 아닌 해당 글자가 표현하려는 필세만으로 대신 표현되기도 한다. 그리고 쓰는 차례 즉 필순(筆順)에 따라 그 모양이 크게 변하기도 한다.

사찰 피해 · 억압 등 살피려면
초서 잘 알아야 고문서 이해해
〈초결가〉통해 구성원리 익히고
초서 이면의 의미 파악해야…

실제적인 초서를 대하면서 익히는 방법이 가장 중요하다. 원리를 유념하면서, 초서를 거론할 때 중심이 되는 인물의 글씨체 즉 왕희지(王羲之), 지영(智永), 손과정(孫過庭) 등이 남긴 초서 및 초서와 관련된 글씨를 많이 남긴 인물들을 중심으로 배워나갈 필요가 있다. 그 과정에서 자형의 질서나 초서의 구성원리 및 운용 등을 적용하면서 자형에 대한 변별력을 키워나가도록 해야 한다.

다만 초서의 원리를 적용하는 글자들이 많다고 하더라도 특정 글자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예외적인 글자들에 대해 해독할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한다. 글자마다 적용하는 원리가 하나로 정해진 것이 아니어서, 원리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모습이 나타나게 되었다.

초서를 숙련하는 것은 기술적인 문제에 그치지 않고, 몸으로 익히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즉 성실성과 끈기가 요구된다. 이것 없이는 끝을 보지는 못할 뿐 아니라, 익혀 나가는 과정에서 즐거움도 느낄 수 없다. 아울러 많은 문장들을 접하고 익히면서 문장이 지닌 특성에 적응해야 초서를 쉽게 해독할 수 있다.

불교관련 한문기록과 초서

우선 옥천사의 자료들은 주로 초서로 기록된 것을 중심으로 검토한 적이 있다. 옥천사에 부과되는 토지세와 환곡과 관련한 부세를 면할 수 있게 해주는 완문을 비롯한 국가의 부세관련 문서, 그리고 어람지(御覽紙) 봉진과 관련하여 결역의 금지를 요청하는 문서들이 많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대둔사(大芚寺)의 문서로는 서산대사의 행적을 들어 국가에 대한 공을 언급하면서 표충(表忠)의 행적을 드러내어 허사사액(許祠賜額)하되, 그를 기리는 사찰로 대둔사(大芚寺)를 해남(海南)의 표충사(表忠祠)로 지정하여 국가로부터 부여되는 역을 면제받는 내용의 완문도 있다. 전라 지역의 승려들이 예조에 소장(上言)을 내어 이루어진 것으로 영남에서 표충사를 지정한 예에 의하여 시행해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다. 그 결과 계방의 혁파, 관속배들이 동백기름을 외상으로 요구하는 행위, 토반(土班)들의 다양한 형태의 침책을 금지하고, 관속배들이 읍사를 빙자하여 채무를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들 문서 외에도 도유사안(都有司案), 전곡유사안(典穀有司案), 주관유사안(主管有司案), 원중위토록(院中位土錄) 등과 같이 운영과 관련된 기록들이 있다.

파계사(把溪寺)는 영조(英祖)의 어필이 보관되어 있는 곳이며, 왕자군(王子君)의 원당으로 역할을 하였음을 보여주는 문서들을 살필 수 있다.

〈대구용천사결역절목〉은 조선후기 사찰이 지역에 대한 역 부담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보여준다. 경상감영과 대구부에 바쳐야 하는 종이, 송목(松木), 그 외에도 산에서 생산되는 열매, 전죽(箭竹)으로 만든 물건들을 바치거나, 각수, 화원 목수 등의 명목으로 사역하는 것, 밥을 짓는 승을 대령하게 한다든지, 그 외에도 문무과 진사들이 유가(遊街)하면서 며칠 동안 머무른다거나, 다른 사찰의 승도가 걸공(乞功)을 이유로 무리를 지어 모이거나, 유향(儒鄕)들이 소청(疏廳)으로 사용한다고 빙자하여 사찰에 머물렀을 때 그들을 접대해야 하는 부담 등, 계방(契房)관련 부담, 기타 이향(吏鄕)들의 침색 등이 끊이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된 사찰에 대한 침탈 등은 다양하게 이뤄졌다.

이와 같이 조선후기 사찰이 겪어야 했던 국가로부터의 요구, 혹은 지역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던 침탈과 관련한 내용들이 실려 있다. 즉 문서를 이용하여 국가적인 억불숭유정책 때문에 이루어지고 있던 조선시대 사찰에 대한 억압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필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 대체적으로 초서로 작성되어 있기 때문에, 당대의 사찰들이 겪어야 했던 구체적인 내용들이 잘 알려져 있지 않다. 불교 사찰의 소장 문서들 중에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문서들이 많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 외에도 사찰이 소지하고 있던 토지, 기부를 받은 토지에 대한 내역, 승려와 관련한 토지의 매매현황을 살필 수 있는 문기들이 있다.

성책류(成冊類)로는 사찰에서 사용하던 각종 물품들의 현황을 기록한 책자를 들 수 있다. 주된 내용은 곡식, 땔감, 종이, 그릇, 솥 등을 비롯한 다양한 물품들에 대한 것들이다. 이는 사찰의 운영을 살필 수 있는 것이라 하겠다.

불교에서 일컬어지는 사기(私記)는 불교 경론에 대하여 학승이 개인적인 의견을 담아 주석한 것이다. 이는 개인적인 의견을 정리한 것이면서, 국내에서 순수하게 자체적으로 경론을 연구하여 만들어진 주석서라는 점에서 가치가 매우 크다. 사기는 '화족(畵足)', '췌(贅)', '발병(鉢柄)', '하목(鰕目)' 등의 명칭으로 표기되기도 하였다. 성격은 소초(疏抄)에 비견될 수 있으나, 그에 비해 겸손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사기는 한국불교의 경론에 대한 이해를 논할 수 있는 기록이라 할 수 있다. 다양한 사람들에 의하여 동일한 기록을 옮겨 썼지만, 그 과정에서 잘못 쓰인 것들이 많다는 것을 파악되었다. 그러나 본인의 작업한 경험을 언급하자면, 옮겨 기록하면서 착오가 매우 많게 된 것은 글자에 대한 이해와 함께 문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이 많았다는 점이다. 하나의 글자를 잘못 파악하여 두 개의 글자로 기록한 경우도 눈에 띠었다. 이는 글자가 상하로 조합된 글자를 상하 각각 다른 글자로 기록하는 형태를 말한다. 그 외에도 유사한 글자를 다른 글자로 기록하기도 하였다. 아마도 사기에 기록된 내용에 대한 파악이 부족한 상태에서 필사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사기의 원형을 우선 제시할 필요가 있다. 그러한 바탕에서 다양한 이본들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 과정에서 잘못된 기록을 파악할 수 있으며, 때로는 기록과정에서 기록자의 필요에 의하여 선택적으로 옮겨 쓴 것도 있을 수 있다. 이와 같은 기록들 간의 차이를 살펴보고 그 기록의 위치를 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설령 잘못 기록된 것이라 하더라도 결코 폄하해서는 안 된다. 기록과정에서의 실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잘잘못만을 따져서는 안 된다.

설사 잘못 파악된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잘잘못만을 따질 것이 아니라, 그 사기를 이용한 흐름은 어떻게 진행되었으며, 그것을 통하여 사기를 이해했던 각각의 흐름을 살펴보고, 그것이 낳은 또 다른 결과에 대하여 논하는 것이 순서라고 본다. 제대로 기록되지 않았다는 점 때문에 무시되어서는 안 되며, 그것이 지니는 또 다른 방향에서의 의미를 찾을 수도 있다.





세계불교도의 정법수호연대 발족
한국불교의 380여 종단 최고 고승 및 지도자
대종사. 종사들의 법석

한국불교 지도자들 중에 종단을 불문하고 대종사. 종사 품수를 받은 모든 스님들이 한자리에 모두 모여 불교 최고 지도자들의 법석을 통해 서로 상호간에 상견례와 대의를 위해 한국 대종사. 종사들의 협의체를 구성하고 지구촌 중생교화, 교육, 중생구제, 인간방생을 통한 세계가 하나 됨을 실천하며, 세계불교의 위상을 높이고 정법을 수호하고자 하는 대법회를 봉행합니다. 정각회 국회의원님들과 미얀마 대사님을 모시는 뜻 깊은 법석에 큰스님께서 자리를 함께하시어 지구촌을 밝히는 빛이 되고 중생의 지팡이가 되어 주시옵길 두손 모아 합장하며 청하옵니다.

명예총재 : 금산 큰스님. 총재 : 목탁 대승정

재가자국제교류불자회 국제붓다평화봉사단

준비위원 : 혜승. 혜선. 성각. 정오. 청운. 심오. 법산. 상운. 대공. 법운. 송운. 송몽. 묵하

봉행위원장 혜정 대종사

대 회 장 인경 대종사

■ 일 시 : 2018년 4월 24일 10시 30분 정각 ■ 장 소 : 용산 백범기념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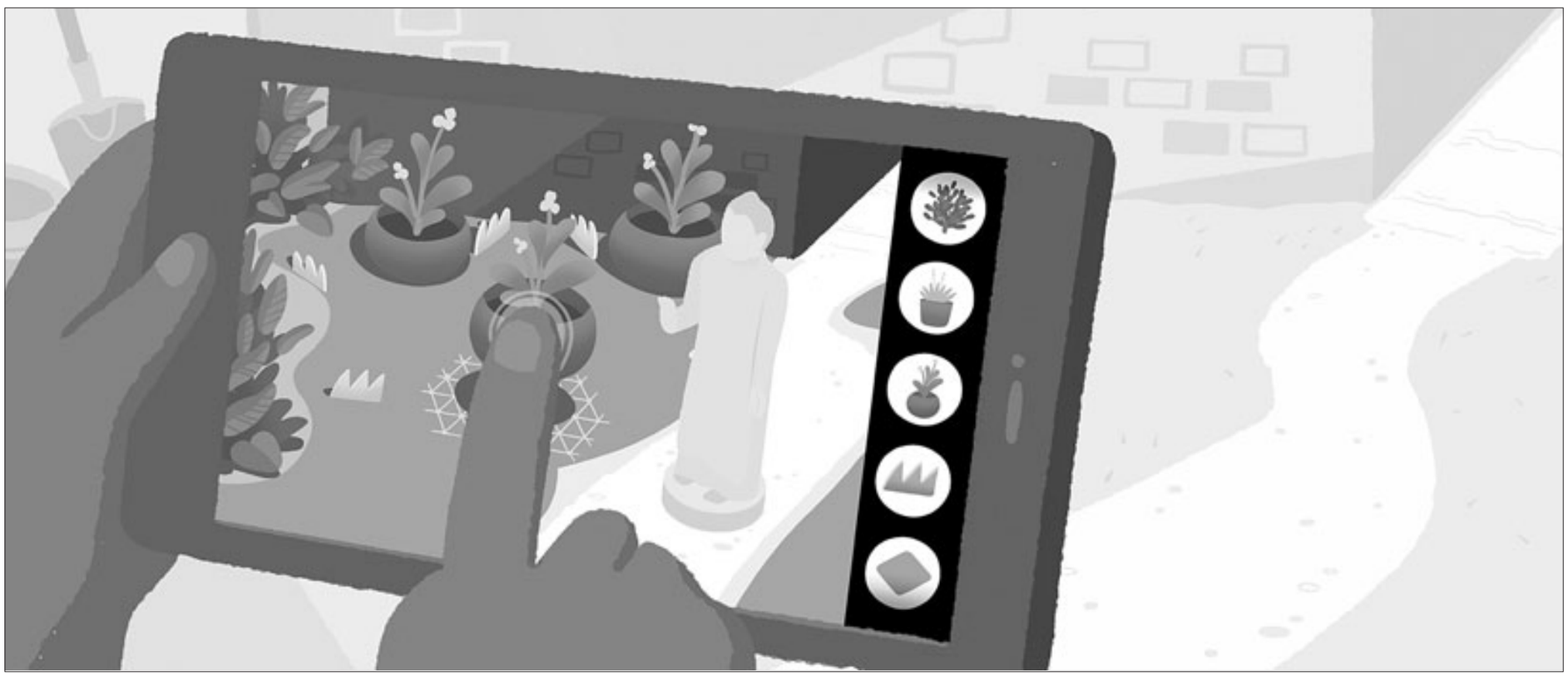
주최 : 한국불교정법수호연대. 한국불교 대종사, 종사 연합협의회 | 후원 : 법인 세계불교법왕청. 국제불교지도자협회

● 문의 : ☎ 02)733-5665. 010-3618-6061 / 팩스 02)733-5615

※ 자리 배석 관계로 미리 참석여부를 문자 및 전화로 신청바랍니다.

사찰 기반 '스페이스텔링'에 주목하라

⑤ 증강현실의 시대와 불교



가까운 미래에 홍길동은 딸과 함께 서울 근교의 사찰을 찾았다. 일주문을 지나 부도밭에 다다르자 '아빠 저게 뭐예요?' '응 스님의 유골을 모신 부도라 한단다.' '어느 스님의 부도예요?' '글쎄…'

길동은 곧바로 스마트폰에 도움을 청한다. '동자야, 저 부도는 어떤 스님의 부도냐?' 하고 묻자, 스마트폰에서 동자는 곧바로 '이 스님으로 말씀드리자면…' 하면서 자세한 설명과 스님의 진영을 보여준다. 탑비를 비추자 카메라를 통해 촬영된 한자로 된 비문이 바로 한글로 바뀌면서 스님께서 걸었던 행장과 교화의 발자취를 바로 보여준다. 아마도 멀지 않은 미래에 증강현실 기술을 통해서 우리는 수많은 체험과 정보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은 빛보다 빠른 속도로 벌어지고 있는 기술적 진보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전 산업 분야에서 새로운 기술에 의해 대대적 개편이 광범위하게 이루지고, 생산, 관리, 지배구조 등 시스템 전반에 큰 변화가 몰려오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은 인간의 오감의 확장은 물론 작업의 영역이 기계와 컴퓨팅 기술로 융합되어 다양한 기술로 혁신을 이끌고 있다.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상상과 꿈[假]이 다양한 기기를 통해 오감으로 현실로 펼쳐지고[實] 현실과 상상의 경계는 더욱 모호해져 경험과 체험의 폭이 확장되고 있다. 혹자는 4차 산업혁명은 인간의 이기심과 욕망으로 인해 인공지능과 합성생물학은 사이보그를 넘어 필연적으로 '포스트휴먼'의 도래라는 암울한 미래를 예고한다고 고개를 젓는다. 기계처럼 조작과 시술의 대상으로 전락될 인간 존엄의 아픔이 눈앞에 있다고 본다. 다른 측면에서는 장미빛 미래의 신세계를 맞아하라고 외친다.

가상현실(VR: Virtual Reality)과 증강현실(AR: Augmented Reality)은 4차 산업혁명을 통해 더욱 우리 삶에 가까이 다가왔다. 가상현실(VR)은 가상공간에서 디지털 세계에서의 경험을 극대화한다. 이를 위해 시야를 가상현실에 집중하도록 제작된 헤드 마운트 디스플레이(HMD)를 통해 현실세계에서 느낄 수 없는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어 몰입감이 높다. 증강현실은 현실세계에 가상의 콘텐츠를 겹쳐서 기기를 통해 새로운 경험을 가능케 한다. 몰입도가 높지만 현실감은 떨어지는 가상현실과 다르게 증강현실은 보다 현실감이 높은 경험과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한다. 선풍적인 인기를 누렸던 가상현실 '포켓몬 GO' 게임처럼 현실공간에서 우리의 감각과 인식을 확장함으로써 현실세계에서 경험할 수 없는 복합적인 상황을 체험하게 한다.

네트워크의 유무선 인터넷 시장을 선도해온 구글은 누구나 손쉽게 가상현실을 경험할 수 있는 '카드보드'라는 기기와 콘텐츠 어플리케이션의 인기를 누렸고 유튜브에 360°동영상 업로드가 가능하도록 지원하였으며, 2016년 5월 가상현실 소프트웨어 플랫폼 '데이드림(Daydream)'을 구축하였다. 페이스북은 2014년 HMD에 특화된 가상현실 기업 '오큘러스'를 인수하여 '가상현실 소셜 플랫폼'으로 콘텐츠와 플랫폼, 디바이스를 선도해 가고 있다. 소니는 게임 중심의 콘텐츠와 플레이스테이션으로 디바이스 시장의 석권을 통해 엔터테인먼트 분야에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2015년 윈도 10을 소개하는 자리에서 증강현실 헤드셋인 홀로렌즈(Hololens)를 공개하고 증강현실과 가상현실을 결합한 혼합현실을 선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애플은 아이폰 X을 야심차게 출시해 증강현실 플랫폼 '에이알킷(ARKit)'과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으로 스마트폰 너머의 세상을 꿈꾸고 있다.

이러한 증강현실은 불교에게 무엇을 줄 수 있으며,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

국립중앙박물관 금속공예실에서 마커인식 증강현실(Marker-based Augmented Reality) 기술을 통해 보여주듯이 스마트폰을 통해 유물을 촬영하면, 3D개체 마커로써 인식해서 가상문화유산 콘텐츠를 보여준다. 아울러 천흥사 종을 단순히 설명만 듣는 것이 아니라 종소리까지 함께 들을 수 있다. 불교문화유산에 복합적인 정보를 구축하고 이를 연계해 보여주는 방식이 있다.

'내 손 안의 궁' 어플리케이션처럼 위치기반서비스(GIS)를 증강현실 기술을 활용하여 훼손되어 사라진 문화재를 스마트폰을 통해 복원해 불러올 수 있다. 더욱이 GPS기반의 해설사 캐릭터가 등장하여 문화재를 안내한다. 물론 스토리텔링을 통해 문화재와 궁과 같은 장소에 대한 정보와 주변 관광정보까지 제공한다.

증강현실 기술을 통해 사찰의 다양한 건축물에 담긴 의미와 정보, 현판, 주련, 비석 등과 같이 어려운 한자로 기록되어 있는 소중한 문화유산 정보를 알기 쉽게 전달하고, 과거 선조들의 그 마음에 한 발자욱 더 다가 설 수 있다. 거창하게 말하면 증강현실 기술을 통해서 문화유산에 대한 향유와 접근의 기회를 증대하여 문화적 소양을 키우고 삶의 질의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소박하게는 불교문화유산의 어렵고 깊은 뜻을 조금이나마 쉽게 알 수 있게 한다.

불교문화유산 정보 안내 활용
기술적 환경 구축 선결과제
불교문화 콘텐츠 정리 나서야

증강현실 기술을 통해 이러한 일들이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첫째, 기술적 환경과 인프라가 정비되어야 한다. 관련 기술의 발전과 이러한 기술의 이용을 통해 복합적인 활용이 가능하게 하는 생태계 조성이 선행되야 한다. 이전에 ICT 산업 생태계는 콘텐츠(C)-플랫폼(P)-네트워크(N)-디바이스(D) 가치사슬의 균형적 성장이 필수적이었다. 즉 과거 SKT, KT와 같은 네트워크 기업이 모바일 생태계의 강자였지만, 현재는 플랫폼을 장악한 기업이 점차 주도권을 쥐고 있다. 운영체제(OS), 서비스 플랫폼을 주도하는 기업들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그런데 C-P-N-D 가치사슬은 선형적 관계가 아니라 복잡계 방식의 융합적 관계되고 있다. 이미 스마트 미디어의 발전을 등에 업은 오픈 소스 및 오픈 API의 제공 등으로 콘텐츠의 다변화와 디바이스의 발전으로 콘텐츠 창작과 오픈 플랫폼을 통해 직접 콘텐츠를 유통하는 시대가 되었다. 콘텐츠 소비자와 생산자의 경계는 물론 1인 기업의 등장과 콘텐츠 서비스 플랫폼의 확장과 다변화로 인한 융합 생태계가 조성되고 있다.

둘째는 매쉬업(융복합) 정보 구축이 필요하다. 즉 다양하고 서로 다른 데이터베이스를 통합적으로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매쉬업 기능을 통하여 이미 다양한 기관에서 개발된 콘텐츠를 융복합적으로 연동하게 하자는 것이다. 문화재청의 문화유산정보, e뮤지엄, 민족문화대백과사전, 향토문화전자대전 등 국내 여러 문화유산 데이터베이스를 연계해 활용이 가능토록 협력해야 한다. 아울러 이러한 정보와 콘텐츠들은 반드시 시간정보, 공간정보, 인물정보, 주제정보 등 다양한 연관관계를 토대로 활용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셋째는 공간 기반의 스페이스텔링(space+telling)에 주목해야 한다. 단순한 이야기가 있는 공간을 의미하는 것을 넘어서, 공간에 담겨진 이야기를 통해 공간이 지니고 있는 가치를 체험하고 새로운 기억을 통해 공간을 재창조하여 새로운 관계를 맺도록 이끌 수 있다. 공간을 중심으로 시간-공간-인간-사건-체험 등 복합적인 정보를 구축하고 이를 주제별로 체험할 수 있도록 구축한다. 사찰, 불탑, 폐사지와 같이 불교문화유산이 자리하고 있는 특정 공간은 공간에 담긴 사건과 이야기, 의미들이 그 공간에 잠시나마 머물면서, 과거-현재-미래를 넘나들면서 상상력의 나래 위에서 새로운 관계를 맺었다가 풀려가는 등의 확장을 통해 무한히 변주할 수 있다.

넷째, 증강현실 기술은 가상현실과 함께 만나면서 지금은 사라져 멸실되고 없는 문화유산의 복원을 통해 다양한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 황룡사지, 미륵사지와 같이 지금은 주춧돌만 남아 있는 폐사지 에서 디지털 복원을 통해 재현된 황룡사구층탑과 황룡사 금당, 강당을 체험하게 해줄 것이다. 아울러 반쪽만 남아있는 미륵사지탑을 온전히 보여줄 수 있다. 더욱이 가람배치를 자유자재로 해보면서 나만의 불사를 해볼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기존의 다양한 기록문화유산의 재가공을 통한 디지털 스토리텔링의 확장을 준비해야 한다. 기존의 불교기록은 단순한 정보 전달이 목적이었다. 특히 한글대장경과 같은 경우는 경전의 열람과 검색 서비스에 머물러 있다. 한글대장경의 다양한 경전의 윤문, 각색을 통한 주제, 사건, 공간 등의 분류와 정리를 통해 이야기 소재를 발굴해 활용하도록 한다. 전국의 각 사찰과 지역의 불교설화와 전설을 담아 스토리뱅크로 구축해 다양하게 이야기의 확대 및 재생산 하여 다양한 창작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특히 사찰 관련 설화, 전설 이야기 소재는 반드시 몇 가지 활용의 유형별로 애니메이션 콘텐츠로 연계하도록 제공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4차 산업혁명을 볼 때 반드시 인간과 사회 그리고 우리의 욕망과 사회적 합의를 통한 새로운 문명의 성찰과 가능성으로 시작해야 한다. 가상현실, 증강현실 기술이 어떻게 쓰여지고, 이를 통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철학적인 담론과 아울러 다양한 상황에 맞는 가이드라인이 정리되어야 할 것이다. 눈길에서 지혜가 손끝에서 자비가 구현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소통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재수(동국대 연구교수)

불교의식 수강생 모집

단기속성 3개월 과정 (53기)

본 대학에서는 일상적으로 상용화되고 있는 불교의식 교육을
실시하고자 다음과 같이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1. 교육안내
· 개강일시 : 2018년 4월 2일(월요일) 오후 3시 (목탁 지참)
· 교육시간 : 매주 월요일, 목요일 오후 3시~5시
· 출 강 반 : 서울 본 대학 (위치 : 서울 조계사 근처)
· 통 신 반 : 지방 거주자를 위해 통신교육을 실시함 (교재, 교육자료, 녹음CD 우송)

2. 교육내용
① 송 주 편 (도량석, 조석종성 등)
② 예 경 편 (상단예불, 조석예불, 각단예불, 향수해례, 사성례, 신중단 등)
③ 헌 공 편 (삼보통청, 중단퇴공, 관음, 지장, 신중청, 각종 불공의식 등)
④ 재의식편 (천도재, 49재, 시다림, 기제사, 명절제사 등)
⑤ 시 식 편 (관음시식, 화엄시식, 상용영반, 구병시식, 방생의식 등)

3. 신청방법 : 전화 또는 방문 접수 (우편, 팩스 접수 가능)
· 사찰 및 포교원에서 실제로 상용화되고 있는 의식방법을 집중 지도함
· 필요에 따라 일부 범음범패를 병용해서 의식 집전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함

깨달음의 법(法) · 전법하는 사(師)
한국불교법사대학.대학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45-3 (견지동, 한선빌딩 3층)
http://pubsa.buddhism.org FAX : 02)737-5305
☎ 02)733-1959
720-1836

제 99기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佛教儀式(범음·범패) 學人 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야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신행과정(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특수작법(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개 강 일 : 2018년 4월 13일 개강
◆ 강의일시 : 매주 (화, 금) 오후 5시 ~ 6시 30분 (90분 강좌)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반명함판 사진 2매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 · 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教儀式教育院
海東佛教梵音大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0496

훔치고 훼손까지… 도난 성보 수난사



최선일의
다시 찾아야 할 聖寶들

⑤ 예천 보문사의 도난 성보





도난 신고된 예천 보문사 영산회상도(사진 왼쪽 · 문화재청 제공)와 한 대학 박물관이 2016년 특별전을 통해 공개한 불화(사진 오른쪽)의 모습. 도상이 매우 유사한 것을 알 수 있다.



예천 보문사 삼장보살도. 최근 보물로 지정됐다. 도난 직후 화기를 훼손해 도난 사실을 숨기려 했다. **사진 제공= 동북아불교미술연구소**



예천 보문사 아미타회상도. 삼장보살도와 함께 환수됐다. 섬세한 표현과 채색 등이 매우 눈길을 끈다. **사진 제공= 동북아불교미술연구소**

25년만에 환수된 보문사 삼장도
도난 숨기려 畵記 인위적 훼손
영산회상도 · 신중도는 못 돌아와

도난 불화 4점 같은 시기에 조성
최고 실력 가진 불화승 그렸을 것

이 벌을 받는 장면 등이 다른 삼장도와 확인이 구분된다. 도난 이후 일부 덧칠한 흔적이 있지만, 작품성과 학술적 가치가 뛰어나 보물로 지정된 것이다.

국가지정문화재 심의 당시 문화재위원회에서는 "(이 불화는) 창의적이고 탁월한 구성력과 함께 인물상과 각종 경물의 뛰어난 묘사력과 필력을 보여주고 있다. 제작 시기와 소장처를 알 수 있는 등 예술성과 학술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평가할 정도였다.

도난 이후 삼장보살도 화기(畵記)는 중요한 부분이 인위적으로 훼손되었지만, 앞부분에 '정해(丁亥)'라는 글자가 남아있어 18세기 중엽에 해당되는 정해년(丁亥年)인 1767년(영조 43)에 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삼장보살도가 조성된 예천 보문사는 학가산 내에 위치한 조계종 제8교구 본사인 직지사(直指寺)의 말사이다. 사찰은 676년에 의상(義湘)이 창건하고, 1185년에 지눌(知訥)이 중창하였다. 보문사는 고려시대 왕실의 사고(史庫)로 활용되었지만, 고려 말 왜구들의 잦은 침략으로 1381년 7월에 사고를 충주 개천사(開天寺)로 옮겼다. 보문사는 1407년에 왕실에서 불교 종단을 교정(敎宗)과 선종(禪宗)으로 분리할 때 교종에 속했고, 1569년에 사찰 중수가 이루어졌지만, 임진왜란 중에 소실되어 전쟁이 끝나고 중창이 이루어졌다. 현재까지 확인 가능한 가장 빠른 문헌기록은 1791년에 작성된 〈예천보문사선당중수기(醴泉普門寺禪堂重修記)〉로, 18세기 말에 선당(禪堂) 중수 관련 기록이지만, 극락전에 봉안된 석조아미타삼존불좌상이 1680년경 승호 스님이나 그 계보 조각승이 만든 것으로 추정되어 17세기 후반에 사찰이 중건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근대에 보문사가 소장한 불화는 20세기 전반에 작성된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예천 보문사 재산대장에 '후불도(後佛圖) 비단(絹地) 2점, 현왕탱(現王幀) 비단(絹地) 1점, 산신탱(山神幀) 비단(絹地) 1점, 독성탱(獨聖幀) 비단(絹地) 1점, 지장탱(地藏幀) 1점, 신중탱(神衆幀) 비단(絹地) 1점'이라 적혀 있고, 다른 자료인 1932년 12월 13일 조선총독부 관보에 실린 소장품 목록에 '후불탱 2점(비단), 지장탱 1점(비단, 세로 6척3촌×가로 5척8촌), 현왕탱 1점(비단, 세로 3척8촌×가로 3척), 독성탱 1점(비단, 세로 2척5촌×가로 1척1촌), 산왕탱 1점(비단, 세로 2척9촌×가로 2척4촌), 신중탱 1점(비단, 세로 4척1촌×가로 5척)'이라 적혀 있다.

두 자료를 비교해 보면, 근대 보문사에 소장되어 있던 불화는 후불도(2점), 현왕도, 산신도, 독성도(산왕탱), 지장도, 신중도로 총 6건 7점이다. 올해에 보물로 지정된 삼장보살도는 일제강점기에 사찰에서 지장도로 인식되었고, 규격은 가로 5척8촌, 세로 6척3촌으로, 현재 화면 크기가 가로 165.3㎝, 세로 167.5㎝와 약간 차이가 있지만 동일작품이라는 추정이 가능하다.

당시 후불도가 2점인 것을 보면 최소한 전각이 2동이 있었던 것이고, 그 가운데 1점인 아미타회상도는 삼장보살도와 같이 1989년에 도난되었다가 이번에 회수되었다. 아미타회상도는 중앙에 아미타불을 중심으로 협시불과 권속들이 에워싸인 화면 구성과 색채 사용 등이 삼장보살도와 유사하다. 본존의 신광은 섬세하고 화려한 보상화문이 아름답게 표현되고, 팔대보살과 사천왕, 그리고 많은 나한상들이 꽉 찬 구성, 섬세한 표현과 채색 등이 18세기 중반을 대표하는 작품이다.

불화 화기(畵記)가 심하게 손상되고 밑 부분이 잘려나가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남아있는 화기는 "……亥……」訂明 翫□」øB珏」誦呪自□」克林」玄□」性□…金魚比丘…」供主」龍□」彩□」自□…化主 最□」彩□…別座」三綱"과 "施主秩」婆幀大施□」金萬輝」彩色大□□」金爾錫」金錫」沙彌泰□」供養施主」林得孫」林先昌」金太云」李俊興」金正三」金應義」尹奉巳」本寺」老德克□」弘□」太□」處□」快□」前御」錦□…"으로, 앞부분에 '해(亥)'자를 읽을 수 있어 삼장보살도와 같이 '정해년(丁亥年)'인 1767년에 제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도난 이후 불화는 배접을 새롭게 하면서 헤어진 바탕천 부분을 배접지에 붙인 사실이 드러났으며 부분적으로 가채되었다.

이외 보문사에서 도난 신고된 불화는 영산회상도 1점과 신중도 1점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재산대장에 후불도로 적힌 나머지 1점이 영산회상도라 생각된다. 이 불화는 도난 이전에 촬영된 사진을 보면, 상단 중앙에 항마촉지인을 한 석가불과 하단에 관음보살이 그려져 있고, 윗부분에 구름을 타고 서 있는 여래상과 중단에 본존 좌우에 아난과 가섭존자, 보살상, 그 옆으로 사천왕이 배치되었다. 하단에는 관음보살 좌우로 지장보살과 대세지보살이 그려져 있다. 관음보살은 둥근 원 안에 보타락가산에 결가부좌한 자세로, 좌우에 선재동자와 용왕이 있고, 바위 끝에 버들가지가 꽂힌 정병과 청조(靑鳥)가 그려져 있다.

이와 같은 관음보살도의 구도와 자세 등은 19세기 유행한 독립적인 관음보살도의 시원적인 형태이다. 따라서 이 영산회상도는 조선후기 조성된 불화 중에 특이한 존상의 배치와 구도를 하고 있다. 그런데 이와 동일한 불화가 서울에 위치한 모 대학교 박물관에 소장돼 2016년 특별전을 통해 공개되었다.

그리고 아직 소장처가 밝혀지지 않은 신중도는 화면이 좌우로 나뉘어져 있고, 향좌에 화려한 갑옷과 투구를 걸친 위태천이 합장을 하고, 향우에 3곡의 병풍을 배경으로 한 제석천은 붉은 등받이가 있는 의자 위에 앉아 있다. 제석천 좌우에 동자와 천녀가 둥근 부채와 불번(佛幡)을 들고 있다. 이와 같은 화면 구성과 존상 배치도 조선 후기 신중도에서 볼 수 없는 매우 희귀한 작품이다. 도난 신고 시 신중도는 1767년(건륭 13) 5월에 그려졌다는 것을 보면 당시 화기가 남아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규격은 153㎝×128㎝라고 적혀 있다. 조선총독부 관보의 귀중품대장에는 가로 5척, 세로 4척1촌으로 크기가 거의 유사하다.

따라서 예천 보문사에서 1989년에 도난된 불화의 네 점은 모두 같은 시기에 그려진 불화로, 작품성이 뛰어난 것을 보면 18세기 후반에 경상북도를 중심으로 활동한 최고의 실력을 가진 불화승이 제작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결국 28년 전에 도난당한 네 점의 불화 가운데 두 점이 예천 보문사로 돌아왔고, 나머지 1점은 소재가 파악되었으며, 마지막 1점의 위치만 파악된다면 조선 후기 18세기 후반을 대표하는 불화의 조성에 관한 접근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제 스님들과 신자들이 108산사를 찾아 만행을 하듯 사찰을 떠난 부처님을 찾아 박물관이나 미술관을 돌아다니면 전시물이 아닌 성보물의 가치를 부여해 주었으면 한다.

〈문화재청 인천공항 문화재감정관실 감정위원〉
공저=홍은미 옥천사성보박물관 학예실장

사주 명리계의 최고의 베스트셀러!!! 사주공부의 바르고 가장 빠른길!

맹파명리!

《맹파명리》 책에 수록되어 있는 빈주(賓主), 체용(體用), 형(形)과 기(氣), 주공(做功), 간지허실(干支虛實), 상법(象法), 지지의 천(穿), 파(破), 정국(正局) · 반국(反局) 등을 통하여 기존 전통명리와는 다른 맹파명리의 촌철살인의 판단방식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아마도 독자들은 《맹파명리》를 통하여 그동안 잃어버렸던 명리학에 대한 경외심과 신심을 회복할 것이다.



명불허전, 최고 절정의 맹파명리

사주 명리계에 있어서 중국 본토를 완전지배한 맹파명리! 한국 상륙!
법조계, 정치계, 경제계, 언론계 지식인의 최고찬사 맹파명리.
새로운 개념, 새로운 논리로 길흉을 정확히 해석해 내는 맹파명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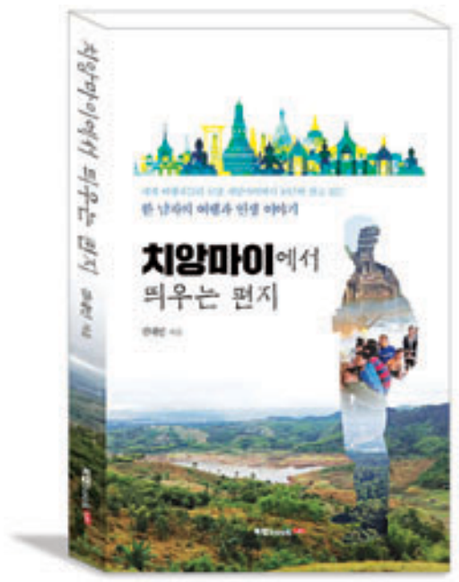
맹파명리를 통하여 명리(사주)에 대한 "경외심"을 회복했다는 한결같은 찬사!

- 매주 일요일 오후 2시 ~ 5시
- 매주 목요일 오후 5시 ~ 8시 (저자 직강)
- 맹파입문반, 혼인반, 재관반, 직업반, 간지상법반, 음양풍수반 순환주기로 강의
- 강의장소 : 1호선 종로3가 2번 출구 바로 앞 유니클로 옷가게 좌측 영흥빌딩 502호
- 강의문의 : ☎ 02)765-1468, 010-7143-0543

▶ 전국 유명서점 판매중 ◀

Daum 카페 : "맹파명리" 검색

✪ 직접 택배로 받아 보실분은 주소, 성명, 연락처를 알려주시고 송금 바람.
✪ 구입문의 : ☎ 02)765-1468. 010-7143-0543
✪ 입금계자 : 국민은행 638702-01-372376 (예금주 : 박형규)



치앙마이에서 띄우는 편지

여행은 내가 아들에게 준 가장 큰 인생의 선물이다.

세계 여행자들의 로망 치앙마이에서
노년을 보내고 있는 한 남자가
손자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진짜 여행 이야기

여행은 소중한 사람과의 추억을 만들어주고, 추억의 소중함을 기억하게 한다. 해외여행이 흔하지 않던 시절, 저자가 아들이 더 넓은 세상에서 더 큰 꿈을 꾸기를 바라며 함께 세계로 나가 여행했던 추억을 책으로 엮었다. 배낭에 반찬 통 몇 개를 넣고 '맨 땅에 헤딩'하듯 무작정 떠난 세계여행. 낯선 땅낯선 사람들과 만나 울고 웃고 또 삶의 방향을 찾아가는 계기가 되어준 여행지에서의 체험을 이제는 일흔의 할아버지가 된 저자가 수십 자루의 볼펜을 바꾸어 가며, 아무런 기록 없이 기억에 의존해 생생하게 복원했다. 인생의 황혼기를 아름다운 치앙마이에서 보내며 아름답고 맑은 영혼을 가진 이들에게 많은 배움을 얻고 삶의 활력을 얻은 여행에 관해 쓴 에세이로, 독자들은 이 책을 통해 현지의 리얼한 일상과 다양한 문화를 간접적으로나마 체험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저자 : 김대인

저자 김대인은 1950년생으로 1989년 일본 자유 여행으로 첫 해외 여행을 다녀 왔으며, 1992년 초등학교 1학년 아들과 함께 배낭을 메고 세계 곳곳을 여행하기 시작하여 그 후로 자동차를 타고 육로로 동남아 여러 나라와 오지마을을 찾아다니는 자유 여행가이다. 2000년부터 태국 치앙마이에서 노후생활을 준비하여 현재 치앙마이에 거주 중이다. 많은 사람들에게 치앙마이의 매력과 오지 여행의 진가를 알려주고 싶은 두 손자의 할아버지이다.

저자 김대인 | 북랩 | 230쪽 | 값 14,500원

사찰 불교대학, 교(敎) 선(禪) 겸해야 산다



조기룡의
사찰경영, 산문에 들다

⑤ 불교대학 경영 현대화



한동안 불교계의 뜨거운 이슈였던 불교대학의 성장세가 주춤하다. 불교종립대학에서 운영하는 정규학위과정의 불교대학도 있지만, 일반 시민과 불자들이 불교를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곳은 불교교양대학으로도 불렸던 사찰의 불교대학이다. 이 불교대학의 시초를 확정하기는 어렵지만 '대원불교대학'이 사찰에서 운영하는 불교대학의 성장에 초석이 되었음은 분명하다. 대원불교대학은 장경호(1899~1975) 거사가 불자와 시민들에게 불교를 교육하고자 한 원력의 산물이다. 자그마한 철물공장으로 시작해서 동국제강이라는 굴지의 기업을 창업한 장경호 거사는 1970년 12월 재단법인 대원정사의 설립을 인가받고, 1972년 2월 남산에 현대식 사찰인 불교회관 대원정사를 개원하였으며, 동년 9월에는 신행단체인 대원회를 발족했다. 그리고 대원불교대학을 1973년 3월에 2년제로 개설하여 일반 불자와 불교에 관심 있는 시민들에게 불교를 체계적으로 교육하기 시작하였다.

대원불교대학이 개설되기 전까지 종단과 사찰 차원의 신도 교육은 전무한 실정에 가까웠다. 기복을 벗어나지 못했던 당시의 한국불교에서 불교는 교육이 필요하지 않은 종교였으며 부처님께 자기의 복을 그냥 빌면 되는 종교였다. 그렇기 때문에 종단이나 사찰은 굳이 신도들에게 불교를 교육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였다. 그러나 지금도 상당부분 그러하지만 한자로 된 법요 의식문의 뜻은 쉽게 가슴에 와 닿지 않았고, 스님들의 법문도 일반 신도는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어서 지루하였다. 초발심자가 이렇게 불교를 접해서는 불법(佛法)의 참뜻을 제대로 이해하기가 어려웠다. 대원불교대학은 이에 대한 극복의 시도였으며, 수강료 면제는 물론 장학금까지 주면서 불자들이 불법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하였다.

이후 교육열이 높은 젊은 층이 밀집한 도심의 신흥사찰들을 중심으로 불교대학을 포교의 중요 방편으로 인식하고 활용하였다. 1980년대 능인선원과 구룡사가 불교대학을 개원하였으며, 1990년대에는 영남불교대학 大관음사(현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2000년대에는 부천 석왕사 등이 불교대학을 성장 동력으로 삼은 대표적 사찰들이다. 특히 능인선원은 '신도사관학교'라 불릴 정도로 불교대학의 모범으로 제시되고는 하였는데, 한때 한국불교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괄목상대할 성장세를 보이기도 하였다. 이들 사찰 이외 수많은 도심사찰과 전통사찰들이 불교대학의 운영에 나섰다. 불교대학이 사람들을 모아주면서 사찰의 성장 동력으로 인식하게 된 것이다.

불교대학은 사찰 성장 동력

그렇다면 불교대학은 어떻게 사찰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었던 것인가. 다시 말해 불교대학의 무엇이 사람들로 하여금 사찰 성장에 기여하게 해주는 것인가? 사찰의 성장은 신도 만남의 '정기화'와 신도의 '조직화'가 전제될 수 있을 때 가능해진다. 신도들이 정기적으로 만나서 그들의 조직을 갖추어 사찰의 일에 동참하여야 사찰이 성장할 수 있는 것이다. 어떤 단체이든 성장을 위해서는 구성원들이 만나서 일을 논의해야 하고, 그 일의 성사를 위해서 조직을 갖추어야 한다. 사찰에 있어서도 스님과 신도들이 서로 만나서 일을 논의하고 조직을 갖추어 일을 해야만 사찰의 일들이 성사되면서 성장할 수 있는 것이다.

불교대학은 신도 만남의 정기화와 신도의 조직화에 있어서 상당한 순기능을 갖는다. 불교대학은 매주 지정 요일에 수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신도들이 정기적으로 모임을 가질 수 있다. 매주 교회에 출석하는 기독교와는 달리 신도들이 1년에 한번 '부처님 오신 날'이나 되어야 사찰에 한번 나오는 한국불교의 관행으로 볼 때 신도들이 매주 사찰에 나온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도 대단한 신행 변화라고 평가할 수 있다. 불교대학이 신도 만남의 '정기화'를 이루어주고 있는 것이다.

또한 불교대학은 입학연도에 따른 기수들이 있는데, 사찰에서는 이 기수에 따른 동창회 형식의 기수별 조직이 자연스럽게 형성되어 있다. 사찰에는 여러 신행모임들이 있으나 그 결속력이 크지는 못하다. 그러나 불교대학은 사회의 동창회와 마찬가지로 기수별 결속력을 형성해준다. 불교대학이 신도들이 사찰 성장을 위하여 유기적으로 통합된 활동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불교대학이 신도의 '조직화'에 기여하고 있는 것이다.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한국교회의 성장을 거론할 때는 한국개신교 신도의 결집력이 꼭 회자된다. 이와 같이 불교대학이 신도 결집력의 매개체가 돼 주는 것이다. 불교대학이 모래알처럼 뭉치지 못했던 신도들을 정기적으로 만나게 해주고 나아가 유기적 조직을 갖추도록 해주는 것이다.

그러나 2000년대 후반으로 접어들면서 대다수 불교대학은 신규 수강생의 감소에 직면하게 된다. 불교대학을 성장 동력으로 여겼던 사찰들의 상당수가 답보 혹은 퇴보에 봉착하게 된 것이다. 불교대학을 성장 동력으로 삼았던 사찰들 중에서도 더 이상 불교대학을 운영하지 않는 곳들도 존재한다.

왜 오늘날 불교대학은 이렇게 성장 동력을 상실했는가? 우선적으로는 입학생을 모집하는 기존 방식의 한계를 제시할 수 있다. 사찰 소속의 신도들을 불교대학의 입학 대상으로 삼는 현실에서 신도의 대부분이 졸업하고 나면 당연히 더 이상 입학생을 모집하기 힘든 상황이 초래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사찰 성장은 신도 조직화와 맞물려
기복불교 기피가 교학 중심 흘러
인본주의 근간해 교육변화 이뤄야

교학 편향적 커리큘럼 문제

그러나 필자는 입학생 모집 방식의 한계성이 불교대학을 정체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에 공감하면서도 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불교대학의 교육내용에 있다고 생각한다. 교육은 그 내용이 핵심이므로 불교대학의 문제와 방안을 교육내용에서 찾고자 하는 것이다.

먼저 제시하고자 하는 교육내용의 문제는 불교교육이 교학 편향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불교대학들은 '불교란 무엇인가'에 대한 이해도 없는 불자들을 대상으로 교학에 경도(傾倒)된 교육을 하고 있다. 불교대학 학생의 상당수는 자신과 가정의 복을 부처님께 빌러왔다가 불교를 체계적으로 공부하고자 마음먹은 초발심자들이다. 불교를 기복으로만 여기는 사람들에게 화엄학, 유식학, 중관학 등 불교학 전공자들도 난해할 수 있는 불교교학을 중심으로 불교가 교육되고 있는 것이다. 물론 불교교학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다. 그러나 그에 앞서 불교란 어떤 종교인지를 알게 해주어야 하며, 불교의 교조인 부처님의 생애와 그 생애가 갖는 인류애적 가치를 느낄 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 불교대학의 교육은 부처님이 왜 출가를 하였는지, 수행의 과정은 어떠했는지, 수행을 통해 깨달은 것이 무엇인지, 왜 45년간이나 전법교화를 하였는지를 불자들이 느끼도록 만드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불교가 신본주의(神本主義)가 아닌 인본주의(人本主義)의 종교임을 터득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즉 불교란 어떤 종교인지를 부처님의 생애를 기반으로 교육해야 하는 것이다. 불교의 교학은 이와 같은 기본 교육 이후 진행하되 수행과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한다. 즉 교(敎)와 선(禪)이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제시하고자 하는 문제는 불교공부를 마음공부가 아닌 상식공부처럼 여긴다는 것이다. 이는 교학 편향의 불교교육과 연계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불자들이 불교공부를 하면서 교학을 주로 접하다보니 불교의 종교성을 간과하고 상식처럼 공부하는 것이다.

필자는 여러 사찰의 불교대학에서 강의를 하면서 불자들이 불교를 상식으로 공부하면서 스스로 만족해하고 있음을 상당히 느껴왔다. 부처님이 몇 세에 출가했는지, 부모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음에, 그리고 사성제가 무엇 무엇인지, 팔정도의 여덟 가지 무엇인지를 외우고 있음에 스스로 만족해하는 불자들을 적지 않게 보아온 것이다. 물론 불자로서 불교에 대한 상식이 많은 것이 어찌 칭찬받을 일이 아니겠는가. 하지만 그것을 불교의 본질로 이해하고, 그것을 불교공부의 전부라고 오인해서는 안 된다. 요즘 유행하는 말로 '뭣이 중헌디?'를 알아야 하는 것이다. 아무리 많은 불교 상식을 기억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불교의 본질, 즉 깨달음에 접근할 수는 없다.

이제 교학 편향적, 불교 상식적 불교교육을 탈피하고 불교대학이 나아갈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의 해결을 위해선 불교대학의 교육에서 수행이 교학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강화되어야 한다. 그리고 기존 교학의 교육에 수행을 보다 강화한다는 것은 그만큼 교육과정이 장기적으로 편성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불교는 체험이 중요하다

불교는 종교다. 불교는 상식이 아니다. 그리고 종교는 체험이 중요하다. 불교의 체험은 수행이다. 부처님의 가피로 인한 체험이 비록 기복적이기는 하여도 훨씬 종교적일 수 있다. 하지만 그런 체험은 드물다. 그렇기 때문에 불자라면 수행을 통하여 불교를 체험한다. 그런데 불자의 수행은 1~2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생에 걸친 불교공부이다. 향후 불교대학의 교육과정이 1~2년의 단기과정이 아니라 일생에 걸친 장기과정으로 개편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불교의 정수(精髓)인 수행이 빠진 교육과정으로는 불교대학이 제 역할을 할 수 없다. 정수가 없기에 교육기간이 짧은 것이며, 성장의 동력으로도 지속되지 못했던 것이다. 불교대학이 다시금 사찰성장을 이끄는 동력이 되기 위해선 불교를 여법하게 교육할 수 있어야 한다. 불교대학에서는 불자들이 불교란 무엇인가, 부처님의 생애는 어떠했는가라는 기초부터 경전 공부와 수행 실참(實參)에 이르기까지 어느 것 하나 간과되지 않고 체계적으로 불교를 공부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공부기간은 1~2년이 아닌 일생에 걸친 것이어야 한다. 이제는 불교대학이 불자의 평생교육기관으로 발돋움하여야 하는 것이다. 불자의 일생 동안 마음공부와 인생공부를 전담하는 불교교육의 터전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동국대 불교학술원 교수 chokiryong@dongguk.edu〉

제12기 송강(松江)범음범패 전승회

범음범패에 관심있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모집인원 : 00명
■ 개강일시 : 수시모집
■ 수강자격 : 스님 및 불자
■ 교육내용 : ❶ 사물다루는 법 ❷ 49재 의식, 천도재 위주 ❸ 천수바라, 나비춤 ❹ 극락무, 살풀이
■ 준 비 물 : 요령, 목탁, 태징, 바라, 북
■ 시 간 : 오전 9시 ~ 오후 3시(1년과정)
■ 비 용 : 입회비 이십만원, 수강료 무료

지도강사
• 범음범패 : 진효, 성우 스님
• 태 평 소 : 시우 스님
• 성명학 명리학 : 삼규, 해각 스님
• 살풀이 극락무 : 이채향 (여향)
• 주 소 : 경기도 안성시 일죽면 고목길 51-142 봉운사
• 연 락 처 : 회장(대현) H·P 010-8725-3196
총무(도천) H·P 010-6266-8882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송강(松江)범음범패 전승회 회장 대현

법당의 구형앰프 설비를 "80만원 보상해" 최고급
『800W 파워드믹싱 앰프(USB내장)』 셋트로
단 160만원에 교환 설치 / (월 8곳만 예약순 설치 가능)

(기본제공 : 800W 앰프 + 450W 스피커 + 900메가 무선마이크 1대, 사용중인 앰프설비는 회수합니다!)


• 대출력파워드 믹싱앰프
출력 : 800W USB내장
가격 : 1,200,000원


• 대출력스피커 1조
최대입력 : 450W
가격 : 700,000원

염불용 초고성능 마이크 출시

• 60Cm 이상 거리에서도 장엄하고 맑은 소리 보장!
• 오래된 앰프와도 잘 맞아 뛰어난 소리가 나옵니다
• 가격 : 175,000원(홀더 포함)
2개 구입시 : 305,000원

마이크용 목걸이 증정

주지스님 전용
• 탁상마이크

자체 소리 조절
가격 : 185,000원

신상품 삼신각(명부전,전용) 앰프 세트

전체 1세트(SET) 580,000원
(엠프〈USB용〉+스피커+마이크스탠드 포함)

• 무선마이크용 고성능 헤드셋


• 무선마이크
가격 : 300,000원


유코음향연구소
소장 김문화 010-5335-2695
서울시 양천구 신월3동 48-9 (300호)

소장 김문화
무선설비기사, 음향연구가
제1급 아마추어무선기사

주문 계좌 : 우리은행 김문화
1002-610-963886

선업 실천 만이 '苦' 벗어나는 길



원웅 스님의 경전산책

⑩ 〈반야심경1〉 – 행복으로 가는 길

한국인에게 있어서 가장 기억되는 불경은 〈반야심경〉일 것이다.

모든 법회에서 사용됨은 물론이고 일반인들도 일상에서 통용되는 단어들 가운데 '색즉시공 공즉시색(色卽是空空卽是色)' 쯤은 이해하려고 애쓰고 있다. 〈반야심경〉이 팔만대장경 속에서 이토록 우리들의 사랑받으며 기억되고 있는 것은 무엇때문일까. 사람은 누구나 행복을 위해 꿈을 갖는다. 불자들은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점차 부처님이 되어가는 자신의 모습을 통해 깨달음이라는 행복을 찾는다. 깨닫고 난 뒤에 행복하지 않다면 그것은 진정한 깨침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길을 찾아야 한다. 부처님은 행복한 삶을 찾는 이들이 길을 잃지 않고 바로 가는 지혜의 가르침을 반야부 경전 600부를 통해 세세하게 일러주셨다. 600부, 엄청난 양이다. 그래서 축약을 시작하고 줄이면서 가장 핵심부분을 270자 안에 녹여놓으니 바로 〈마하반야바라밀다심경〉이다. 줄여서 〈반야심경〉이라 부른다. '마하摩訶' 말할 수없이 커다란, '반야(般若)' 는 부처님의 지혜, '바라밀다(波羅蜜多)' 는 향해가는 길, '심경(心經)' 은 심장과 같은 중요한 경이다. '커다란 부처님의 지혜를 향해가는 중요한 가르침' , 혹은 '무궁무진한 부처님의 지혜를 실천하여 행복해지는 방법' 이란 뜻이다. 반야와 이언이 공역한 것으로 〈한글대장경〉 206권, p579~580의 〈반야바라밀다심경〉은 기승전결이 뚜렷해서 그 의미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반야심경〉의 본문 구성은 본래 4개로 구성되어져 있다. 이 경에서 가장 중요하고 기억해야 할 부분은 바로 첫 구절에 있다.

'관자재보살이 깊고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할 때에 오온이 공함을 비춰봐 일체 고액에서 건너다.' - 관자재보살 행심반야바라밀다시 조견오온개공 도일체고액(觀自在菩薩 行深般若波羅蜜多時照見五蘊皆空 度一切苦厄)

관자재, 즉 관세음보살은 사바세계에서 사람들의 고통을 사라지게 해주는 역할을 하시는 분이다. 천수경에서도 준제찬, 준제진언을 통해서 중생의 모든 불행을 행복으로 전환하기 위한 작업으로 보리심을 발하고 마음의 평안과 삶의 지혜가 밝아져 공덕을 많이 쌓아 수승한 복으로 중생들 모두 불도를 이뤄지도록 이끌어 주는 분이다.

예전에 일본 쿄토의 33당간이란 곳에 갔더니 42수 관음보살 양 옆으로 천 분의 관세음이 서계신 것을 보고 감동했었다. 42수 관음의 변화수인 40개의 손은 한 손이 25명의 관세음역할을 하니 다 합쳐 천수천안관세음이 되는데 우리나라는 손바닥에 눈 하나를 그려서 42수관음의 후광으로 그림을 그려 이해를 시키는데 33당간에서는 관음보살 천 분을 모두 조각해서 세워 놓았으니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관음의 가피가 내게 오는 것 같았다.

그러니까 관자재는 세상 모든 중생들 앞에 모습을 자유자재로 드러내어 가피하는 능력을 지니신 분이다. 이런 분이 반야바라밀다를 행하면서 오온, 즉 몸과 마음이 사실상 공(空), 변화함을 알아차리고,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애착을 여의니 고통에서 벗어난 것이다. 흔히 오온(五蘊)을 다섯 가지 쌓임으로 해석하는데 편하게 색(色)은 육체로, 수상행식(受想行識)은 정신으로 보면 좋다. 육체와 정신은 한마디로 나(我)다. 나라고 생각하는 순간, 자존심, 명예, 사랑 등의 생각들이 마구 일어난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그냥 인연 따라 만난 것이니 인연따라 사라져간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인생은 무상(無常)하기 때문이다. 무상함은 변하는 것이니 어느 한 모습에 집착하지 말라는 것이다. 어린 시절 모습이 지금 내가 아닌 것처럼, 변화에 대응할 줄 아는 마음은 지난 시간에 연연해 하지 않는 것이다.

만약 집착한다면 인생은 고통의 연속이지만 집착하지 않는 순간 바로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다. 노자는 가장 큰 근심이 몸에 있으니 내게 몸과 마음이 없다면 무슨 근심이 있겠는가 했다고 한다. 또 부처님은 모든 세간에 충만한 괴로움의 원인은 바로 업(業,행위)일 뿐이니 선업의 실천만이 괴로움을 벗어난다고 했다. (계속)

〈서울 반야사 주지〉

중생 제도 마음씀에 달려 있다



김원수의 〈금강경〉 강의

⑩ 선지식이 해설하는 금강경 제 3분

諸菩薩摩訶薩 應如是降伏其心 所有一切衆生之類 若-卵生 若-胎生 若-濕生 若-化生 若-有色 若-無色 若-有想 若-無想 若-非有想非無想을 我皆令入無餘涅槃槃 而滅度之(금강경 제 3분의 내용을 직역하면 다음과 같다. 보살마하살이 응당 이렇게 그 마음을 항복시켜야 되나니 이른바 세상에 있는 온갖 중생인 난생, 태생, 습생, 화생, 유색, 무색, 유상, 무상, 비유상비무상을 내가 모두 제도하여 무여열반에 들도록 하리라 하라.)

如是滅度無量無數無邊衆生 實無衆生이 得滅度者(이와 같이 한량없고 가이없이 많은 중생을 다 제도하였다 하더라도 실로 제도 받은 중생이 없느니라.)

이러한 경전의 말씀을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밝아지는 방법 즉 금강경 실천법은 대단히 이해하기 어려운 방법이다. 여기에 실천하기는 더욱 더 불가능한 방법이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왜냐하면 우선 제도하여야 할 중생의 수요가 굉장히 많다. 지구 상 인류만 하여도 60억명이다. 여기에 사람 말고도 닭이니 새 등 난생, 그리고 물고기 등 습생의 숫자까지 합치면 그 수효는 천문학적이 될 것이다. 또 약화생, 약유색, 약무색, 약유상에 귀신 등 다 포함하면 그 수가 얼마나 많을까? 그런데 그런 많은 수의 중생을 다 제도해서 무여열반에 들도록 하라는 것이다. 무여열반이라는 것은 부처님 경지이다.

말 잘듣는 자식을 교화시켜 부처님처럼 변화시키는 것도 매우 어려운 일인데, 한량없고 끝도 없는 중생을 제도하여 부처님으로 만드는 것은 완전히 불가능한 일이 될 것이기 때문인 것이다.

지혜가 밝은이 또는 깨친이 라면 이때 "그대가 부처님의 말씀을 자신의 생각대로 해석해 놓고 난해하다 어렵다고 하는데 어렵다 난해하다는 생각은 참이 아니고 착각인줄 알아라. 부처님께서 어찌 알아듣지 못할 말씀을 하셨겠는가? 내 지혜없음을 탓하면서 어렵다는 생각이 착각일 줄 알고 부지런히 부처님께 바친다면 올바른 지혜가 임하여서 명쾌한 해석 실천가능한 해석이 될 수 있는 것이다"라 말씀하실 것이다. 왜냐하면 깨친이는 일체유심조의 진리를 깨쳐 사람이나 사물의 겉만 보지 않고 이면의 모양을 보며, 또 이면을 보는 자신의 견해 역시 공함을 알고 사람과 사물의 실상을 정확히 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깨친이는 아마도 금강경 제 3분을 다음과 같이 말할 것이다.

'배은망덕한 마음은 알로 까는 보를 받는다고, 태생은 남한테 의지하는 마음이다. 태로써 우리 부모하고 의지하고 있다가 탯줄을 끊고 출생을 하는데, 의지하는 마음이 태생의 보를 받는다. 그러면 이 난생을 닭이니 새니 이렇게 해석하지 말고 우리 마음속에 배은망덕한 마음으로 한번 해석하고, 태생을 젖먹이 짐승이다 해석하지 말고 남한테 의지하는 마음으로 해석을 해보자.'

'我皆令入無餘涅槃 而滅度之' 는 '이런 모든 마음을 부처님 만들겠다고 하라' 가 되는데, 다시 말하면 마음속에 배반하는 마음, 또는 남을 의지하는 마음이 떠오르거든 그 마음을 '부처님' 하는 마음으로 바꾸라고 해석할 것이다.

이와 같은 해석처럼 마음 속에서 올라오는 모든 분별심을 '부처님' 하는 마음으로 바꾼다면 그 마음속에서 분별심은 사라지고, 분별심이 있었던 자리에 부처님이 대신 들어서 분별심을 사라지도록 하는 것이, 곧 밝은이가 실천 가능하도록 금강경을 해석한 결과라 할 것이다.

"그대들 마음속에 올라오는 생각들 중 가령 배반하는 마음, 배은망덕 하는 마음이 올라온다면 그 생각을 부처님께 바쳐라. 가지가지의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그 모든 생각을 다 부처님께 바쳐라."

〈사회복지법인 바른법연구원 이사장〉



청운 스님의 생활속 '이뭣고' 수행

소소영영(昭昭靈靈)한 주인공 '이 뭣고'

마음(心)이란 곧 성품이며, 깨달음이며, 부처이다. 마음이란 형상과 방향과 장소가 없으므로 마침내 얻을 수 없는 것이며, 청정한 그대로 법계(法界)에 두루하여 가는 것도 오는것도 아니며, 본래 완성된 청정한 법신부처이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이라고 알고 쓰고 있는 식심(識心)은 밖으로는 육진경계에 끌려가서 타향살이를 하고, 안으로는 끌어 당겨서 객진번뇌와 동거하며 생로병사의 중생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다. 누구냐? 물음의 답은 마음이니, 말은 마음을 따라서 일어 나므로 마음은 이 말의 머리고, 생각은 마음으로부터 일어나므로 마음은 생각의 머리다. 만법(萬法)이 다 마음으로부터 생기므로 마음은 만법의 머리이고, 실로 화두(話頭) '이 뭣고' 는 이 염두(念頭)이며, 생각 전에는 이 마음이다. 한마디로 한 생각도 생기기 이전에 화두(話頭)는 이루어 지는 것이다. 이는 모든 부처님과 중생이 다 꼭 같이 갖춰져 있으니, 만약 망상(妄想)과 집착(執着)만 여의면 그대로 부처이다.

'약인정좌일수유(若人靜坐一須臾) 승조항사칠보탑(勝造恒沙七寶塔) 보탑필경화위진(寶塔畢竟化爲塵) 일념정심성정각(一念淨心成正覺)' 이라는 말이 있다. 불교 수행의 근본목적은 내면의 마음을 밝히는 데 있기 때문에 밖으로 아무리 많은 탑을 쌓고 절을 짓는다 해도, 그것은 유형의 존재들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필경 먼지 티끌로 돌아가지만, 참선(이뭣고)을 통해 본래 청정한 내 마음 자리와 하나가 되면 그것이 성불인 것이다.

그러나 중생은 어리석은 그 고통으로써 진리를 뒤로 한 채 한 생각 무명 때문에 애착고가 되어 본래 없는 죄업이 항상 있어서 윤회를 하고 있고, 중생은 음과 양으로 나뉘어져 흑백(黑白), 선악(善惡), 귀천(貴賤)이 있는데, 이 몸뚱이 끌고 다니는 이 신령스럽고 뚜렷한 소소영영의 주인공인 시심마의 시(是)는 오직 홀로 짝이 없어 청청한 본래 그대로 이다.

"말은 마음을 따라서 일어 나므로 마음은 이 말의 머리고, 생각은 마음으로부터 일어나므로 마음은 생각의 머리이다"

'천지불능장구재(天地不能長久在) 항차소생천지간(況且所生天地間) 당당불수음양자(堂堂不受陰陽者) 역겁다생자재신(歷劫多生自在身)' 라는 말도 음미해보자. 법신은 음양으로 나뉘지 않고 또한 인연을 따르지도 아니한다. 그러나 색신은 음양으로 된 것으로 생노병사의 고(苦)가 있고 무상한 것이고 천명을 따라야 하지만 참성품은 우주법계에 두루해 오고 감에 걸림이 없는 자유자재한 그대로 인 것이다.

심불급중생(心佛及衆生) 시삼무차별(是三無差別)이라 했다. 부처님이나 범부나 축생이나 미물에 이르기까지 차등 없이 이 천연물(天然物)을 사람마다 다 갖고 있지만 다만 인연에 따라 오고 가되, 오고 간 바가 없는 것이다. 바로 그것을 찾는 최고 방법이 간화선 '이 뭣고' 이다. 이 법(法)을 알아서 항상 그놈을 찾으면 언제나 함께 하는 '이 뭣고' 이지만, 천자(天子)가 되고 왕이 되고 장군이 되어도 잠시 그 역할만 하다가 깜깜한 생사고해 속으로 흘러 들어갈 뿐이다.

〈법화경〉 사구게를 보면 제법종본래상자적멸상(諸法從本來常自寂滅相) 불자행도이래세득작불(佛子行道已來世得作佛)이란 말이 있다.

"모든 법은 본래부터 그대로 적멸의 모습이니 불자들이 이 이치를 깨달으면 그 순간 부처님"이라고 했다. 우리가 보는 세계가 눈으로 봐서 그렇지, 마음의 눈으로 보면 그대로가 부처이며, 모두가 진리라는 말씀이고, 본래 깨쳐 있는 부처임을 믿으면 중생이 부처라는 말씀이다. 다만 한 생각 무명(無明) 때문에 오온(五蘊)으로 잠시 이루어진 가아(假我)가 아상(我相)이 되어 꿈꾸지만, 그 망상 집착으로 이루어진 꿈을 깨면 그대로 부처인데, 그 꿈을 깨는 것이 수행이며, 그 참 수행이 바로 '이 뭣고' 이다.

〈남양주 선재사 주지〉

제12기 영남전통범음·범패 교육과정 수강생 모집



영남전통 범음 · 범패 교육원에서 2018년도 초급 · 중급 · 고급 과정생을 모집합니다. 영남불교의 전통의식 범음범패, 작법(바라춤, 나비춤) 등에 관심있는 스님 및 불자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교육기간 및 과정
가. 초급과정(2개월) ■ 송주 : 도량석, 종송 ■ 예경 : 칠정례, 오분향례, 각단 예불
■ 권공 : 삼보통청, 상단 중단 권공, 각단불공, 요령, 목탁
나. 중급과정(4개월) ■ 시련, 삼신이운(괘불이운), 대령, 관욕, 옹호게 (신중작법 39위, 104위), 당일천도, 49재, 지장청, 시왕도청, 전시식, 관음의식, 상용영반, 화엄시식, 구병시식, 봉송편
다. 고급과정(6개월) ■ 바라춤 : 천수바라, 사다라니바라, 화의제바라 ■ 나비춤 : 오공양, 유원승, 요잡작법
■ 사 물 : 태징, 북, 광쇠, 호적(태평소), 전통의식타법 ■ 특 강 : 종사이운, 종사영반, 점안의식, 시다림(다비), 예수재의식 등
라. 강 주 : 석법운 스님

2. 개 강 ■ 2018년 3월 22일 목요일 오전 11시
■ 수업시간 : 초급과정 : 매주 목요일 오전 11시 ~ 오후 1시 / 중급 · 고급과정 : 매주 목요일 오후 1시 ~ 오후 5시
3. 입학자격 : 종단과 승 · 속 관계없이 누구나 가능
4. 수 강 료 : 교육비 10만원(교재비별도)
5. 제출서류 : 입학원서 1부(본 총무원에서 교부)
6. 접수처 : 경북 칠곡군 약목면 복성 9길 28(복성리 1095)
대한불교응공조계종 총본산 총무원 동명사 영남전통 범음 · 범패 교육원
7. 접수기간 : 상시모집
8. 문 의 처 : 010-3544-2605 / TEL 054) 974-2605 / FAX 054)974-2705

뜻을 같이할 종도스님을 모집합니다

영남전통 범음 · 범패 교육원

"새는 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슬라브, 창고, 사찰(대웅전,요사채,산신각,전문시공), 공장, 일반 가정집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서울.경기 02-456-8831
강 원 도 019-396-1110
충 청 도 010-6545-3350
경 상 도 010-4187-0062
전 라 도 011-248-6298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현대칼라산업지붕공사

불자의 긍지 · 신행의 기쁨
현대불교신문사
전국 지사 안내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에 앞장서 온 현대불교신문

구독신청 · 광고게재 · 기사제보 연락주십시오! 달려가겠습니다.

지 사 명	연 락 처
대 구 지 사 손 문 철	053)768-8008 010-2813-8008
부 산 지 사 이 도 경	051)405-9402 / 010-5640-8883
광주전남지사 양 행 선	062)512-5003 010-2629-1508
전 북 지 사 조 동 제	063)910-8977 010-8642-7733
경남 남부지사 청운스님	055)746-9778 011-870-0021
영 주 지 국 박 영 애	054)634-3429 010-9373-3778

일 주 문



화엄사 작은 음악회

덕문 구례 화엄사 주지 스님은 4월 7일 화엄사 각황전 앞에서 '화엄사 봄의 향기'라는 주제로 작은 음악회를 개최한다.



백양사 고불매 축제

토진 장성 백양사 주지 스님은 3월 31일부터 4월 1일까지 경내 일원서 '고불총림 백양사 고불매 축제'를 개최한다.



나라사랑 글쓰기 대회

월우 해남 대흥사 주지 스님은 4월 6일 오전 10시 대흥사 경내서 '제24회 나라사랑 글쓰기 · 사생대회'를 개최한다.

조계종 호법부장 서리에 진우 스님

신임 포교국장엔 보연 스님 임명



조계종 호법부장 서리에 前사서실장 진우 스님〈사진〉이 임명됐다. 조계종 총무원장 설정 스님은 3월 14일 호법부장 서리에 진우 스님을 임명하고, 임명장을 전달했다.

진우 스님이 호법부장 서리로 임명됨에 따라 사서실장은 공석이 됐다. 집행부는 3월 20일 개원한 중앙종회 임시회에 호법부장 임명동의안을 제출했다. 진우 스님은 백운 스님을 은사로 1978년 수계했다. 고불총림선원, 용흥사 몽성선원에서 안거 수행했으며, 제18교구본사 백양사 주지, 총무원 사서실장 등을 역임했다.

한편 조계종 포교원장 지홍 스님은 3월 13일 신임 포교국장에 前감인선원 주지 보연 스님을 임명했다. 보연 스님은 성중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2001년 직지사에서 사미계를, 2005년 송광사에서 구족계를 수계했다. 범어사 승가대학과 실상사 화엄학림을 졸업하고, 은해사 포교국장, 안산 보문선원 주지, 부산 감인선원 주지를 역임했다. **윤호섭 · 노덕현 기자**

동국대 법인사무처장에 박기련 씨



학교법인 동국대 법인사무처장 서리에 박기련 前불교신문사 주간〈사진〉이 임명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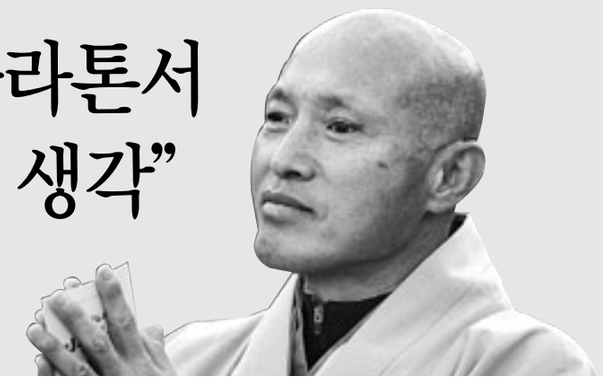
동국대 이사장 자광 스님은 3월 14일 본관 4층 이사장실에서 박기련 신임 사무처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박기련 사무처장은 1994년 불교신문사 기자로 입사해 불교신문사 주간, 사단법인 좋은 벗 대표, 조계종 총무원장 종책특보, 불교포럼 사무총장, 문화재청 문화재전문위원 등을 역임했다. **신성민 기자**

"스리랑카 희망마라톤서 이주노동자 다시 생각"

Interview

(사)꿈을이루는사람들 대표 진오 스님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이주노동자 응원 · 감사에 감동

희망마라톤 공감대 형성 수확

베트남 위해 미국 횡단 계획도

"스리랑카에서 300㎞를 달리면서 한국서 일했다는 현지인들을 많이 만나고, 응원을 받았습니다. 덕분에 장가를 갔다거나 집을 장만했다며 즐거워하는 그들을 보며 국내 이주노동자들에게 더 잘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달리는 수행자'라는 별명을 가진 (사)꿈을이루는사람들 대표 진오 스님이 스리랑카에서 300㎞ 희망마라톤을 마치고 돌아왔다. 한국과 스리랑카 수교 41주년을 기념해 희망마라톤을 펼친 스님은 울트라 마라토너 황철수, 국제농구심판 최교윤, 서울성북경찰서 김전환 씨 등과 마라톤을 마치고 종착지인 마타라 산골마을의 왈라칸다 중학교를 찾아가 해우소 1동을 신축했다.

진오 스님은 이번 마라톤에서 무엇보다 국내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들의 인권과 복지에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다고 밝혔다. 스님은 "하루에 45㎞를 달리면서 한국에서 일한 스리랑카사람들이 우리를 찾아왔다. 한국에 대한 애정이 느껴졌고, 이역만리까지 와서 두 발로 뛰는 것에 감사한 마음을 전하기도 했다. 우리사회가 이주노동자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잘 대해야한다는 마음이 불쑥 솟았다"면서 "현지 사찰서 머물 때는 이런 모습이 대승불교의 장점이라고 스리랑카스님들이 힘을 북돋아줬다. 심지어 제자들에게도 대승불교에 대해 설명하는 모습에 감동받았다"고 소회를 밝혔다.

특히 스님은 종교가 다른 구성원들과 함께 달리며 종교를 넘어선 감동도 나눴다. 진오 스님은 "처음엔 단순히 달리는 게 좋아서 참여한 타종교인도 노동자와 학생들을 만나면서 보람을 느꼈다고 말했다. 종착지인 학교서 학생들이 선생님 스마트폰 반주로 춤추며 환영해주는 모습을 보며 꼭 음향기기를 지원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다"며 "결국 함께 뛰는 사람들이 희망마라톤을 이해하는 계기가 됐다. 이런 공감대를 비롯해 스리랑카와의 연결고리가 생긴 점이 가장 큰 수확"이라고 설명했다.

진오 스님은 베트남 한국군 파병지역 108개 해우소 신축비 지원과 2020년 미국 대륙 횡단 5130㎞ 도전을 목표로 정했다. 스님은 "조계종 교육원이 실시하는 '승가결사체 전법활동 연수'를 위해 7명의 스님이 의기투합했다. 가장 먼저 다음 달 베트남 한국군 피해지역을 방문하려 한다"며 "미국 횡단 역시 베트남을 돕기 위함이다. 다양한 기부단체들이 베트남전쟁에 대한 아픔을 이해하고 잘못을 받아들여 지원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진오 스님은 한국불교계가 군종교구를 중심으로 한 베트남 교류에 매진할 것을 호소했다. 진오 스님은 "군법사 제도가 베트남전쟁 때문에 승인됐다. 2016년 베트남 노스님들과 만났을 때 전쟁 당시 우리나라 군법사들이 오토바이로 탁발지역에 데려다주고, 합동초파일 법회도 봉행했다는 얘기를 들었다"면서 "베트남 각 성마다 불교위원회가 있다. 참전용사들도 풀지 못하는 한을 양국 불교계가 디딤돌 놓는 심정으로 품어 안는 교류가 이뤄지길 고대한다"고 강조했다.

"한국 대표사찰 문화 전승 기여를"

김상훈 봉은사 새 신도회장
3월 10일 법왕루서 취임법회



"서울 강남, 그리고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봉은사의 신도회장 자리가 얼마나 수승한 자리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불심이 크다고 말할 수 없지만 불자로서의 기본을 지키고, 신도들을 살펴 불교문화를 전승하는데 기여하겠습니다."

봉은사 새 신도회장에 김상훈 한국석유유통연구소 이사장(법명 법장 · 사진)이 취임했다. 3월 10일 봉은사 법왕루에서 열린 취임법회에서 김상훈 신임 신도회장은 "전임 덕산 한원덕 신도회장님을 비롯해 역대 신도회장들의 업적에 누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특히 문화재 등록 등 중창불사를 앞둔 봉은사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날 김 신도회장은 봉은사 중창불사 기금으로 1억 원을 봉은사 측에 전달했다.

김 회장은 "봉은사서 10여 년 전부터 신도로 신행활동을 해왔다. 항상 외국인들을 비롯해 시민들이 많이 찾는 사찰 환경이지만 여러 가지 제약이 많았다. 사부대중이 함께 뭉쳐 도심 속에서 불법을 전하는 도량으로 가꿔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주지 원명 스님은 "신도회장직은 주지와 더불어 가장 욕을 많이 먹는 자리"라며 "그만큼 책임이 막중하다. 신도들이 열심히 활동할 수 있도록 아버지와 같은 역할을 해달라.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어머니와 같은 새 사무총장, 또 다른 임원들과 신도들이 화합으로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이임식을 함께 가진 한원덕 前신도회장도 "다시금 신도들이 힘을 모아야 한다. 임기동안 부족함이 많지만 최선을 다했다. 많은 분들이 새 집행부를 위해 다시 힘을 써달라"고 말했다.

한편 김 신도회장은 1955년 태어나 1981년 주식회사 동특 대표이사를 지내고, 2001년 코엔펙 회장을 역임하는 등 사업가의 길을 걸었다. 현재 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 상임부회장이며, 한국석유유통연구소 이사장으로 있다.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 사단법인 대한택견회 회장도 역임했다. **노덕현 기자**

수현불교대학 첫 입학식

200여 불자 축하 속 59명 입학



지난해 전주 혁신도시에 개원한 전법도량 수현사(주지 성우)가 불교대학을 개설하고 첫 입학식을 개최했다. 3월 11일 수현사 3층 큰법당에서 열린 수현불교대학 입학식에는 전북불교회관 총무 구담 스님, 안준아 화엄불교대학 총동문회장, 새로 입학한 59명의 신입생들과 불자 200여 명이 동참했다.

성우 스님은 입학식사를 통해 "전주의 혁신도시 전법도량에 수현불교대학이 문을 열고 불교의 생활화, 대중화를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며 "불교의 진리와 교리를 배우고 익혀 신행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불자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고운사, 각성 스님 종경록 특강



의성 고운사(주지 호성)는 3월 5~9일 고운사 화엄문화템플관에서 대강백 각성 스님 초청 〈종경록〉 특강을 개최했다. 〈종경록〉은 선종5가인 법안종 영명 연수선사가 선교일치의 체계를 시도한 저술이다. 특강에는 100여 명의 스님과 재가불자들이 참여했다. **박영애 영주지국장**

(사)조계종승가회 창립 5주년 법회



사단법인 대한불교조계종 승가회는 3월 12일 대구 원광사에서 창립 5주년 기념법회와 시무식을 봉행했다. 시무식에는 승가회 대승정 경보 대종사와 원로원장 월곡 스님, 종회의장 혜월 스님, 승가원장 정인 스님 등이 참석했다. 이날 승가회는 대승정에 경보 대종사를 추대하고, 각 교구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전생의 기억이 현생을 지배한다"
전생상담사 모집

옛 성어에 '백문이 불여일견(百聞不如一見)'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 성어는 백 번 듣는 것이 한 번 보는 것만 못하다는 뜻으로 무엇이든지 경험해야 확실히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전생 상담의 특징은 단지 전생을 체험하는 자체 만으로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단순한 문제 해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족 간이나 대인관계 사회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함으로써 문제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과 인식에 도달하게 됩니다.

최면을 이용한 전생 상담 기법은 무의식 속에 내재되어 있는 전생의 기억을 통해 일상에서 겪고 있는 원인 모를 심리적, 신체적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열쇠를 찾는 일입니다.

20여 년간 5,000여 명의 전생 상담 노하우를 바탕으로 핵심 기법만을 엄선하여 누구나 쉽게 배워서 바로 실전에 적용할 수 있도록 전수해 드립니다.

TV 방송에 300여 회 출연한 임재형 원장이 직접 강의합니다.

개 강 : 2018년 4월 2일 (월요일) 총 5회 과정
일 정 :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 ~ 오후 4시
교육비 : 50만원 (수련 CD 및 교재 제공)

한국최면과학원 (042)222-0737
대전광역시 중구 석교동 13-1(석교동 주민센터 옆)

수행도우미
미국FDA 등록인증 3009241067



발로해(두한족열양말)
노폐물 독소 쏙 빠지며
발 보들보들
발냉병 즉시 해소
법당에서 절할때 꼭 필요해요



선하트조욜
하루 10분 수행으로 몸맘 행복한 조욜
상·중·하 단전 차크라 열려 기운 쌩쌩!
스트레스 제로! 피로 제로!
온 몸에서 엄청난 氣감 체험



氣사라따
누구나 누워서 저절로
자동단전호흡 100%
피로회복, 氣모음 확실
환자에게 최고의 선물



휴~ 힐링베개
잠이 스르르~ 저절로
가슴답답, 우울, 수면장애, 어깨뻐근, 손발저림
목아픔, 결림, 허리 뻐근 완전해결!
이완이 스르르 저절로 와선삼매 100% 체험



보디스킨
발목,장단지,허벅지,엉덩이,등허리목, 뒷골은 3분만 밀어도 氣통하며 정신이 맑아지고 졸림, 나른, 피로회복 즉시 해소

www.법왕정사.net
010.3487.0035

육임실전 비법 출간

육임으로 쓴 세계 최초의 육임실전비법이다. 지금까지 이론책은 많았지만 육임으로 실전법이 나온 책이 없었다. 이론을 많이 알아도 적용방식을 모르면 공부하는 시간만 허비하고 정확한 점사가 어렵다. 그러므로 이론과 실전방법을 적용하는 공식으로 각각의 정단에 적용하여 만든 비술이다. 생년월시로 보는 사주와 신수는 물론이고 시간법으로 보는 초사 잡는 법, 목적사 구별법 등으로 편리하게 (e-book) 전자책으로 출간하였다. 명리, 주역 등을 공부하신 분도 실전방법을 알면 알 수 있도록 만들었다.

실전비법 30만원, 출판기념 이벤트로
육임실전비법 + 수강 3개월 - 합 50만원
50명 선착순 모집!

육임 (명궁법, 신수법, 시간법 프로그램)
6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한정 10대 e-book 기념 파격판매!
e-book 교보문고에서도 구입가능!

http://www.사주보궁.com
전화 02)793-7333

당신의 전생을 알려 드립니다

나 보다 더 나를 잘 아는
내영혼의 메시지와 전생 이야기
전생의 인연법을 알면 현생의 해답이 보입니다.

» 궁금한 인연관계 «
연인, 가족, 부부, 동료 등의
전생인연 관계

» 미래의 일 «
배우자 선택, 진로선택,
직장문제, 일의 성사 등

» 빙의치유 «
최면심리치유, 빙의 치유,
전생체험,고인과의 만남

수행자의 상담을 환영합니다.
효총사는 관세음보살님께서 현현하시어
당신을 향한 가피와 지혜의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효총사 010-6560-9117



운문사 회주 명성 스님(오른쪽 네 번째)과 장학대상자들이 수여식 이후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불교발전 초석으로 성장하길”

청도 운문사, 제16회 법계장학금 수여식

청도 운문사 회주 명성 스님이 불교인재 양성을 위해 설립한 법계장학금을 학인스님과 불자학생들에게 전달했다.

청도 운문사(주지 진광)는 3월 11일 운문사 경내 종무소에서 법계장학금 전달식을 열고, 동국대 불교학부에 재학중인 법연 스님을 비롯한 4명의 학인스님과 장용수 씨(동국대 의학과) 등 3명의 불자학생에게 1인당 300만원씩 장학금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운문사 회주 명성 스님, 주지 진광 스님, 교무 원묘 스님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서 명성 스님은 장학대상자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며 “학업에 열중해 미래 불교발전을 위한 초석이 되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명성 스님의 법호를 따 설립된 법계장학회는 올해로 16회째를 맞았으며, 지금까지 모두 109명의 스님과 불자학생에게 2억8500만원의 장학금이 수여됐다. 법계장학금은 운문사 회주 명성 스님이 고희 논문 출판기념 축하금과 수행생활 틈틈이 마련한 기금을 바탕으로 2003년 설립됐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법전 대종사 72주기 추모 다례

조계종 제10교구본사 은해사(주지 돈관)는 3월 13일 고경당 법전 대종사 72주기 추모 다례재를 경내 템플스테이 수련관 육화원에서 봉행했다.〈사진〉

이날 추모 다례재는 은해사 회주 법타 스님, 동곡문도 문장 혜국 스님, 은해사 주지 돈관 스님, 대구BBS불교방송 사장 법일 스님, 이시명 선화여고 교장 등 300여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동곡문도 문장 혜국 스님은 “문중스님들은 한마음 한뜻으로 어른 스님이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생각하며 스스로를 밝히며 살아가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고경 법전 대종사는 혼웅 기연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통도사 금강계단 전계대화상과 교수대화상으로 추대돼 남방대강사로 명성을 떨쳤다. 이후 스님은 후학양성에 힘쓰다 1946년 1월 27일 “세상일이란 그림자와 같고 인과는 분명하다”는 임종게를 남기고 안양암에서 세수 64세, 법랍 50세로 원적에 들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달리는 법당 복전함, 자비의 쌀로 회향

달리는 법당, 부산개인택시 반야회가 창립 16주년을 맞아 자비의 쌀을 전달했다.

부산개인택시 반야회(회장 서병동)는 3월 8일 정수사 법당에서 창립 16주년 기념법회 및 자비의 쌀 전달식을 개최했다. 반야회는 달리는 법당, 거리의 포교사로 불리며 택시 안에 작은 기부함을 비치해 운영 중이다. 창립 16주년을 맞은 반야회는 사회복지법인 성우원을 비롯한 7개 단체에 쌀 20kg 93포대를 전달했다.

서병동 반야회장은 “법우들의 많은 참여와 정성으로 모금한 복지기금 덕분에 매년 창립법회 때 마다 자비나눔행사를 열어 회향하고 있다”며 “반야회 법우들의 정성으로 만들어지는 보람이며 공덕”이라고 격려했다.

한편 창립기념법회에는 정수사 주지 원광 스님, 박대성 부산불교연합신도회장을 비롯해 회원 200여 명이 동참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희망 담은 복돼지에 “다시 일어섭니다”

부산 원오사, 암환자 돕기 프로젝트 ‘희망복돼지’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원오사가 ‘희망복돼지’를 상시 분양 중이다. 희망복돼지는 부산 해운대구 지역 말기암 환자 가운데 가정 형편이 어려운 환우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진행하는 모금사업이다.

원오사(주지 정관)의 ‘희망복돼지’는 2017년 2월부터 시작된 자비나눔 기금 마련 방편이다. 특별한 돼지저금통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이웃을 돕고자 시작된 희망복돼지는 각 가정에서 작은 돼지저금통을 가져가 동전을 채우고, 저금통을 다시 사찰에 반납해 말기암 환자와 환자 가족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참가자들은 돼지저금통 위에 ‘모든 이들이 건강하기를’이란 기원문을 붙이고 동전을 넣을 때마다 합장하고 자비명상을 한다.

작은 정성을 모아 큰 나눔을 실천하겠다는 의지로 시작돼 저금통에 담긴 보시금은 저금통마다 다양했다. 그 정성이 모여 현재 암환자 4명, 암환자 가족 청소년 장학금 3명, 통증완화 파스 사업 등에 총 600여만 원을 전달했다.

원오사 주지 정관 스님은 4년 전부터 해운대 보건소와 가톨릭 의대에서 실시하는 말기암 환자 호스피스 영적 봉사를 담당하고 있다. 정관 스님은 호스피스 봉사활동을 하는 가운데 환자들 중 치료의 손길이 필요하지만 가정형편이 어려워 방치되는 사람들이 있어 도와줄 방법을 모색했고, 희망복돼지 사업을 기획했다.

주지 정관 스님은 “동전을 넣기 전에 ‘모든 이들이 건강하기를, 나무관세음보살’ 하고 세 번 기도 후 넣으라고 권유하고 있다”며 “이렇게 마음을 모을 때 참가자들의 마음에 자비심과 청정함이 생기는 것 같다. 참가자들이 자비심을 기르고, 기도하는 마음을 모아 전달하니 말기암 환자와 그 가족들에게 좋은 일이 생기는 일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스님은 “췌장암으로 투병 중이었던 어느 환자는 기적처럼 완쾌한 일도 있었다. 현재 원오사에서 기도 수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가정마다 저금통에 모연
모든 이 행복 발원 기도
각자 자비심 키우는 계기
“어려운 환우에 희망되길”

희망복돼지 나눔은 암환자 지원뿐 아니라 장학금으로도 회향해 훈훈함을 남기고 있다.



원오사가 해운대구 말기암 환자 치료 후원을 위해 ‘희망복돼지’ 사업을 펼치고 있다. 사진은 개인이 모든 이의 행복을 발원하며 채우는 희망복돼지 저금통.

해운대구 호스피스 사업단은 “원오사의 희망복돼지가 힘든 이웃에게 큰 힘이 되고 있다”며 “수영구에 있는 52세 환자분은 40세에 파킨슨병을 진단 받아 투병 중이다. 중3인 아들을 홀로 키우는 싱글맘인데 3년 전 사기를 당해 집을 잃는 등 고생하고, 보행장애, 기억력 감퇴 등 어려움이 있어 구직이 힘든 상황이다. 자녀 학습은 도저히 챙기기 힘들었다. 원오사에서 전달해 준 장학금 소식에 대상자는 길에서 눈물을 터트렸다”고 감사인사를 대신 전했다.

지난해 원오사 신도뿐 아니라 부산에 있는 불자들에게 나눠준 희망복돼지는 400여개이며, 후원 동참이 꾸준히 늘고 있다.

주지 정관 스님은 “어느 82세 노보살님은 자신이 기초 생활수급자인데 희망복돼지 사업에 동참하기도 했다”며 “많은 동참자가 나타나서 어려운 분들에게 희망을 안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원오사는 현재 기부 상황을 SNS에 올려 공개하고 투명하게 기금을 운영 중이다. 참여 방법은 동전을 모은 돼지저금통을 직접 원오사에 전달하거나 기금 마련 전용 계좌에 직접 송금하면 된다. (051)542-7949

“금타 스님 가르침 되새기며”

고불총림 백양사 3월 11일 부도 제막 · 세미나 개최

근대 한국불교의 기틀을 마련한 만암 스님 제자인 금타 스님의 부도비가 백양사에 조성됐다.〈사진〉

고불총림 백양사(주지 토진)는 만암 스님의 제자이자 청화 스님의 스승인 금타 스님(1898~1948)의 열반 70주기를 맞아 부도와 탑비 제막에 이어 추모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3월 11일 부도전에서 봉행된 부도탑 제막식에는 방장 지선 스님, 벽산문도회 문장 용타 스님 등 100여 명의 문도스님을 비롯해 1000여 사부대중이 참여한 가운데 금타 스님의 생애와 가르침을 추모했다.

행사는 추모다례 및 부도제막식에 이어 백양사 교육관에서 추모 학술세미나가 열렸다.

제막식에서 방장 지선 스님은 법어를



통해 “만암 스님께서는 ‘이뭣고’ 화두를 늘 수행하시던 어른이시고, 금타 스님께서는 ‘염불선’을 하셨으니 오늘 벽산당 금타 스님의 비문과 여러 선지식들의 부도를 모심으로써 안심법문의 전통이 모두 갖춰지게 됐다”면서 “생전에 청화 스님께서 바라시던 일들이 이뤄져 무척 감읍할 따름”이라고 소감을 말했다.

부도는 금타 스님뿐만 아니라 제자인 법련당 정수 스님, 법능당 성기 스님, 보하당 지죽 스님, 무지당 월성 스님의 부도도 함께 조성됐다.

부도와 탑비는 지난 2016년 3월 벽산문도회 주도로 건립이 추진된 지 2년 만에 회향했다. 부도는 높이 2.5m, 폭 1.5m로 다섯 기가 조성됐으며, 부도 비문은 방장 지선 스님의 글을 원로 서예가인 이돈흥 선생이 서각으로 새겨 넣었다.

이어진 학술세미나는 △중앙승가대 법상 스님의 ‘벽산 금타의 회통사상과 수행체계’ △김광식 동국대 특임교수의 ‘금타선사 생애의 재검토’ △안준영 미시건대 불교학 교수의 ‘금타대화상의 삶과 사상을 통한 현대 불교연구의 재조명’ 등 주제발표가 진행됐다.

한편 금타 스님은 3 · 1독립만세운동 당시 전북 고창 문수사서 피신 중 발심, 22세에 백양사에서 만암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동국대 전신인 중앙학림에서 수학한 이후 백양사 운문암과 벽력암에서 참선수행에 전념했다. 〈우주의 본질과 형량〉〈해탈십육지〉 등 대승과 소승, 밀교와 현교, 선종과 교종을 통섭한 다양한 저술을 남기고 1948년 1월 백양사 운문암에서 세수 51세, 법랍 29세로 입적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선가귀감〉 승려교육 佛都 부산서 열린다

4월 17일까지 지안 스님 강의

마음을 밝히는 선의 정수 〈선가귀감〉을 주제로 승려연수교육이 열린다.

조계종부산연합회(회장 심산)는 올해부터 2년간 〈선가귀감〉 강좌를 개설 운영한다.

〈선가귀감〉 강의는 3월 20일~4월 17일 오후 2시, 매주 화요일 총 5회에 걸쳐 진행된다. 이번 강의는 조계종부산연합회에서 주최한 〈선가귀감〉 첫 강의로 교육대상은 조계종 승려이며, 연수인증점수 30점을 받을 수 있다. 강사는 조계종 고시위원장 지안 스님이 맡는다.

조계종부산연합회는 “승려 연수교육의 전문성을 높이고,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자 강좌를 개설했다. 많은 스님들의 참여를 기다린다”며 관심을 독려했다. (051)501-7554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하기책자 5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명)
글쓴이 :
혜천법사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 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20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전생의 빚을 소멸시켜 자신의 운명을 바뀌게 하는”

생전예수재기도의 중요성과 그 성취효과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생전예수재는 “왜” 필히 지내야만 하는가?
② 생전예수재 신청 및 집에서 기도하는 방법
③ 생전예수재 기도후 일어난 영험사례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오포로 345-4 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768-8413

죽음을 면하여 운명을 바꾸는 생노병사의 비밀인 귀안 달팽이로 정신통일의 정신세계와 심신·육신의 세계인 두뇌를 열어 천제 수제가 되는 영혼에 문을 열어는 대법회

천하대도 잠자는 두외와 뇌수체를 귀안 달팽이로 영혼에 문을 열어 정신 심신 육신과 오장육부에 빙의된 50억조 마리의 삼시구충에 빙의되어 귀신병 잡신병, 수마, 병마, 인마, 색마로 늙고 병들어 중풍, 치매, 당뇨, 혈압, 간질 등 각종 질병을 관리 다스릴 수 있는 초능력을 3월 28일 해시와 29일 오시에 천문을 열어 천제, 수제, 인제가 되는 비법으로 막힌 운과 막힌 자금과 기도마장을 넘으면 두뇌 회전과 지능지수가 늘어나 수명과 출세 통솔 진급 거부장자는 물론 빛을 보는 성불도통하는 무한대한 우주공간을 넘는 신통력 생명력, 상상력, 사차원 넘는 신지학을 얻어 호흡을 멈춘 부처님 수행방편으로 영생에 문인 현문과 현관을 열어 극락 천당가는 마음과 자성이 하나되는 호흡으로 불로장생하는 천이통, 경신수행 도통, 좌견 천리 입견, 만리도통법에 주인되시고 죽음을 면하는 눈 뜬자는 볼 것이요 귀 열린자 들을지여다. 이 법은 비인도전이니라. 병겁에 사는 법은 오직 도인만이 만병을 다스리느니라.



일체 고액 소멸하는
달마구입처 : 태일
010-9292-3110



환성 지계수복자 태일대사

■ 입제일 : 2018년 3월 28일(음 2.12) (수) 밤 9시 ■ 해제일 : 3월 29일(음 12.13) (목) 해시
■ 준비물 : 필기도구 간편한 옷 무박 2일. 죽음을 면하는 수행 ■ 교재 : 천장지비문
■ 계좌번호 : 농협 029-01-167866 곽한영(태일) ■ 동참비 : 10만원
■ 상담전화 : ☎ 032-502-6625, 010-9292-3110, 010-9718-4449

주소 : 인천시 부평구 대정로 34 **천지공사 불선도 천궁도통회**
사)대한불교달마조계종 예성용천사 환성 지계수복자 태일대사 합장

* 본 지면 광고는 본지와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생활안내

▷ 문 의 : 02) 2004-8214 / FAX 02)737-0696 / e-mail : jabi1522@hyunbul.com
▷ 가 격 : 1회 1Box (4.3×5.0) 4만원, 1회 1Box (8.7×5.0) 8만원
▷ 마 감 : 매주 월요일 ~ 수요일. 수요일까지의 입금 기준으로 광고 게재됩니다.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금주의 법어】

자주 날아다니는 새는 그물에 걸리는 화를 당하기 쉽고 가벼이 날뛰는 짐승은 화살에 맞기 쉽다. 그러므로 행동을 조심할지어다.

- 초발심자경문 -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0-9002-8523
빙의 치료 전문

범불교조계종 교육도량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종도모집 및 승려증 발급종단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회심곡
사찰행사전문
천도재 49재 점안식 회심곡
010-9317-6686
「유투브」에서 대명스님를 치세요!
대명 합장(부산)

무형문화재 학인모집

부산시 무형문화재 제9호
영산재작법 천수바라연수원
염불 사물, 승려증 발급 종단
- 특별반 3개월 과정 모집
제9호 영산재 작법무, 천수바라
사찰행사 전문
(사)대한전통불교예술대학
전통불교조계종 총무원 영축사
010-5511-7000

신묘방편력

사찰, 포교당, 대지,
건물등 속히 매매성취
010-2896-6689
광명 공덕
터 / 자리도 봐 드립니다

수 맥

수맥탐사 교육생 모집
삼일단기
속성반 (1:1개인지도)
이론실기 현장실습
교육 후 수료증 발급
출장탐사 개인사업자창업지도
(사)한국수맥협회 부산수맥연구소
051-462-8711

범음범패 학인,회원모집

염불을 여법하게 하고 싶은 분
염불 내용을 알고 싶은 분
사찰행사 함께 공유하고 싶은 분
사물,바라,작법을 배우고 싶은 분
(매주 금요일 오후 2시 ~ 5시)
사찰행사 문의 환영
(살풀이, 극락무, 지전무, 관음무)
055-744-5300
010-5243-3587
진주 여여불음원 법일 합장

관상 (손금)

- 얼굴만 보면 모든 것을 알 수 있다(암,질병,묘터, 송사재판,산소,낙태유산, 조상영가,교통사고,직장운, 승진운, 재물운,이혼수)
- 성철스님 사주 비법전수
- 철학원 하실 분 천기누설 전수
- 스님, 무속인, 일반인

010-4014-8822

불공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49제, 점안, 살풀이, 바라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0-2168-2800
011-850-0176

위 패 몰

www.위패몰.com
염주 마이크목걸이 /
사찰합동위패 / 영가전대
051-244-2040



비법전수 사주 강의

3개월 완성(주1회)으로 구성
비법 역학을 공개 강의합니다
장소 : 충남 논산
시외버스터미널옆 2층 /
회비 : 월 50만원
010-6473-1569 남전

참선 강좌

"깨달음의 정수"
마음공부, 화두타파, 명상
공부 같이 하실 분, 검증이 필요하
신 분, 명상공부에 관심이 있으신 분
(심리상담 - 개인상담, 가족상담, 부부상담 등)
053-652-2714 / 010-9616-2477
묘진사 우송 합장 (대구 내당동 소재)

조선소나무 판매

목재용, 건조기간 9년
수량 14000사이 (상태A급)
건축면적 : 약 28~30평내
010-2294-4747

약사보살(4자) 좌대(1자) / 지장보살(3자) 좌대(반자)

모셔가실 분 찾습니다
010-5353-3936

경북, 경남지역 절집 구합니다

010-3717-5316

역학·빙의 퇴마

개인 지도 · 예약 상담
1. 역학 : 사주,궁합,택일,사업운
2. 성명학 강의 및 작명, 개명
3. 빙의퇴마,전생요법,심리상담
4. 정신 분열,환청,환시,우울증
※ 빙의(신병)출장 퇴마 및 상담
010-3772-4606 제행
서울 지하철 4호선 상계역

스님 안 계신 절 및 인연처 구함

각종 제의식 및 방편술 보유한 세납59세 승납25세된 비구승 성운 입니다. 오래도록 인연처가 될 수 있는 곳을 찾습니다.
010-4876-1042

비구니스님,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포항 동호사)
60대 전후 운전가능
010-3376-6601

함께 기도수행 할 스님을 모십니다

참신한 공양주 모십니다
010-9421-0730
010-8620-4303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마산)
010-5045-3545
010-3597-3545

경전, 철학 배우면서 사찰을 같이 운영하실 비구니스님 모십니다

35-45세 차후 사찰을 무료로 인도해줍니다
010-6536-0120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초보자도 가능, 60세이하)
041-673-8385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도 낫지 않는 분

남해 무량암으로 오신며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사례비는 없습니다.
010-8913-0062 총무스님
*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보시금 월 150만원부터 면담 후 결정합니다

도깨비를 마음대로 부린다

뇌강검의 비밀!
☎ 02)963-1148 / 011-741-0867
●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74-1 3층
백선사 대주스님 합장

중풍, 당뇨, 고혈압, 치매, 손발저림

예방, 치유가능
네이버 '현오스님' 검색
010-9229-3801 약손스님 현오

사찰행사 전문

점안식. 천도재. 사십구재. 터 고사 등
각종 재의식 상담
바라춤, 나비춤, 살풀이,
지전춤, 극락무, 회심곡
(불교무용, 한국무용, 남사당풍물)
010-2277-7955

과일의 왕 두리안

제일 맛이 좋은 시기에
수확하여 들여왔습니다.
두개 6.5KG 이상 70,000원
한박스 14KG 이상 130,000원
Sale!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영하 40도로 급냉해 보관된
두리안이 먹기 좋은 상태로 해동이 되어 있습니다
〉 망고, 체리, 아보카도 수입과일 일체 판매합니다 〈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www.durianshop.com
양덕원
판매및 문의
불자가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 031-882-1357
Fax 031-881-1350 전화 : 010-5474-1345
입금구좌 : 농협 100023-56-156761 (조명숙)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우학스님 상좌 및 예비수행승(행자)모집
이 시대 불교를 리더할 참신한 예비수행승(행자)을 모집합니다
1. 수행 위주의 교육
2. 수계 후 공부 100% (대학, 강원, 기본선원) 교육비 전액지원
3. 공부 마친 후 국내도량, 해외도량, 복지시설 등에서 활동 할 수 있음.
4. 본인의 희망에 따라 대구큰절, 감포도량 중 선택하여 행자생활 함.
문의 : 054-753-8228, 010-8852-0075

수인작법 사주팔자

- 옛 고승과 도인에게만 전수되어 내려온 비술
- 손 하나만으로도 몇년 전, 몇월, 몇일의 운세점 검 몇년 후, 몇십년 후, 몇월, 몇일, 몇시의 일도 예측할 수 있는 작법
- 명리를 배웠어도 시원치 않은 분
- 운명학을 배웠어도 시원치 않는 분

천지조화의 수치를 열어 보입니다
010-7703-1188

MYANMAR (미얀마 語) 강좌 단체접수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 위빠사나 강좌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미얀마 문화원 (종로구 청진동)
문의 : 02)733-5670

현대식 불교문화를 선도하는 포교원

현대인의 스트레스를 한방에 해결할 수 있는 수련법! 티벳, 인도, 요가, 명상호흡을 통해 누구나 쉽게 치유될 수 있는 수련법입니다.
지도자 수련생 모집 : 출가스님, 법사, 포교사 등
(사)소승불교조계종. 티벳, 인도, 요가 명상호흡협회
붓다선원 혜웅 합장 (서울 성동구 홍익동)
02-2296-3001. 010-4740-3001

교육학 박사 진각 스님의 명리상담학



- 지금은 명리상담학이 제도권학문이 되어 여러 대학교와 대학원에서 학사, 석사, 박사 학위과정이 있음.
- 또한 명리상담분야의 비학위과정도 지역문화센터 등에서 많은 개설과 보급으로 신도 님들이 공부를 많이 하였음.
- 이러한 현상이 현대는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과 상담분야로써 필요성이 더 절실하기 때문 임.
- 이제는 명리상담학을 필수학문이라 생각하고 방편 삼고자 큰마음을 내신 스님만을 위한 초급입문과정을 개강.
- 한자(漢字)는 22자만 알면 가능하고, 명리상담법과 작명법
- 부산 송광정사 부설 문화대학 교육학박사 진각
- 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도 10년간 강의 · 강의경력 23년
- 부산지하철 3호선 배산역 하차 4번 출구.

부산 ☎ 051-868-8438

피부·치아건강제

불 보살님의 기도, 가피, 지혜 원력으로
건강하시기를 기원하며, 회향공덕하는 마음으로
불자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국내산 자연식용재로 준비하였습니다.

스님, 불자님, 충치, 풍치, 시린이, 치주염, 치석, 잇몸출혈, 흔들리는이, 입냄새, 담배냄새, 혀백태, 입안건조, 임플란트 틀니 하시고 잇몸 아프신 분, 탈모, 비듬, 얼굴 기미, 손발톱 무좀, 각질, 습진, 전신잡티, 낭습진, 피부 아토피, 알레르기, 벌레, 풀독, 모기 물리고 머리염색 후 가려움증, 상처, 비염, 화상(즉시 여러번 사용 물집안생김), 백반증, 노화성피부건조 등 피부 치아가 건강치 못한 분들 연락주시면 3개월 사용분을 보시합니다.

문의 및 보시처
안산 법흥사 개운 합장
010-6332-6070

좋은인연 대출안내

- ☑ 대출이 더 필요하십니까?
- ☑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 ☑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1980년 설립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인 형산새마을금고와 의논해주시면 좋은 인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사찰을 매매하실때 문의해 주세요~

부동산권리분석 · 매매관련세금 · 감정평가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 대출기간 기본5년
- 근저당설정비 면제
- 제주도까지 전국가능
- 타은행대출 전환가능
- 단체명의사찰 가능
- 종단사찰 가능

365 친절상담
전무 이강욱 ☎ 010-9842-4200
부장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알기쉬운 구단구궁법

특허 상표등록번호 40-0863341 저작권등록번호 C-2011-003967
서비스표등록번호 41-0213393

저작권자 상표권자 법화종헌	저자(속명 정흥교)는 경주불국사, 대구동화사, 부산범어사 승가대학에서 수학하고 고려고찰 고산사, 석불사 등 주지직을 수행하고, 전통불교조계종정을 역임. 지금은 「구단구궁법주」로써 자비의 방편학문인 「구단구궁법」을 세상에 널리 펼쳐 많은 중생을 요익케 하고 있다.
누가? 몇일?	◆누구나 5일이면 실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왕초보 저학력 아무상관 없습니다. ◆써먹지도 못하는 죽은 학문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 시대의 필수과목입니다.
내용	◆**손으로 짚어 5분안에 자금회전, 일의성패, 직업, 성격, 적성, 궁합, 택일, 이사방위** 등을 주저없이 판단하고 기판(답안지 5분) 작성시에는 과거, 미래 십년도 한눈에 일년 열두달도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날짜별, 시간별도 마찬가지이다.) ◆한문에 관계없이 초보자도 가능함 ◆**귀신뽑아 조상천도 연계** ◆교수 이수 후 즉시 영업 활동 가능함 ◆**사찰, 포교당, 철학관 상담소 운영**에 획기적인 방법
※ 1월(寅月)의 높은 나무는 바람결에 귀신의 소리를 듣는다.	
수강료	◆스 님 - 오십만원(책값 별도) ◆일반인 - 일백만원(책값 별도) ◆우체국 : 601401-01-001843 (예금주 : 자비실천불교연합회)

구단구궁법 교실
cafe.daum.net/9dan9gung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대로 27번길 31, A동 107호 (지하철 덕천역 12번출구)
전화 010-7415-0803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관계 및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불자정보

▷ 접 수 : 매주 월 ~ 수요일 (팩스,이메일로 광고 접수 받습니다.) ▷ 게 재 : 다음주 수요일
※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해드립니다.
▷ 문 의 : FAX 02)737-0696 | 02) 2004-8213 | 이메일 iom@hanmail.net
▷ 가 격 : 기본 4.7㎝ 50,000원(1회) | 가로 6.7㎝ 70,000원(1회) | 가로 9㎝ 100,000원(1회)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금주의 법어】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거든 스스로 지킬줄 알아야 한다. 지혜로운 사람은 밤 샐때에 한번쯤은 깨어 있어야 한다.

– 법구경 –



논산시 사찰 안내
(www.이박사.com)
- 목조 한옥 법당. 산신각. 요사채. 토지 400㎡
- 논산 IC부근 운영 잘되고 교통 편리.
- 양도 : 1억 2천만원 (타지방 불사로 양도함)

■참되고 좋은인연 만드는 이박사공인중개사
010-7347-1010 (02-430-0284 이박사)
주소 : 서울시 송파구 동남로18길40.가락동프라자@상가(대표:이규철)
■ 비밀 보장. 방문 접수. 전국사찰. 암자 급히 구함 !!!

사찰 안내 "가람"
- 전국 사찰 암자 포교원 양도 양수해 드립니다.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
- 계약 체결시 까지 홍보
- 매물홍보 최적화(사진촬영) ● 비밀보장(희망자 한함)

사찰 사진과 상세한 정보는 가람공인중개사사무소 사이트
"사찰안내가람"(인터넷 검색창에 입력)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가람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 김인수)
02-492-6789 / 010-8980-4789
주소 :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로 36번길 38 (상봉동127-15호)

지리산기도사찰(급)안내
- 산중멋진사찰 ● 토지 18,000㎡
- 목조 법당. 요사채. 목조 산신각
- 경관 우수한 사찰. 조용 깨끗함
- 현재운영 잘됨
- 양도 : 7억원(융자가능함)

010-7347-1010(02-430-0284)
사무소 방문 부동산 무료 상담
(서울이박사공인중개사 이규철)
전국사찰다량보유.무료상담

사찰 및 전세 안내
- 위치 : 전남 광양시내 뒷산
- 경관좋음,정원수 다량,조경된 아름다운절
- 포교 최적지 ● 대지 1200평
- 법당 26평. 요사채 30평 공양실 16평(전체 목조. 단청완료됨) 창고.저온 창고
- 가액 : 8억(대출1억 안고) 전세가격 : 7,000만원 월세 50만원

010-6603-1456

광진 사찰 안내
◎ 위치 : 서울 시내 ◎ 위치 : 수도권
◎ 대지 : 100평 ◎ 부지 : 800평
◎ 건물 : 60평 ◎ 법당 : 50평, 차량진입
◎ 요사 : 60평 외 ◎ 요사 : 60평
◎ 매가 : 26억 ◎ 매가 : 25억 5천

*40년세월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출장 상담 받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광진불사」를 입력해보세요.
*전국사찰,땅,포교당,다량보유 부전, 공양주, 처사 소개 합니다.
*고불, 석불, 골동품, 종교법인 상담 받습니다.

광진불사 010-4586-4525

사 찰 안 내
- 위치:부산구서동에위치한작은암자 (지하철에서 도보로 3분거리)
- 크기는 작지만 50년 된 기도처
- 도심 한가운데 멋진 숲속 풍광
- 구거(溝渠) 약 100평(산신각 포함)
- 직접 보시면 만족하실 조건 위치
- 인연 닿는 스님께 양도 원함

010-7121-3030
010-3574-3303

도심속작은사찰안내
- 위치:경남 창원시 진해구 여좌동
- 건물 : 1층 단독 주택
- 아담하고 예쁜사찰, 법당, 요사 실내화장실, 실외화장실, 세탁실 창고, 포교, 철학 상담하기 좋은 사찰
- 난방 도시가스, 심야 전기
- 가액 : 1억 9천 5백만원 (대출 7천5백만원안고 1억2천만원)

010-7188-7723

포교원 안내
- 위치 : 서울시 성북구 정릉동쪽 임 북한산(삼각산) 자락에 위치한절임
- 건물 : 법당, 산신각, 평수 : 470평
- 가액 : 7억
- 조건 : 양도시 모든 기물 포함. (불상, 불화 등 기타)
- 주변 주차 시설 양호함.도시가스, 상수도 임 대중교통 편리함(도보로 5분 거리임)

연락처 010-8697-2251
(부재시 문자 남겨 주시면 연락 드리겠습니다)

암자(급) 안내
- 위치 : 경북 영양군 관내
- 대지 : 125평
- 건물 : 21평
- 가액 : 7,500만원

주 인 직
010-8899-8899

사찰(급)안내
- 위치: 전남 해남읍에서 5분거리
- 사찰도량 1,500평 남짓
- 법당, 목조 20평, 관음전, 종각, 차실, 요사채, 공양간
- 모두 방 10칸, 외부, 부속사 등등 대영주차장 등
- 가액 : 모두 2억 9,500만원 (대출 7,500만원 승계도 가능)

010-4628-5699
(부득이한 사정)

사 찰 안 내
- 위치 : 산청군 삼장면 소재
- 600평 건물 6동
- 법당 53평 그 외 용왕당, 산신각, 요사채
- 가액 : 전화 상담

010-8957-8089

사찰 및 요양원 안내
사 찰
- 1층 30평, 칠보관음, 천불상 용왕대신
- 2층 25평, 삼존불, 관음소불 130
- 요사채 40평, 큰방 3, 황토방 1

요양원
- 1층 90평, 2층 90평. 대지면적 약 900평
- 정원 25명, 현입소인원 25명
- 신축건물 월매출 약 4천5백만원(요양원만)
- 뒤에는 높은 산이요 앞에는 큰 저수지가 내려다 보이는 전망 최고의 명당터
- 위치 : 경남 밀양
- 가액 : 18억(융자 5억 5천 포함)

010-9567-0813

도심 속 산중 암자
- 위치 : 전북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
- 단독 주택 시내가 한눈에 보임
- 방3칸 인법당. 산신각 1동. 넓은 텃밭
- 화장실 2개. CCTV 유
- 가액 : 8,000만원

010-5628-9338

사찰(포교) 안내
- 위치 : 김천시 면소재 (차편 10분 거리)
- 사찰 건물 : 32평 독채 등기필
- 법당, 주방, 방 2, 세면장
- 시가지 대로변 포교사찰 남향
- 대지 : 도지료 1년 35만원 (건물은 지상권 등기되어 개인 소유임)
- 가액 : 5천 8백 만원

010-7295-1259

사 찰 안 내
- 위치 : 수원시 동수원 사거리 중심 그린상가
- 건물 : 1, 2층 전체
- 대지 136.5평 건평 149평, 법당 75평
- 1층 요사채 겸 식당 주차장 완비
- 가액 : 평당 천오백

010-3752-2601

토굴식 포교원 안내
- 위치 : 충북 진천 문백면
- 모든기도 성취 영험도량
- 평수 253평, 2필지
- 대웅전, 삼성각, 요사채, 별채 포함합니다
- 가액 : 2억 8천 (융자 1억 2천 8백만) 시세조정가능

010-5496-6417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 백양산 밑 전망 좋은 곳
- 대지 45평
- 4층건물
- 총 92평
- 가액: 5억 5천

010-9881-7363

사찰 포교원 안내
- 위치 : 진주시 중앙시장 앞
- 2층 70평 정도
- 각단 탱화 및 삼존불 시설 완벽, 즉시 법회
- 가액 : 보증금 시설비 보신 후 결정

010-6208-5555
055)747-9874

상가주택 포교원 안내
- 투자가치도좋음(대한방직150m거리143층 초고층타워와아파트 신축예정)
- 위치 : 전주시내.앞도로변.좌로4차선.앞으로 2차선
- 주변환경.전북경찰청.도청.아파트.상가.주택. 밀집지역.공원.천변산책로
- 대지 61평.뒷마당있음.건평90평.각30평.3층건물
- 1층.방3개해우소 / 2층.법당.수미단원목조성. 소불300불.연등.700.인등.영가인등. 해우소 3층.주택.방3개.화장실2개.외부.내부 뻐대와 올리모델링 CC카메라10대.상담을 해주시는 분이면 최고의 위치
- 가액 : 4억3천만원(불사관계로)

휴대폰 : 010-5904-8608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함안군 가야읍
- 대지 : 1140평, 주차장
- 건물 : 대웅전30평, 요사채
- 기도방 6칸, 산신각, 스님친견실, 창고, 일주문
- 가액 : 5억 8천만원 (대출 1억)

010-5916-5680

사 찰 안 내
- 위치: 경북 영천 청통 부근 산을끼고 아주 조용한 사찰
- 단청, 주련 현판
- 총평수 465평, 현대식 건물 2동 1층 요사 30평, 14평 2층 30평 법당
- 가액 : 3억 9천만원

011-503-0517

신축사찰(급)안내
- 위치 : 경남 마산 근교
- 임야 4천평, 대지 약1천평 법당 35평, 요사 60평
- 1천 3백년 고목 있고, 산세수려, 교통 편리 지하약수 천혜의 명당지리
- 가액 : 12억

010-4547-4990

사 찰 안 내
- 위치 : 세종특별자치시 부강면 부강면 갈산리 447번지
- 대지 : 전 343평, 종교용지475평, 임야 507평
- 건평 : 40평 1동
- 방2개,큰거실1개,주방,창고방3개
- 가액 : 5억(절충가능)

010-5403-7737

사 찰 안 내
- 위치 : 대구 팔공산
- 토지 457평 하우스 내
- 법당 20평
- 방 2개, 해우소 2개 CCTV, 공양간 50평
- 가액 : 토지 1억 2천 시설비 6천(융자 8천만원)
- 몸만오시면 법회 가능합니다

010-4504-7809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 영도구
- 시장, 은행, 마트 가깝고 교통편리함
- 대지57평, 건물 철근 콘크리트 2층집
- 1층 요사채 30평내, 방2개, 주방1개 거실1개, 세면장 화장실1개, 도시가스
- 2층 법당 20평 내, 스님방 1개 도시가스 외부세면장 화장실 1개
- 모든 사물은 갖추어져 있음. 몸만 오시면 됩니다
- 가액 : 2억 9천만원

010-4495-7005(스님전화)

사 찰 안 내
- 위치 : 강원도 원주시 신림면 연봉정길 161-3번지
- 종교 부지 570평, 주차장 44평 텃밭 278평, 임법당 32평, 삼성각 10평, 창고 겸 요사채 17평
- 가액 : 이억 칠천만원 (급양도) 정남향

011-369-3859 (스님직통)
※ 꼭 하실분만 전화주세요 ※
네비게이션 전화 033)744-3859번

포교원 안내
- 위치 : 대전 동구 용전동 용전 KT 옆
- 제반시설완비 : 법당, 주방, 상담실, 방×3개, 60평
- 2층건물 2층,옥상 60평 사용가능
- 교통요지,터미털 도보 4분거리 대전역 5분거리
- 가액 : 시설비 3,000만원

010-3452-1123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시 수영구 무학로 10번길 35(광안동) 광안리 최고요지
- 3층 건물 2층 50평, 법당 5존불 외
- 한자불 50불 30cm, 후불탱화
- 방3개,주방1개,식당,화장실2개
- 가액 : 1,500만원, 월세 70만원 시설비 1,000만원

010-3884-0122

한 옥 안 내
- 위치 : 지리산 산청 단성 IC에서 5분거리 지방도 2차선접 토지 1,700평, 한옥 50평
- 정원수 백여종 다량, 식용가능 야생초 다량 식재
- 용도 : 사찰, 영수원, 동호인주택, 펜션, 찻집 음식점 가능
- 주변도시 진주시내와 20분거리 하나로마트 대형마트 5분거리
- 가액 : 13억

010-5923-3388

암 자 안 내
- 위치 : 경북 김천시 지례면 신평리 599번지
- 대지 129평, 법당 17평
- 아미타도량, 관음, 지장, 소불 104위
- 거실, 주방, 방 2, 욕실 2 경내돌탑 수려함
- 가액 : 7,800만원

010-8503-5769
054-430-5769

사 찰 안 내
- 위치 : 차령산맥 세종 천안 각 20분
- 대지 : 3만 5천평, 건물 4동
- 지방문화재보유한 100년 도량
- 가람 불사금 20억 동참 도반 원함

010-4448-5998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영양군 석보면
- 종교부지 250평, 법당 25평, 산신각 4평
- 요사채 32평, 창고 화장실 15평
- 총건평 80평 가량, 철골 지붕 강판 기와
- 가액 : 1억 6천 절충가능
- 터밭 별도 450평, 년15만원

010-4726-6496

토 지 안 내
- 위치 : 경북 청도군 화양읍 범곡리 563번지
- 용도 : 주택, 복지사업용, 종교시설, 2차선 도로인접
- 가액 : 864평. 평당 170만원

※ 기도 중 전화 못 받을시 문자 넣어 주세요 연락드리겠습니다.
- 주인 직거래 부동산 사절

010-3540-7739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가평군 상면
- 대지:110평,2층법당29평,1층요사채35평 외 약 5평 정도 공양간 시설되었음
- 신도로와 구도로 교차로변(근처) 국민관광지역. 절 앞까지 서울시내 좌석버스 30분간격 운행중
- 가액 : 3억7천만원(융자1억 포함)
- 자세한 것은 전화주시면 건물,법당, 사진,메시지나 카톡으로 전송하겠습니다

010-9259-0108번

사 찰 안 내
- 위치 : 인천 서구 서인천 IC 부근
- 교통좋음, 2호선개통, 7호선개통예정
- 법당: 35평(상담실,주방,요사채1,화장실2)
- 대지: 약 100평 (산신각,용궁전,창고,사무실3평)
- 산림청부지: 연대부료290만원 (현재 불하 진행중)
- 불사로 인해가액 2억 2천

010-3917-3713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 해운대구 반송동
- 4층 건물 중 3층 60평
- 법당, 방 3개, 공양간, 창고
- 가액: 보증금 1천만원 월세 40만원 시설비 2,000만원
- 즉시 입주, 몸만 오시면 됨

010-8842-4225

사찰(급)안내
- 위치 : 창녕군 창녕소방서 앞 (100년 넘은 사찰 대지 187평,종교시설임) 이외 주차공간 넓음
- 법당20평 5년전 신축 불사 하였음 산신각,칠성각,용왕당(9평), 요사채 25평
- 가액 : 2억 2천만원 (꼭 하실분 가격절충)

010-3881-6405

암자(동해)안내
- 위치 : 강원 동해시내 (등대. 바다조망)
- 임야 3,349(대지 400평)포함
- 건물 : 5동,약120평(1동80평신축건물)
- 특징:유명한 약수물 있음.방13개 시내지만 산속같음.경내 차량진입
- 창건:1945년 암자. 소쿠리터
- 가액 : 은행설정. 2억 안고 1억2천

010-4491-5556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 연제구 연산동
- 대지 : 121평, 법당 20평, 삼성각 4평, 용왕당3평
- 호신불당 : 소불600불 봉안
- 공양실 : 15평,종무소,주지실
- 주차장 : 3대 주차
- 창건 : 120년
- 가액 : 4억 2천만원

010-2720-1580

부산 빌딩 사찰
- 위치 : 부산 온천장 최중심지
- 대지 : 54평, 4층 건물 전체 각층 30평, 주차 3대
- 특징 : 버스 30초,지하철 5분
- 근린시설 : 타용도 사용 가능
- 가액 : 6억 8천(현시세 월등) 주인 직접 거래(스님)

010-4583-0539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창원 마산
- 평수 : 약 15평
- 약사불
- 보증금 : 1천만원,월30만원
- 방 2개, 거실, 욕실, 부엌
- 난방 : 도시가스
- 주택 밀집지역 포교 적합
- 시설비 : 백만원

010-8583-3000

암 자 임 대
- 위치 : 진주 시내에 있는 암자
- 임대 금액 : 2,000만원 월세 없음
- 몸만 오시면 됩니다

010-7702-6296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경남 양산 남부시장 옆
- 평수 : 40평
- 법당, 공양간, 요사 완비
- 시장주변,상가밀집지역
- 가액:보증금1000만원 월30만원 시설비3,500만원
- 최고 시설, 몸 만 오시면 됨

010-4709-0108

포교원 시설물 양도
- 위치 : 포교원 시설물 삼존불, 범종, 신중탱, 불구일체 양도 양도가 500만원
- 포교원 인수시 보증금 500만원,월세35만원 인수가 1,000만원

010-8900-3484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거창군 마리면
- 답 1100평 중 대지 300평 법당(대웅전) 25평 요사채 15평 석가모니불
- 기백산 등산로입구 차량 진입가
- 가액 : 1억 7천 5백만원 (은행융자 9천만원)

010-3806-3271

주택안내(토굴하실분)
- 위치 : 경주시 안강읍 옥산서원길
- 대지 380평, 전 290평
- 전통한옥ㄱ형 본채, 별채(2채)
- 약 70평 (부속 건물 포함) 준공일 2012년, 12월
- 가액 : 10억 (답사후 절충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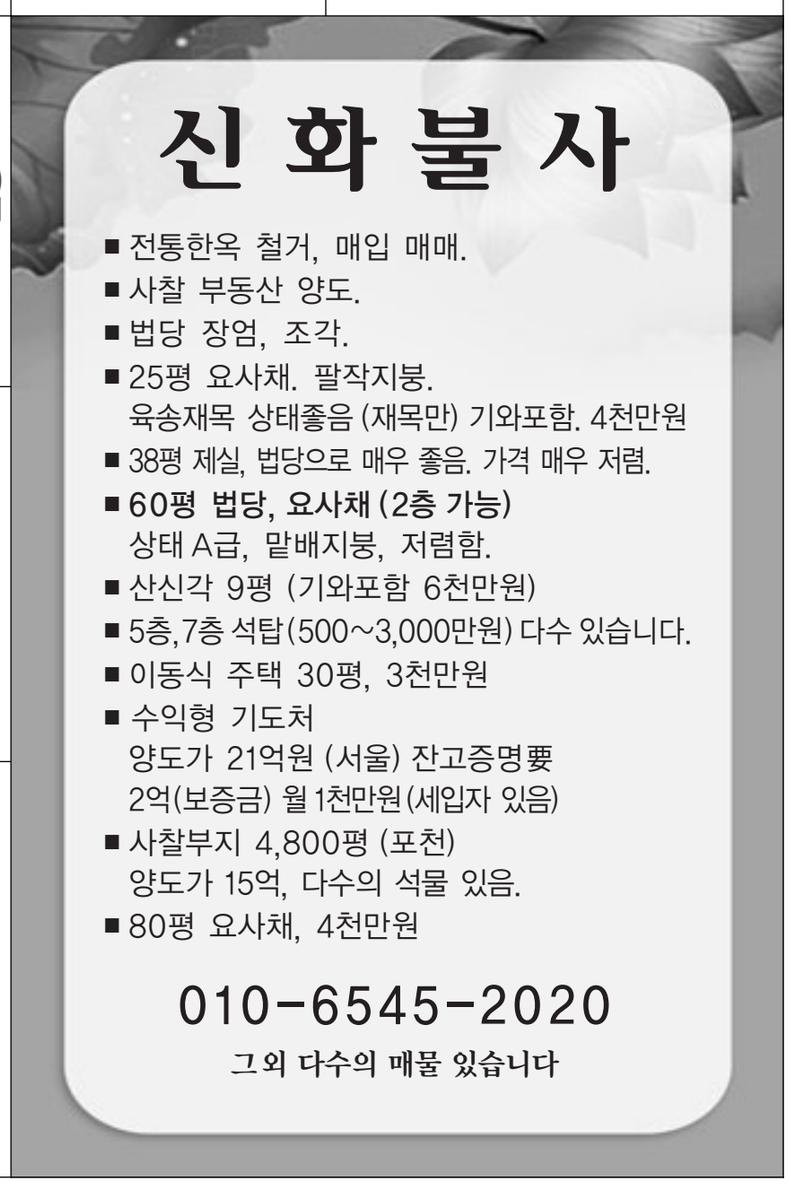
010-7449-2925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부산시 사상구 사상로
- 평수 : 20평, 3층 건물
- 삼존불 조성
- 몸만 오시면 언제든지 법회가능
- 가액 : 전세 1,000만원 월세 45만원 시설비 : 1,000만원

010-3866-5928

사 찰 안 내
- 위치 : 강원 춘천 강가 호수 3분거리
- 법당 : 관세음보살 · 지장보살 · 약왕보살님 · 신중탱화 · 산신탱화 · 용왕탱화 모셔져있음
- 산신각 별도, 텃밭 약간 단독 주택
- 가액 : 2천만원(월세30만원) 시설비1천 2백만원

010-6321-1242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 온천장 최중심지
- 대지 : 54평, 4층 건물 전체 각층 30평, 주차 3대
- 특징 : 버스 30초,지하철 5분
- 근린시설 : 타용도 사용 가능
- 가액 : 6억 8천(현시세 월등) 주인 직접 거래(스님)

010-4583-0539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창원 마산
- 평수 : 약 15평
- 약사불
- 보증금 : 1천만원,월30만원
- 방 2개, 거실, 욕실, 부엌
- 난방 : 도시가스
- 주택 밀집지역 포교 적합
- 시설비 : 백만원

010-8583-3000

암 자 임 대
- 위치 : 진주 시내에 있는 암자
- 임대 금액 : 2,000만원 월세 없음
- 몸만 오시면 됩니다

010-7702-6296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경남 양산 남부시장 옆
- 평수 : 40평
- 법당, 공양간, 요사 완비
- 시장주변,상가밀집지역
- 가액:보증금1000만원 월30만원 시설비3,500만원
- 최고 시설, 몸 만 오시면 됨

010-4709-0108

포교원 시설물 양도
- 위치 : 포교원 시설물 삼존불, 범종, 신중탱, 불구일체 양도 양도가 500만원
- 포교원 인수시 보증금 500만원,월세35만원 인수가 1,000만원

010-8900-3484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거창군 마리면
- 답 1100평 중 대지 300평 법당(대웅전) 25평 요사채 15평 석가모니불
- 기백산 등산로입구 차량 진입가
- 가액 : 1억 7천 5백만원 (은행융자 9천만원)

010-3806-3271

주택안내(토굴하실분)
- 위치 : 경주시 안강읍 옥산서원길
- 대지 380평, 전 290평
- 전통한옥ㄱ형 본채, 별채(2채)
- 약 70평 (부속 건물 포함) 준공일 2012년, 12월
- 가액 : 10억 (답사후 절충가)

010-7449-2925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부산시 사상구 사상로
- 평수 : 20평, 3층 건물
- 삼존불 조성
- 몸만 오시면 언제든지 법회가능
- 가액 : 전세 1,000만원 월세 45만원 시설비 : 1,000만원

010-3866-5928

사 찰 안 내
- 위치 : 강원 춘천 강가 호수 3분거리
- 법당 : 관세음보살 · 지장보살 · 약왕보살님 · 신중탱화 · 산신탱화 · 용왕탱화 모셔져있음
- 산신각 별도, 텃밭 약간 단독 주택
- 가액 : 2천만원(월세30만원) 시설비1천 2백만원

010-6321-1242

日불상도난, 3D프린트 복제로 해결

지속되는 불상 도난에
와카야마 고등학생들 나서
복제품을 대신 절에 두고
원본은 박물관서 관리해

박진형 기자 realjeanp@hyunbul.com

세계적 불상이 많은 만큼, 불상도난이 끊이지 않는 일본에 고등학생들이 3D프린트를 활용해 불상의 도난을 막고있어 화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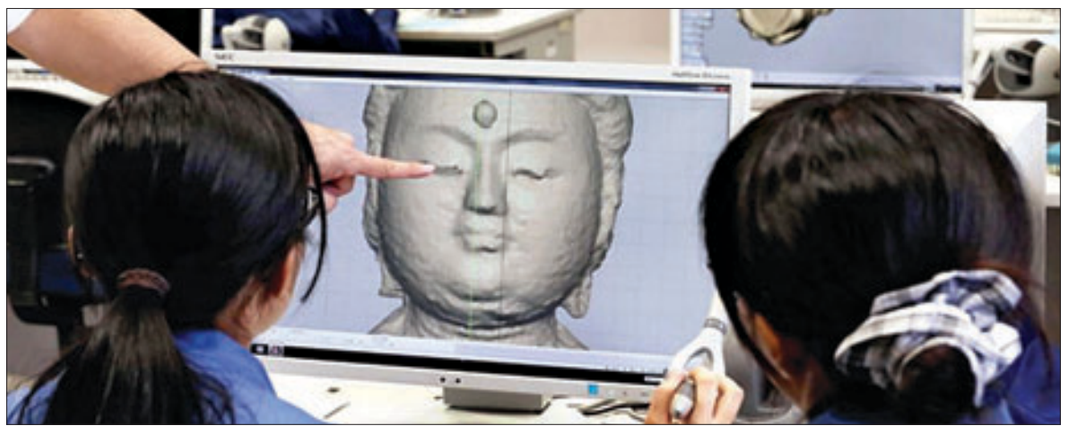
미국 불교 전문지 '라이언스 로어'와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3월 12일 불상 도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불상을 3D복제품으로 만든 7명의 고등학생들에 대해 보도했다. 이 고등학생들은 일본 와카야마 공업고등학교의 산업디자인 코스 학생들로, 사찰의 불상을 3D인쇄로 복제해 만들었다.

학생들은 학교 수업시간에 3D복제품을 만드는 기술을 터득했고, 이를 좋은 일에 쓰고자 이같이 불상을 복제하게 됐다고 전했다. 또한 이를 통해 지역 사찰들은 이 3D인쇄물에 피드백을 주고 있으며, 나아가 이 프로젝트를 위해 투자하고 있다. 현재 사찰에 배치되기로 결정된 조각 복제는 4개다.

학생들의 첫 번째 복제품은 Aizen Myoo로, 6개월에 거쳐 만들어졌으며 2015년에 완성됐다. 이때부터 지금까지 만들어진 복제품은 총 25개다.

'요미우리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 학생은 "이 3D프린트 복제물을 통해 수백년된 불상을 가까이서 볼 수 있어서 좋다. 원본은 멀리서 봐야하는데, 복제물은 가까이서 볼 수 있고 만질수도 있어서 좋다"고 말했다.

2010년부터 2011년 사이 일본 와카야마에서 도난 된 불상은 160건으로 심각한 수준이다. 이에 일본 와카야마 공업



3D프린트로 불상을 복제하고있는 와카야마 공업고등학교 학생들. 사진출처=요미우리 신문

고등학교의 산업디자인 코스 학생들이 불상의 3D 인쇄 복제품을 만들어냈다.

불상 복제는 원본을 3D로 스캔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손가락의 주름처럼 스캔이 잡아내지 못하는 아주 미세한 부분은 주로 학생들이 면밀히 관찰 후 입력한다. 이 과정을 거치면 결합된 데이터가 3D모델을 인쇄한다. 인쇄가 되면 와카야마 대학 교육 학부의 미술학과 학생들은 원본과 일치하도록 그림을 그려 복제를 마무리한다.

2007년과 2009년 사이 일본 문화재청은 역사적 조각품 105점이 절도됐다고 밝혔다. 그 후로, 3D인쇄된 복제본의 관심이 높아져왔다. 사찰들은 3D복제품으로 불상을 대신하고, 원본의 보관을 위해 유지하기 어려운 불상들을 와카야마 현립 박물관에 보관할 수 있다. 이는 원래 조각상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것 외에도 시각적으로 손상을 입은 불상들을 재건하는데도 도움을 준다.

"불상에 앉아 기념사진을?"

한 여성 관광객이 태국 아유타야(Ayuthaya) 역사공원 불상에 올라앉아 포즈를 취해 비난을 받고 있다. 〈아래 사진〉 '방콕포스트' '넥스트 샤크' 등 외신들은 3월 14일 불상에 올라 앉아, 포즈를 취하며 사진을 찍은 여성 관광객에 대해 보도했다. 아유타야는 세계적인 역사 유적이 모인 곳으로, 이 여성 관광객이 올라앉았던 불상 역시 세계 유적이다.

논란은 한 페이스북 페이지에 이 관광객들의 사진이 올라오면서 시작됐다.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관광객은 아유타야의 불상에 앉아 여러 포즈를 취했다. 관리국은 이에 방문객들이 유물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도록 표지판 등을 세워 경각심을 주어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박진형 기자



종교 초월한 동일본대지진 추도

7주기 추모… 일본 종교계 합동기도회



각 종교의 수행자들이 3월 11일 동일본대지진 7주기를 맞아 종교를 초월하는 추도 · 부흥기원 기도회를 진행했다. 사진출처=크리스천 투데이

3월 11일, 동일본대지진 발생 7주기를 맞아 불교 · 그리스도교 · 일본 전통교 신도(神道) 세 종교가 함동으로 추도 · 부흥기원 기도회를 개최했다.

일본 기독교신문 '일본 크리스천 투데이'는 3월 12일 불교, 그리스도교, 신도가 합동으로 동일본대지진 추도 · 부흥기원 기도회가 3월 11일에 열렸다고 보도했다.

이 기도회는 일본 가마쿠라(鎌倉)시의 종교 성직자들이 지진이 발생한 1개월 후인 2011년 4월 11일 첫 번째 합동 기도회를 가진 이래 계속 되고 있다. 희생자들을 추도함과 동시에 종교간의 화합을 위하는 뜻에서 첫 번째 기도회를 일본 고유의 종교인 신도의 사원인 츠루오카 하치만(鶴岡八幡)신사에서 개최, 그 뒤로 불교 사찰과 교회, 성당 등 각 종교시설을 번갈아 개최하고 있다.

합동기도회 매년 지진이 발생하였던 3월 11일에 봉행, 올해는 가마쿠라의 랜드마크인 가마쿠라 대불앞에서 개최했다. 불교에서 65인, 그리스도교 35인, 신도 20인의 총 120명의 성직자들이 각 종교를 대표하여 참석했다. 지진이 발생한 오후 2시 46분 대불을 둘러싼 참가자 전원이 1분간 묵념하는 것을 시작으로 기도회가 진행됐다. 기도는 신도, 그리스도교, 불교의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그리스도교는 가톨릭, 성공회, 개신교회의 세 교단이 합동으로 봉행하였다.

가마쿠라 대불을 모신 코토쿠인의 주지 사토 코유(佐藤孝雄) 스님은 "부흥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고향에 돌아가지 못하는 피해자들도 많다. 수행자로써 이러한 분들의 마음의 의지처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희생자들과 피해자들을 잊어선 안 된다. 또 이러한 행사를 통해 가마쿠라시의 마음이 항상 그분들과 함께 한다는 것을 전하고 싶다"고 메시지를 전했다.

그리스도교에선 일본 성공회 코바야시 유지(小林祐二) 신부는 "각자가 자신의 선한 마음으로 고독한 이들에겐 친구가, 도움을 원하는 이에겐 손을 내미는 이가 되어야 한다. 이 사회가 사랑과 지혜도 더욱 따뜻해질 수 있도록 모두 힘을 모으자"고 설교했다.

기도회장에선 가톨릭교회와 시민봉사단체가 손수 만든 수제 양초를 판매하였다. 양초는 각각 세 종교를 대표하는 기관과 성직자들로부터 기도를 받았고 모든 수입은 동일본 지진 피해자 지원 기금에 기부되었다.

박영빈 객원기자

신행도 SMART시대, '스마트 염주' 출시

휴대폰과 연동해서 사용
염불 · 명상 시간 측정해
전용 어플리케이션으로
계측 시간 관리 가능해



새로 개발된 스마트염주. 전용 어플리케이션으로 신행을 따로 관리할 수 있다. 사진출처=iedge

운동시간, 수면시간을 측정해주고 염불이나 명상을 얼마나 했는지 알 수 있도록 도와주는 '스마트 염주'가 대만에서 출시 예정이다.

일본 IT전문 매체 'iedge'는 3월 8일 "스마트폰과 어플리케이션으로 일상생활을 관리하는 것이 일상화된 현대에 염불도 스마트하게 할 수 있는 스마트 염주가 출시된다"고 보도했다. 출시되는 스마트 염주는 '리프 비즈(Leap Beads)'로 대만의 종합전자기기 회사 'Acer'가 개발하여 3월 하순 대만에서 먼저 출시할 예정이다.

염주는 몸에 착용하여 사용하는 전자기기인 웨어러블 디바이스로 개발되어 전용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과 연동해서 만보기, 수면시간 계측 용도로도 쓸 수 있다. 또 염주의 기능도 충실하여 염불이나 주력을 얼마나 했는지, 명상한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도 계측할 수 있다. 염주알을 돌릴 때마다 센서가 횟수를 감지하여 어플리케이션에 실시간 등록된다. 또 바람소리나 계곡소리와 같은 자연의 소리를 재생하면서 명상할 수 있는 명상모드도 탑재됐다.

염주는 직경 2cm가량의 모주와 1.5cm의 염주 알 13개로 이루어져 가장 큰 모주(母珠, 염주에서 가장 큰 구슬) 안에 충전 배터리와 동작감지센서를 탑재하여 몸에 지니고 다니면서 쓸 수 있게 만들어졌다. 충전은 전용 무선충전기로 2시간동안 완전 충전시 4일간 연속해서 쓸 수 있다.

계측된 시간이나 횟수는 모두 어플리케이션으로 관리 가능한데, 하루 동안의 목표치를 설정하고 이를 충족하게 하는 알람, 염불이나 주력의 종류에 따른 그룹 설정을 통해 효과적으로 자신의 수행을 점검할 수 있게 하였다.

개발사 Acer는 "현재는 신행활동에 중점을 두고 개발하였지만 후에는 지불기능을 탑재, 손쉽게 보시를 하거나, 불교용품점에서의 할인과 적립 같은 현대적인 기능을 추가하는 구상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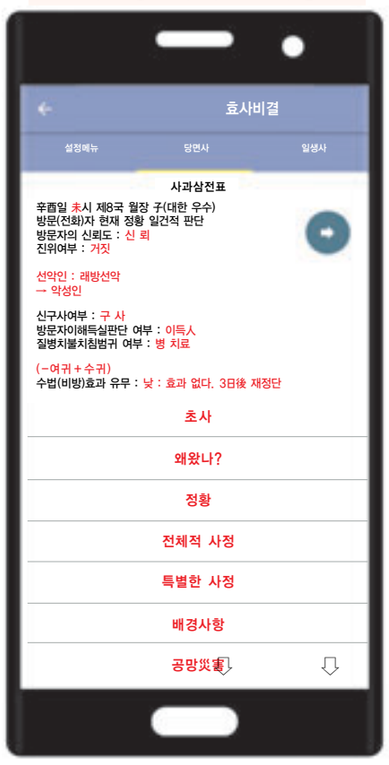
국민의 3분의 1이 불교신자인 대만에서 지금껏 스마트 염주를 표방한 염주가 다수 출시된 바 있지만, 이번 스마트 염주와 같이 전용 어플리케이션까지 개발된 염주는 처음이라 기대를 모으고 있다. 개발사는 "3월 중순 대만 한정으로 판매를 시작하여 개발을 더욱 진행할 것이다. 대만 내 주요 불교단체들과도 연계하여 각 단체에 맞는 모델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예상가격은 3,888 대만달러(한화 약 14만원)이다.

박영빈 객원기자

휴대폰에 육임 CD프로그램
'효사비결 최신완결판'을 담았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사안이든 만나거나 통화하면서 당면사 27개 항목, 일생사 17개 항목을 시원하게 말해줄 수 있습니다.- 물론 정확도 · 효과성 · 신속도 · 간편성이 담보되어 있습니다.

① 육임 당면사 즉단 27개 항목



② 육임 성부판단 24개항목과 12띠별 확정



원터치 기능

- 상대의 공 · 사적 비밀 사항 적시
- 귀신 · 부정 · 산소탈 침범 적시
- 질병 치·불치·오래끔 적시
- 천도 · 시식 · 기도 효과 유무 적시
- 대적자 처신 방침 적시
- 묻는 사항 24개 항목 띠별 성부 적시 등등

- 정 가 : ~~30만원~~ → 20만원 (3월 31일까지 할인)
- 계 좌 : 기업은행 024-086103-04-019 (예금주 : 천기종)
- 설 치 : 입금 확인 후 10분 이내 본인 핸드폰에 설치됨
- 참 고 : 본인 실명으로 개통된 핸드폰
- 전 화 : 주 · 야 010-6400-0939 일과시간 02-738-8685
-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후암로 110 서울시티타워빌딩 22층

사찰 연등 및 전선 법당용, 외곽용



정직과 신뢰의 불자기업
불제 대원안전산업
BULJE DAEWON CO.LTD

구입문의 031-986-0277~8, 02-2266-2634
032-582-6235~6, 02-2263-2638
문의핸드폰 010-3630-7092
http://www.bulje.co.kr 본사 · 공장 :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모산로 17-1

마인드풀니스
조셉 골드스타인

〈1〉 마음의 네 가지 자질들

마음챙김에 필요한 우리의 자세

현대사회에서 '마음챙김'은 보편적인 표현으로 자리 잡았다. 그만큼 각박한 사회 속에서 스스로의 마음을 돌아볼 여유가 없고, 자신이 처한 심리적 상황을 쉽게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 빈번하다는 뜻이다. 하지만 마음챙김이 보편화된 것에 비해 구체적인 방법은 보편화되지 못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마음을 챙길 수 있을까? 존 카밧진, 샤론 짤즈버그와 함께 서양의 대표적 수행자로 손꼽히는 조셉 골드스타인이 마음챙김에 대해 얘기한다. 정리=윤호섭 기자



붓다가 설한 身·受·心·法
마음챙김 위한 4가지 영역
인내심 갖고 잘 보살필 때
깨달음의 길 걸을 수 있다

부지런함

〈염처경〉에서는 마음챙김을 확립하는 네 가지 방법이 해탈에 이르는 직접적인 길이라는 것을 선언하면서, 그 길에 대해 간결하게 정의를 내리고, 그 길의 본질적인 특성에 초점을 맞추어 서술하고 있다. 붓다는 마음챙김을 확립하기 위한 네 가지 영역을 지적하고 있다. 즉 몸(body), 느낌(feeling), 마음(mind), 법(dhammas)이다. 이들 가운데, 또는 이들을 관찰하면서 마음챙김을 확립할 때, 우리는 편안하게 머무를 수 있다. 알아차리지 못하고 마음을 챙기지 못하면 우리는 선하지 못한 대응으로 길을 잃어버리곤 하며 자신과 타인에게 고통을 준다.

네 가지란 무엇인가?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가 몸에 대해서 몸을 관찰하며 머무른다. 부지런하고, 분명히 알고, 마음챙기고, 세상의 욕망과 불만족을 버리면서 머무른다. 느낌에 대해서 느낌을 관찰하며 머무른다. 부지런하고, 분명히 알고, 마음챙기고, 세상의 욕망과 불만족을 버리면서 머무른다. 마음에 대해서 마음을 관찰하며 머무른다. 부지런하고, 분명히 알고, 마음챙기고, 세상의 욕망과 불만족을 버리면서 머무른다. 법에 대해서 법을 관찰하며 머무른다. 부지런하고, 분명히 알고, 마음챙기고, 세상의 욕망과 불만족을 버리면서 머무른다.

이렇게 정의하면서 붓다는 깨달음의 길을 걸어가는 데 필요한 정신적인 자질을 소개한다. 이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부지런해야 하고, 분명히 알아야 하고, 마음을 챙겨야 하고, 이 세상의 욕망과 불만족을 버려야 한다. 부지런해야 한다는 것이 의미하는 바는 그 노력이 균형 잡히고 지속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그 부지런함은 따뜻하고 열정적이면서 강한 열망 또는 헌신을 말하기도 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추구하는 그 무엇의 가치와 중요성을 깨닫고 있기 때문이다. 붓다가 비구 수행승(수행 중인 우리 모두를 포함하여)에게 부지런히 머물러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실 때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우리 자신이 하는 모든 것에 대해 지속적으로 인내심을 갖고 아주 잘 보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부지런함을 계발하는 하나의 방법은 우리가 수행하는 이유를 곰곰이 생각하면서, 붓다가 깨달은 진리가 참으로 소중한 보물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다. 붓다가 깨달은 진리를 제대로 잘 이해하게 되면, 그 진리가 모든 행복의 근원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태국 숲속 수행 전통의 가장 저명한 명상 스승인 아잔 문(Ajahn Mun)은 마음을 이해하는 것은 바로 붓다가 깨달은 진리를 이해하는 것과 같다는 것과 마음에 대한 가장 심오한 진리를 깨닫는 것이 바로 깨달음을 성취하는 것이라는 점을 잘 가르쳐 주고 있다.

분명한 앎

삼빠잔냐는 붓다께서 〈염처경〉의 서두에서 강조한 마음의 두 번째 자질에 해당하는 빨리어를 말한다. 대개 '분명한 앎' '분명한 이해' '완전한 인식'으로 번역된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이해하는 능력이다.

분명한 이해를 함양한다는 것, 내가 행하고 있는 것과 그 이유를 안다는 것은 심원한 변화를 일으키는 수행이다. 이것은 마음챙김이 단순히 현재에 머무름 이상을 의미한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분명히 이해함으로써, 우리는 자신이 행하는 목적과 적합성을 알고, 행동의 바탕에 있는 동기를 이해하게 된다. 종종 우리는 자신이 어떻게 그 자리에 있는지를 알기도 전에, 이미 그 행동의 한가운데 있는 모습을 보곤 한다. 냉장고 앞에서 무엇을 원해서, 어떤 동기로 오게 되었는지를 모르는 체험을 해 본 적이 있는가? 비록 아주 작은 것이라고 하여도 그것을 충분히 알아차리면서 행동하면, 그 행동의 동기를 파악하는 것이 가능하고 다음과 같은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즉 이 동기, 이 행동은 선한가 그렇지 않은가? 또는 유익한가 그렇지 않은가?

붓다 시대에는 숲속에서 함께 모여 사는 소수의 수행자들이 있었다. 붓다께서 그들에게 다가가서 모두들 조화롭게 잘 살고 있는지를 물었다. 붓다의 위대한 제자들 중 한 분인 아누룻다가 말하였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않고 성자들이 원하는 것을 행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수행자들도 같은 질문을 하였다. 자신이 하고 있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면, 명상의 방석 위에 앉아서 단순히 수행하는 것보다 자비로운 삶을 살아갈 가능성이 높아진다.

마음챙김

마음챙김을 가장 일반적으로 말하면 지금 이 순간을 알아차리기, 마음의 현존, 깨어 있기로 이해하는 것이다. 이것은 알아차리지 못하는 마음의 반대이다.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몰라서 헤매고 혼란스러우면, 지금 이 순간 알아차리기로 바로 돌아가면 된다.

언젠가 공개 강연을 하고 난 뒤 여러 차례 안거 수행을 한 적이 있는 여성이 내게 말하였다. 그녀는 최근 크루즈 여행을 했는데, 방에 배의 위치를 알려주는 화살표와 설명이 있는 것을 보고, '내가 여기 있구나' 하는 것을 알았다고 한다. 여행을 하는 동안 내내 이 화살표가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상기시켜 주었다고 하는데, 그것은 단순히 '나는 여기 있어'라는 사실을 알려준 것이다.

이런 점에서 마음챙김이 갖는 의미는 순수한 주의이고, 아무 것에도 간섭받지 않는 알아차림이다. 이런 상태는 음악을 즐길 때 익숙하게 체험하는 현상이다. 음악을 들을 때 마음이 열리고 주의가 집중된다. 다음에 올 것을 미리 조절하려 하지도 않고 금방 지나간 음에 마음을 쓰지도 않는다. 어떻게 들어야 하는가를 배울 때 거기에는 위대한 힘이 있고, 이런 받아들임이야말로 직관적인 지혜가 솟아오르게 하는 바로 그 성질이다. 어떤 기자가 마더 테레사에게 기도할 때 신에게 무엇을 말하는지 물었다. 그녀는 "나는 아무 것도 말하지 않아요. 단지 듣기만 할 뿐입니다"라고 답했다. 그러자 기자는 신이 무엇을 말하는지 다시 물었다. 마더 테레사는 "신은 아무 것도 말하지 않습니다. 단지 듣기만 할 뿐입니다. 이것을 당신이 이해하지 못한다면 더 설명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였다.

집중

붓다는 〈염처경〉에서 마음챙김의 네 가지 영역 또는 토대-몸·느낌·마음·법-를 관찰하면서 "세상의 욕망과 불만족을 버려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욕망과 불만족을 버림'이란 바로 사마디를 말한다. 사마디의 자질은 마음의 집중·평정·통일이며, 마음이 욕망과 불만족을 버릴 때 일어난다.

사마디는 유익한 행동에 바탕을 둔다. 왜냐하면 해를 끼치지 않겠다는 바탕이 없으면 마음은 근심, 후회, 불안으로 가득 차기 때문이다. 나의 첫 스승인 무닌드라-지가 미국을 처음 방문하였을 때, 명상을 하여 깨닫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이런 도덕적 기반에 관심을 덜 쏟는 것을 보고 상당히 놀라워하였다. 그가 말하기를, 이것은 마치 배를 저어 강을 건너려고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강둑에 매인 밧줄을 풀지 않는 것과 같다고 하였다. 그 배는 아무 곳에도 갈 수 없다.

집중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마음챙김을 지속적으로 해야 하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는 하나의 대상을 직접 알아차리면서 집중을 함양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면 호흡, 발자국의 움직임, 소리에 지속적으로 마음을 집중하는 것이다. 둘째는 대상을 선택하지 않고 더 개방적으로 알아차리면서 집중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대상이 변화한다고 하여도 마음을 한 곳에 집중한다. 이것을 '찰나 사마디'라고 부른다. 우리는 이런 두 가지 방법을 슬기롭게 잘 넘나들면서 수행한다.

집중이 수행의 최종 목적은 아니지만, 집중은 깨달음에 이르는 길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붓다는 집중을 존중하는 것이 붓다의 진리인 법을 오래 지속하게 하고, 그 법이 소멸되거나 사라지지 않게 하는 요소들 중의 하나라고 하면서 집중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조셉 골드스타인은

존 카밧진, 샤론 짤즈버그와 함께 서양의 대표적인 수행자로 꼽히는 그는 1965년 컬럼비아대학에서 철학으로 학사학위를 받았다. 촉망 받는 철학자였던 그는 졸업 후 평화봉사단 자원봉사자로 태국에 가서 2년 동안 영어를 가르쳤고, 그곳에서 처음으로 불교 명상에 관심을 갖고 공부했다. 평화봉사단 활동 이후의 7년은 대부분 인도에서 저명한 위빠사나 명상 스승인 아나가리까 무닌드라, 고엥까, 디빠 마 등과 함께 공부하고 수행하였다. 1984년 조셉은 미얀마의 사야도 우 빤디따의 제자가 되었다. 1990년대 초반 들어서면서부터, 저명한 족첸 스승들은 툴쿠 우르겐 린포체와 뇨술 켄 린포체의 지도를 받으며 명상 수행을 했다.

이 글은 깨달음으로 가는 실용적인 마음수행 안내서 〈마인드풀니스〉(도서출판 민족사)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역사이래 가장 탁월한 한국의 민중의술을 복원 해 놓은 책!!!

역사이래 가장 탁월한
한국의 민중의술

신간
제 1편 치병편
제2편 치료술
제3편 모든 질병의 증상, 원인 및 치료법
제4편 수행편

지은이 최태규 | 펴낸곳 배문사 | 412쪽



• 당뇨, 고혈압 에서 간단하게 벗어 나는 법
• 척추, 디스크, 협착증 및 각종질병 에서 벗어나 죽을때까지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법을 자세히 수록해 놓았다.

가액 20,000원 (배송비 포함)
농협 715027-52-064797 (예금주 : 최태규)
구입 054)734-1767
민속죽염 www.msjy.co.kr

민중의술의 특징

① 애초에 병이 나지 않게 한다.
② 의료술이 정말 뛰어나고 완벽하게 낫게 한다. 또한 부작용이 일체 없다.
③ 너무 쉽고 간단 명료하다.(많이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누구나 쉽게 터득할 수 있다.)
④ 돈이 거의 들지 않는다.(면역력을 극대화하므로 자연치유되도록 하여 치료약을 쓰지 않는다.)
⑤ 나이가 들어도 쉽게 늙지 않는다.



철 골 조
사찰신축전문



사찰지붕개량
천년와 기와 지붕개량
공사기간단축(3분의1)
공사금액 목조보다 60%절감

010-3911-1775 / 011-9726-9288



양 지 국 악 사
사찰전통 大법고·법당천도법고·태징·목어





◀ 대북



◀ 태징



◀ 2자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 010-5264-3906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계좌번호 : 농협 221098-52-250376 조남양

대한명인 제14-406호
대고제작
www.yangjikukak.com

길을 묻는 이에게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 대행 스님의 법문 중에서 발췌하여 답변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월드오피스텔 606호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인터넷: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FAX: (031)470-3116



대행 스님

우리가 깨닫는 게 급한 거지 다른 게 급한 게 아닙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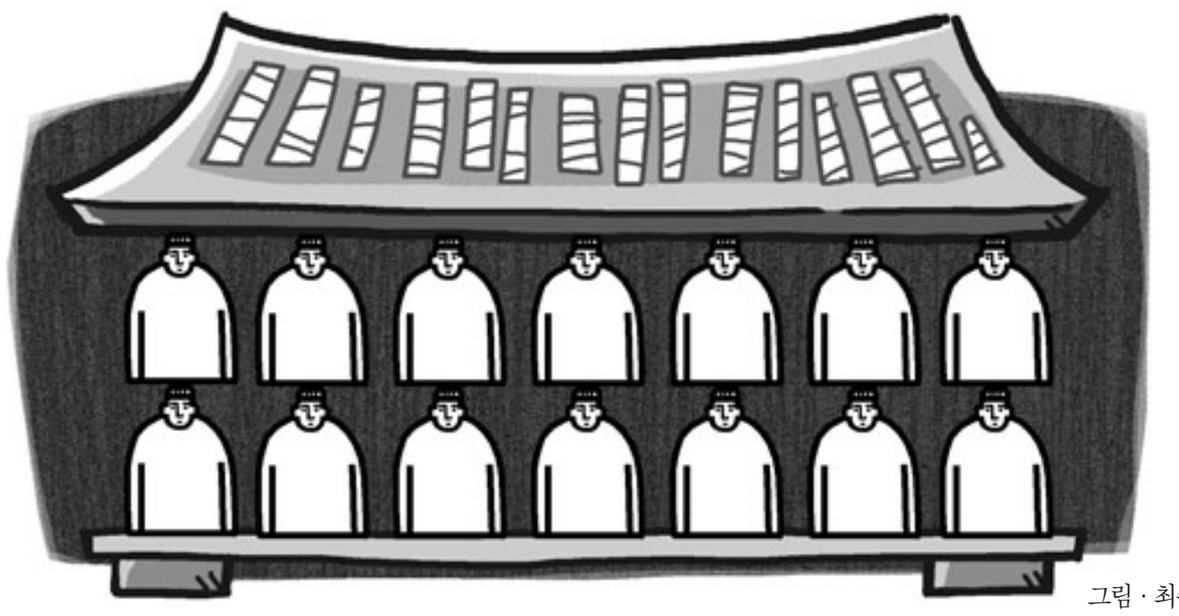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지난 호에 이어서)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길에 디글디글 구르는 해골 무덤을 보고도 삼배를 올렸습니다. 제자들이 "사생자부이신 어버이신데 어찌 해골에다 대고 절을 하십니까?" 하니까 "얘야, 그 말 마라. 과거로부터 끝 간 데 없이 돌아가면서 내 부모가 됐고 내 형제가 됐고 내 자식이 됐고 내 할머니가 됐고 그랬는데 어찌 남이라고 하겠느냐." 그래서 절을 하셨거든. 제자들이 그 소리를 듣고선 거기 엎드려서 "미처 몰랐습니다." 하곤 그냥 울었던 겁니다.

그렇듯이 내 생각에 그렇습니다. 항상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 어머니 아닌 게 없고 내 오빠 아닌 게 없고 내 자식 아닌 게 없고 내 아픔 아닌 게 없습디다. 내가 아파 보니까 너무도 더 잘 알겠어요. 그냥 '아,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한 거보다도 내가 실질적으로 아파 보니까 아하! 야, 눈이 안 보여도 안 되겠고 귀가 안 들려도 안 되겠고 야, 한 손을 못 써도 안 되겠고 허리가 아파서 일어나지 못해도 안 되겠고 다리가 불편해서 못 걸어도 안 되겠고, 그러면 어떤 게 좀 낫고 어떤 게 더하냐 이겁니다. 작든지 크든지 그 사람에 한해서는 그렇게 기가 막힌 괴로움입니다, 그게.

그러니 크고 작은 게 닥쳐올 때 누가 장담합니까? 이 세상에 누가 내일 장담을 하고 삽니까? 다섯 식구든지 열 식구든지 그거는 상관없습니다. 열 식구가 한 식구라면 한마음, 이 속에도 한마음이요, 거죽에도 한마음이야. 좀 더 마음을 넓혀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 하면, '둘' 해도 하나고 '셋' 해도 하나듯이 우리 한 식구가 수십억 마리라도 바로 한마음입니다, 한마음. 그래서 안에서 그렇게 수효가 많아도 한마음이요, 바깥의 그 식구가 열 식구라도 한마음 주인공. 그러니까 '한마음의 주인공' 하면 한 식구의 기둥이 올라가는 겁니다, 기둥! 그래서 "우리 마음을 닦아서 하늘을 받칠 기둥이 되고 또는 한마음을 닦아서 이 세상을 다 한 손에 넣고 내 아픔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자비를 길러라." 이런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불로 심판을 한다는 둥 급하다는 둥 이러죠. 그러나 내가 급하다는 거는 다른 게 급한 게 아니라, 불로 심판을 한다는 뜻이 뭔 줄 아십니까? 그 사람네들이 몰라서 그래요. 불이 나서 불로 심판을 한다는 게 아닙니다. 불은 생명의 근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생명과 나의 마음이 심판을 해야 된다 이 소립니다. 심판! 허허허…. 전생과 이생이 심판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불로 심판을 받는다 이겁니다. 내 전생의 그 영원한 근본과 바로 지금 현생의 나의 마음이 심판을 해서, 즉 말하자면 자기가 잘못한 거는 잘못한 것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얘깁니다. 그런 거지 어디 뭐, 불이 나고 어디 핵이 터져서 그렇게 해서 심판을 받는다는 게 아닙니다. 나부터 알아야 됩니다, 나부터. 또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그래서 예언을 하고, 모르고 말을 그렇게 함부로 한다면 그거는 한데로 떨어지죠. 그러니까 내가 스물두 살 적인가 한 살 적인가, 불로 심판받는다는 게 여직껏이야. 허허허, 여직껏 불로 심판을 하니 급하다고 급하다고…. 급하기는 우리들이 살림살이하면서 우리 마음공부, 깨닫는 게 급한 거지 다른 게 급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핵폭탄이 떨어져서, 즉 말하자면 핵폭탄보다도 더 무서운 수소폭탄이 떨어져서 다 죽는다 하더라도 풀 한 포기만 살아 있어도 그거는 불교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물, 흙, 바람, 불 이거 네 가지가 다 생명이 있는 겁니다. 그 생명이 존재하기 때문에 바로 그게 한데 합쳐져서 우리가 지금 딛고 다니고 살고 있고 먹고 있고, 지금 발바닥에 흙을 묻히고 발바닥을 대고 다니고 공기를 마시고 이러고 삽니다. 그렇게 하고 살면서도 감사한 걸 모릅니다. 자기도 지수화풍이기 때문에 지수화풍을 먹고 사는데 감사함을 못 느낍니까? 바깥의 물에다 감사하라는 게 아닙니다. 나한테 내가 감사하면 바로 그 지수화풍에다 감사하는 겁니다. 복잡하게 살 필요가 없어요. '주인공! 한마음 주인공!' 하면 전체에, 이게 벌써 물에도 감사하고 불에도 감사하고 흙에도 감사하고 바람, 공기에도 감사하는 그 마음이라는 겁니다. 거기에 감사하면 모든 것에 다 감사한 겁니다. 우리 식구들을 참 잘 이끌어서 한 식구를 행복하게 이끌고 나가는 것도 감사한 겁니다. 자기한테 자기가 감사해야지 누구한테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타의에서 구하지 말고 자의에서 구하라 이겁니다. 주처는 자의한테 있지 타의에 있는 게 아니다. 고상을 걸어 놓고 '하느님이시여! 하느님 아버지시여! 주여!' 하고서 아무리 빌어 봐도 타의에서는 받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지옥이 있고 천당이 있는 거를 아예 모릅니다, 모두가. 그러니 우리 이 공부가 얼마나 좋습니까, 실험하고 체험하고. 자기가 아팠을 때 자기가 실험해 봐서 나으면 아하, 요렇게 내가 딸이었을 때는 딸의 행동을 하고 말을 하고 뜻으로 하듯이, 내가 아프니까는 요렇게 요렇게 낫게 하니까 요거는 내가 바로, 내 주인공이 바로 의사가 되고 명을 길게 해 줄 때는 금방 바로 칠성이 되고, 하이고, 얼마나 좋아, 글쎄. 자기한테서 일체 만법이 다 나오는데 뭣 때문에 활발하게 못 살고 뭣 때문에 꼬잘꼬잘하게 바깥에서 구원을 받으려고 노예가 돼서 만날 빌고 그렇게 해야만 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부를 해 보시면 그 뜻을, 내가 말하는 뜻을 알아요. 마음과 마음은 이어짐이 없이 이어지고, 생명과 생명은 이어짐이 없이 같이 공생을 하고 돌아간다. 사람은 독불장군이 없이 높은 게 있으면 얕은 게 있고 얕은 게 있으면 높은 게 있듯이, 회장이 있으면 사장이 있고 사장이 있으면 직원이 있고 그렇게 해서 다 돌아가면서 산다. 사장은 직원이 없어도 못 살고 또 직원은 사장이 없어도 못 사니, 이거는 모든 게 평등하게 같이 돌아가니 딴 남이 어디 있으며 딴 집이 어디 있으며 바로 우리의 한도량이 아니냐 이거죠.

그러니 내가 잘못해 놓고는 떠억 부처님한테 가서 빌거나 내가 잘못해 놓고선 고해 성사 한다고 가 가지고는 "신부님! 내가 이렇고 저렇고 이렇고 저렇고 했는데 사해 주시오." 해도 그건 소용없어. 자기가 스스로 잘못된 줄 알고 그걸 뉘우치면 그때부터 없는 거야. 죄 붙을 자리가 없는 거야, 마음은. 마음은 체가 없어서 붙을 자리도 없고, 죄 붙을 자리도 없고, 병 붙을 자리도 없고, 명 짧다 길다 이러는 것도 붙을 자리가 없어. 그러니 무상이지. 부서지고 변하고 죽고 살고 생사윤회 이런 것이 그냥그냥 얽매여서 돌아가는데. 그뿐인가. 사람이 살아가면서 인과로써 업보를 지어 가지고선 윤회성이나 또는 인과성 영계성 세균성 업보성으로 이 고에 그냥 휘달려서 넘어가죠, 뭐.

그러니 이 도리를 배우라고 내가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도 몰랐을 때의 나와 똑같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모른다고 해서 내가 답답하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은 바로 내가 여러분처럼 몰랐을 때의 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 나는 여러분보다 더 잘 아니까 내가 높다 이렇게 한 번도 생각해 본 예가 없습니다. 내가 알면 언제 적부터 그렇게 내내 알았겠습니까? 고생을 하면서 산길을 걸어가면서 골짜기를 넘어가면서 밥을 굶어 가면서, 손을 빗을 삼아서, 고운 모래를 칫솔 삼아서 이렇게 홑옷을 입고 저 얼음을 깨트려서 그거를 맹물에다 비벼서 그냥 찬 거를 입고 말리고 이렇게 해 가면서 그것을 실험한 겁니다. 이렇게 안이하게 있으면서 이 도리를 안 게 아닙니다. 알고 보니까 '이렇게 피눈물 나오는 이 고(苦) 속에서 이렇게 모르고 살아야 하나.' 하는 생각이 너무나 뼈저리게 아픔을 가져왔습니다.

내가 몸을 가진 여러분과 똑같은 이 몸이라 때에 따라서는 아프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그렇기도 하겠죠. 잠깐잠깐 아픈데도 그러니 여러분이 누가 그렇게 아파서 애쓸 때 세상에, 그걸 짐작이나 하겠습니까? 그거를 어디다가 다 말을 합니까? 그러니 늙었다고 안 하고 젊었다고 안 하고 학교 다닌다고 안 하고 장사 다닌다고 안 하고, 어이구, 이거 참! 하하. 그러고 언제 어느 때…, 죽을 날도 없겠네요. 하하하…. 그러나 속수무책입니다. 쓰러질 땐 그냥 속수무책이에요. "여보! 나하고 같이 갑시다." 그러니까 "당신 가는데 내가 어찌 대신 가 주겠소?" 하더랍니다, 네? 그렇게 사랑을 했건만. 하하하…. 그러니까 이 실험하는 것도 여러분 혼자입니다. 아파도 그렇고, 여러분이 다는 모릅니다. 살아가면서 보십시오. 지금도 그렇습니다. 자식한테 할 말 다 하고 삽니까? 부부지간에 할 말 다 하고 삽니까? 그저 속 안 썩이려고 말 안 하는 것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화낼까 봐 말 안 하는 것도 있고 내가 몸이 아파서만 아픈 게 아니라 쓰라린 그 모든 일들을 어떻게 다 말을 하고 삽니까? 그러니 나를 끌고 다니는 내 주인공을 믿어야 그래도 거기다 의지를 하고 살죠. 네? 내가 죽어서 가도 같이 갈 수 있는

☞ A18면으로 계속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대행큰스님의 법음 法音

제자들과 나눈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
'삶이 곧 불법' 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 시대의 참말씀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둘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主人空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 본문 중에서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www.hyunbulshop.com

마음을 밝히는 가르침

대행스님 법훈록 그냥 무조건이야

양장본 / 211쪽 / 값 11,000원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6길 36, 606호 **현대불교 현불샵**

모든 일이 닥쳐오는 대로 커버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 A17면에서 계속

거는 바로 내 영혼, 나 자체입니다.

내가 지금 여러분한테 귀중한 말을 했습니다. 내가 마음먹었던 대로 과거의 인과 인업으로 인해서 여기에 뭉쳐 있는 대로 나오면 상관하지 마라. 거기에 자꾸 말리지 마라. 그럴 적마다 거기다 맡겨 놓곤 거기에 말려들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바깥에서 들어오는 것도. 왜냐? 죽어서 사대가 흩어지면 모두가 이게 구름이 헤어지듯이 분화돼서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이렇게 나갑니다. 수효가 그렇게 많아요. 한생각이 잘못되면 그렇게 만 가지 생각이 틀려 넘어가듯, 염주알 하나가 빠지면 죄 주루루루 빠지듯이. 우리 부처님 법이 부처님 법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법이, 바로 여러분이 부처님이고 그 배 속에는 중생들이기 때문에 부처님 법이 바로 중생들 법이요, 중생들 법이 바로 부처님 법이다 이겁니다.

우리는 그 법을 배우기 위해서 방편으로 부처님을 저렇게 조성해서 앉혀 놓은 겁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한마음으로 저기도 다 응시하고 있습니다. 돌 하나도 신이 없는 게 없습니다. 돌도 생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마음을 한데 모아서 벌써 조성해서 모셔 놓고 봉불식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어찌 거기 마음이 없겠습니까. 우리들의 마음이 거기 한데 합쳐서 지금 있죠. 그러니 부처님이죠. 여러분이 계시니까 저기 계시고, 저기 계시니까 여러분이 계신 겁니다. 그것도 모두가 둘이 아니죠.

그러니 여러분이 변소간에 가만히 앉아서 똥을 누면서도 조용히 생각을 해 보시면 그게 얼마나, 부처님 따라다니면서 절을 108배씩 하는 것보다도 한생각이 중요하다 이겁니다. 그걸 배우기 위해서 이 도량에는 그래도 스님네들이 공부할 수 있고, 공부해 나가고 있고 공부한 스님네들 그 마음들이 지금 울립을 하고 있고, 여러분의 마음들이 여기 직결돼 있기 때문에 한마음의 신이, 여기 지금 부처님들이 가득 차 계시니 여러분이 마음 한생각 내서 여기 왔다 가셔도 전기가 충전이 되듯이 바로 충전이 된다 이 소립니다. 누가 말을 해 주고 안 해 주고 그걸 떠나서 여기 와서 정성을 들이고 가시면, 어디가 어떻든지 하나를 원을 세워서 내가 다니면, 그거 하나 해결하고 또 해결하고 배우고 이렇게 하면서 그런다면 아, 길을 가다가 한생각을 해도 그냥 법이 돼 버리는 겁니다.

나는 여직껏 얘기했으니 인제 질문하세요. 아주 알래스카에서 오늘 뿌리를 뺄 테니까. 하하하…. 질문하세요. 우리가 그냥 보통 웃을 일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하나 하루하루 한 시간 한 시간 이렇게 살아나가는 이것이 바로 마음에서 모두 나오는데 우리가 앞으로 정말이지 빛나는 별성이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저 아래 그냥 하천세계에 떨어지느냐에 우리도 있는 겁니다. 없는 게 아닙니다. 또 부모의 은공을 갚느냐 못 갚느냐, 자식들의 그 뿌리를 빛나게 이어 주느냐 못 이어 주느냐 이것도 있고, 여러 가지, 또 내 배 속에 들어 있는 중생을 제도를 해서 전부 보살을 만드느냐 안 만드느냐 이것도 문제가 있고, 그러면 내 몸을 건강하게 죽을 때까지 가지고 있다가 죽느냐, 내 집을 잘 보관하느냐 못하느냐 여기에도 있고, 또 우리 식구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모든 일이 닥쳐오는 대로 그걸 커버를 해서 해 나갈 수 있는 여러분의 능력을 기르는 데에 이게 문제가 있는 건데, 여러분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거짓말이나 한다면 모르겠는데 거짓말은 할 수도 없고 내가 거짓말을 하다가, 아니, 내가 바른 말 하기도 이렇게 바빠서 죽겠는데 거짓말을 하러 왜 돈을 버리고 다닙니까?

사실 알래스카에는요, 다른 데서는 차표를 사서 보내기도 하고 그럽니다만 여기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왜? 여기는 다 알고 있기 때문이죠. 하기야 다른 데는 모르나요? 하지만 그것이 그렇게 되면 나는 나대로 또 합니다. 만약에 중이 어떠한 물질적인 거를 바친다면 그거는 중이 못 됩니다. 그 참 대승보다도, 하여튼 인간도 못 됐다고 볼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내가 내 칭찬 하는 게 아니라, 중은 그대로 중이에요. 희지도 않고 검지도 않고 그대로 중입니다. 많이 가져서 뭘 합니까? 벗어날 때에는 내 집도 버려야 되는 이런 입장인데 다른 거 가지고 있는 것에 애착을 둔다면 내 집 벗어 버릴 때는 어떡합니까? 만약에 내 집 벗어 버릴 때 내가 시름시름 몹시 앓고 그냥 줄줄이 여러 해를 앓고 그런다면 그건 애착이 그렇게 많아서, 착이 붙어서 그런 거거든. 살 때에 신나게 살고 활발하고 건강하게 살다가 갈 때는 그냥 훌렁 벗어 버리고 가야 돼. 뭐, 두말할 거 없이.

그래서 훌렁 벗어 버리고 자식들도 속 안 썩이고 또 주위에도 미움 사지 않고, 구구하지 않고. 어떻게 이루 그걸 다 말을 하리까? 섭섭한 것도 많을 테고, 하하하. 그러니까 훌렁 그냥 벗어 버리고 다시 그림을 그려서 내가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그러란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공부해서 나온 사람들이 그래도 장관 해먹고 대통령 해먹고 다 해먹습디다. 부모가 또 그렇게 밀어서 정성을 지극히 해서 대통령 하는 수도 많고. 그러니까 이 공부들 열심히 하십시오. 자기가 해 놓은 거는 누가 뺏어 갈 수도 없고 헛된 게 아닙니다. 그저 일을 하시다가도 헛되게 그냥 보내지 마시고 일하면서 생각하시는 거야 마음대로 아니겠습니까? 돈이 드니 걱정입니까? 아, 몸으로 일하면서 돈 벌면서 생각을 좀 하시라 이겁니다. 생각하는 것도 돈 내고 생각합니까? 시간이 걸립니까? 시간을 잡아먹습니까? 일하면서 생각하라는데.

어떤 사람은 예전에 그랬어요. 그걸 아주 한탄을 하더군요. 그냥 아들이 나가서 어떻게나 노름만 하고 그러는지 얼마나 미웠겠소. 벌이는 안 하고 그러니까는 얼마나 미웠으면 "이놈의 새끼, 나가서 급살이나 맞아라.", "이놈의 새끼, 염병이나 걸려서 죽어라." 이러곤, 예전에는 아마 그렇게 욕을 지독하게 하는 분이 많이 있었죠. 그러곤 했는데 정말 염병에 걸려서 죽었거든, 그 아들 하나 있는 게. 그것이 남의 탓을 해서 그렇다고. 그 아들 탓을 하는 거지. 자기가 그렇게 지어서 나온 업보인데, 자기 업보 생각을 안 하고 전부 아들 탓을 한 거야. 그래서 하도 울고 있으니까, 어느 절의 스님이 가시면서 그 아들을 극락세계로 가게 축원을 해 주시면서 그 어머니더러 이렇게 말했거든. 보살님이 이 세상에 나오기 전에 그렇게 해서 남의 돈을 다 없애고 남을 못살게 하고 계집까지 팔아먹고 하여튼 있는 거 없는 거 부모 속은 다 썩이고, 당신이 예전에 그렇게 했다 이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그대로 보라고. 그게, 저 애가 바로 당신이라고. 그런데 누구 탓을 하느냐고. 당신이 업이 많아서 그랬는데 그 아들이 인제 원수를 다 갚았으니까 갔다 이거야. 갔는데 조금이라도 더 살고 그게 업보가 다 지나면 아들이 그렇게 안 할 때가 돼 가는데 당신이 욕을 하도 해서 그게 그렇게 됐다 이거지. 그랬으니 당신이 죽이고서 당신이 왜 우느냐 그러더랍니다.

그러니까 알래스카의 여러분도, 여기 오시는 분들만이라도 참 그렇게 해서 가정이 모두 화목하게 해 나갈 수 있고 실험을 통해서 그걸 아시고 나가신다면 차차차차 알래스카도 생각하는 대로…. 내가 지난번에도 그랬어요. 야! 불이 번지듯 이거 번져지면 다 죽이고도 이게, 불이 딴 데로 번져지면 싸움이 세계로 벌어져. 그러니 여러분이 한마음 내서 그저 불을 끄자! 이라크 문제 말입니다. "불을 끄자!" 그랬습니다. 그러면서도 난 미운 생각이 없었는데 이번에 그 기름을 말입니다, 물에다 넣어서 새든 물고기든 다 죽여서 요렇게 양당하게 나오는 걸 보니까 아예 "그런 빌어먹을 놈의 새끼!" 하하하. 내가 처음 그렇게 욕을 했습니다. "빌어먹을 놈의 새끼!" 이러면서 "그게 페만이 아니라 패망이다" 그랬다고.

그러니 어떠한, 세계적으로도 나라적으로도 무슨 일이 있거나 이래도 우리가 한마음을 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것뿐이 아니죠, 뭐. 그러니까 여러분이 인제는 제가 오면 질문도 하시고 앞으로는 이 공부 열심히 하셔야 될 겁니다. 요 법회 오실 때만 말입니다, 그렇게 하시라 이거예요. 열 일을 제치고. 이건 내 일이니까, 내 가정의 일이고 그러니까. 그저 그냥 헤에 그러지 마시고요. 그저 집에서 절을 하고 그냥 '하느님 아버지시여!' 그러면서 빌지 말고, '부처님이시여!' 빌지 말고, 나부터 알아야 됩니다. 나부터 깨달아야, 바로 자성 부처를 깨달아야 일체 부처를 안다 이 소립니다.

알래스카에도 우리 회장님으로부터 여러분이 정말 똑똑하신데 허, 이거를 누가 한 번이라도 당겨서 이렇게 영 해 보지 않아서, 발바투 들어서지 않으셔서 그러신 거예요, 모두가. 아, 저 애들 얼마나 점잖습니까? 그 왠 줄 아십니까? 전생에서 나올 때 자기가 짊어지고 나온 걸 하나하나 끌어 주니까 그렇습니다. 팔자 운명 뭐, 누가 이 등에다 붙였습니까? 그러니까 내 마음으로 해서 운명이라는 거, 팔자라는 거를 그냥 모든 거를 아주, 그 이름조차, 언어조차 그냥 탁 벗어 버리시라 이거죠. 쪼끔만 저거 하면 "아이구, 내 팔자야. 나는 남한테 그렇게 몹쓸 일은 안 했는데 내가 왜 이래요? 왜 이럭하고 살아야만 하지?" 이러죠. 그런데 과거를 못 보시걸랑 현실을 보십시오. 그럼 됩니다. 자기가 한 것대로 현실에 나오는 거니까요. 앞으로는 지금 해 나가시는 것이 오는 거고.

신도(여)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편해집니다.

큰스님 예, 편안하시죠. 네, 거기 그냥 다 놓고 사세요.

신도(여) 예, 마음이 참 많이 편안해졌어요.

큰스님 두꺼비가요, 어떻게 착이 많은지 두꺼비 모습으로, 그 모습으로 나왔으니 그 모습으로 살아야지 어떡합니까? 사람이 너무 그래서 두꺼비가 됐는데 두꺼비가 돼 가지고 하루는 눈을 꿈벅꿈벅하고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딴 두꺼비들은 뱀한테 가서 물려 잡아먹혀야 자기 두꺼비가 여러 개가 나오는데, 그래도 이 두꺼비는 사람으로 살던 의식이 있어. 그래서 '야!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내가 이 몸뚱이 그냥 나 한 몸, 나 하나로서 족하지, 내가 내 한 몸뚱이로 족하게 없어져야지, 내가 또 여러 명을 저거 해 놓으면 내 발목이 붙들어매지고 내가 또 여러 개가 되면 큰일이구나.' 싶더랍니다. 그래서 딴 두꺼비는 큰 구렁이한테 가서 자꾸 성가시게 해서 덥썩 물려서 먹게 만들거든요. 그러면 그 구렁이가 아주 뼈끝마다 그냥 두꺼비가 되죠. 그러니까 자기를 많이 만들려고 그러는 겁니다, 인제. 그런 바보 같은 두꺼비 좀 보세요, 글쎄. 그래도 사람으로 됐다가 두꺼비가 된 놈은 아무리 잘못해서 두꺼비가 됐더라도 그 의식이 좀 남아 있으니까 '내가 이래선 안 되지.' 그러곤 돌 틈으로 들어갔단 말입니다. 돌 틈으로 들어가서 도를 닦는 겁니다. 풀이파리나 이슬을 받아먹으면서 영 살생을 하지 않으면서 그냥 돌 틈에 들어가서 도를 닦아서 사람으로 환생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으로 환생을 했어도 두꺼비로 살던 그 의식이 생기면, 여기서 일어나면 그저 모자라는 그런 마음을 부처님한테 가서도 닦으면서 그 뜻을 알아서 항상 한생각을 내서, 딴 두꺼비를 보더라도 자기 전생을 아니까, "야, 너도 나같이 그렇게 하지 말고 너도 어서어서 그 뜻을 알아서 모습을 벗어라. 여자의 모습을 가졌으면 여자의 행동을 해야 하고 남자의 모습을 가졌으면 남자의 행동을 하고 독사의 모습을 가졌으면 독사 노릇을 해야 한다. 두꺼비 모습을 가졌으면 두꺼비 노릇을 해야 하니 어쩌겠느냐?" 아무리 부처님께서 이 삼라만상에 비를 내려 주신다 하더라도 착한 사람이 그 빗물을 먹으면 아주 좋은 피가 되고 약이 되지마는 독사가 먹으면 독약이 된다 이거죠. 똑같은 물인데도 그렇게 다르다 이거죠. 강도가 칼을 들면 사람을 해치게 되고 의사가 칼을 들면 사람을 살리게 돼. 그러니 모든 게 이게 사람 사는 것이 부처님 법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그걸 깨닫고 마음을 닦아서 우리가 우리 살리는 거지 누가 살려 달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공부해 놓으시면 그대의 이세들도 여러분의 전통과 핏줄을 모두가 다 그렇게 이어서 나가게끔 돼 있고 끌 간 데 없이 고에서 벗어나실 겁니다.

그럼 오늘은 이것으로써 마치겠습니다.

**우리 부처님 법이 부처님 법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법이,
바로 여러분이 부처님이고 그 배 속에는 중생들이기 때문에
부처님 법이 바로 중생들 법이요, 중생들 법이 바로 부처님 법입니다.**

※위 법문은 1991년 3월 2일 알래스카 지원 법회에서 설법하신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 hanmaum.org)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만트라 염불소리치료 명상 센타
기에너지 음악치료 명상
무료공개 강좌 : 매월 셋째주 일요일 낮 12시

미래의 대체의학인 기공(밀교의 의성신 · 금강신)을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닦아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이롭게 하고 제도하는데 원력을 세워서 수행 정진 하실 분

■ 입 문 : 초보 입문자의 기맥을 직접 열어주고 발공능력까지 갖추는데 3~6개월(주1회 특별수련)
■ 고 급 : 개인의 기공능력을 아무 부작용 없이(주화 입마, 상기병 등등) 키워나가면서 단기간에 최고의 경지에 이르고자 하는 분(비법 전수)
■ 특 징 : 제6차크라(제3의 눈 · 뇌의핵심〈송과체〉· 인당)가 단기간에 몸이 바뀌면서 온 몸에 신경세포가 전부 살아 움직이고(피부호흡) 머리에서 부터 발끝까지 온 몸에 24시간 강력한 전류가 흐르며(기에너지체) 고요하고 편안한, 몸이 완전히 이완된 상태에서 부작용 없이 자연스럽게 뚫리고 열려 나감

■ 개인지도(면접 상담 후 결정) ■ 등록번호 : 138-50-00260
■ 문 의 : ☎ 02-393-8027 (기공치료 예약 접수)

제6차크라 열리기 전·후 비교사진


2015년 8월 4일


2017년 1월 9일

※ 페이스북에서 'Sung Ho Park'(처명선광) 검색

기공치료 명상가 처명(선광) 스님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선학과 응용선학 박사과정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 졸업
•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 남부 구치소 교정위원, 前 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만트라 염불소리치료 명상 연구소 (소장 : 처 명)

사찰신도관리프로그램
"번거로운 설치없이 이용가입 후 바로 사용 가능"
동종업계 최저 가격
최초 가입시 1개월 무료 사용
➔ 월사용료 : 기본 19,800원
설치비 없음, 세팅비 전액무료
"이용 사찰의 프로그램 만족도 우수"


연등표 출력 인등표 출력 위패 출력 문자발송 기부금 영수증 사주팔자

부가서비스
■ 원격지원 – 해당 사찰의 컴퓨터를 원격으로 제어하여 실시간 프로그램 설명 및 오류 수정
■ 적립포인트 제도 시행 – 접속률, 이용후기작성, 사용료 3% 등 최대 22,000P 제공
■ 축원문출력, 삼재관리, 회계관리, 우편라벨 출력, 신도생일 및 신도영가 기일 자동 표시 / 물품관리, 전국 날씨정보, 메모장, 일정관리, 등록된 모든 자료 파일 다운로드 가능

NAVER 지엠소프트
대표전화 070-7633-2525 / 010-8588-2525
상담문의 : 평일 09:30 ~ 17:30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휴무
홈페이지 http://www.gmst.co.kr

빙의(귀신들림) 치유 상담 환영 !!
몸 안에 들어온 영가 빼내는(천도) 전국 최고의 실력으로 보답합니다!!

각종 빙의의 구체적 증상
• 사람이 갑자기 어느 싯점부터 이상 행동하는 경우. (폭력적으로 변한 경우, 술을 갑자기 많이 먹는 경우, 술 먹으면 눈빛이 바뀌는 경우, 밥을 끊임없이 많이 먹는 경우 등)
• 잠잘적마다 많은 꿈에 시달리는 경우, 잠잘적마다 가위눌리는 경우.
• 불면증 심하거나 자면서 비명 지르고 헛소리, 중얼거림이 심한 경우.
• 어느 싯점부터 사람이 의욕이 없고 우울해지고, 몸이 마르고, 몸이 천근 만근 무거우나 병원에선 특별한 이상이 없는 경우.
• 환청, 환각 증세가 심한 경우.
• 희귀병 투병중인 경우.
• 불안, 공포, 무서움증이 심한 경우.
• 알 수 없는 머리 두통, 가슴 통증, 배아픔 등이 있는 경우.
• 중,고등학생이 갑자기 이상행동, 폭력적행동, 학습능력 저하, 자살 충동 일으키는 경우.
• 장례식장, 상가집, 국내 외 여행 다녀온 후 몸과 마음에 이상 증세 있는 경우.
• 동물령, 식물령도 천도 가능함.

[꼭 천도해줘야 할 영가]
• 자살(음독,목매어,투신)했거나 원한이 많은 상태로 죽은 경우.
• 갑작스런사고, 병고, 심장마비로 죽은 경우.

상담해법 문제해결 중심으로 상담 : 빙의치유 전문자격 갖춤
■ 차후 지속 관리해 드림
■ 원격 치유 가능 (외국에 있는 분도 치유 가능)

상담 문의처 | 제주불교금강선원 (빙의치유영가천도전문상담원)
☎ 064)746-0789
오시는길 : 제주시 삼무로 47, 3층(연동) 삼무공원버스 정류장 하차하여 바로

| 현불 논단 |

한반도 훈풍 지속하기 위해선…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文 평화 우선 한반도 정책과
美·北 '이익의 조화점' 찾은 건
평창동계올림픽 계기점 작용

4월末 남북정상회담 기대 높아
지속가능한 평화 가능성 커져
한반도 비핵화, 북한 결단 중요

북한, 화해 구축 속도내는 상황
합의불이행 악순환 고리 끊어야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한반도에 훈풍이 불고 있다.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IOC)위원장이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를 발표하면서 "올림픽은 다리를 놓을 뿐 결코 벽을 세우지 않는다"고 하면서 "평창올림픽은 한반도의 더 밝은 미래를 여는 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의 예측대로 남과 북이 4월 말 남북정상회담을 판문점 평화의 집에 갖기로 한 데 이어 5월에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북미정상회담을 추진하기로 함으로써 '올림픽 휴전'에 따른 일시적 평화가 지속가능한 평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평화 우선의 한반도 정책, 트럼프 대통령의 최대의 압박 정책, 김정은 위원장의 경제·핵 병진정책 사이에서 '이익의 조화점'을 찾게 한 것은 평창동계올림픽이다. 문재인 정부는 '올림픽 휴전' 개념을 적용하여 한미연합군사훈련 연기를 검토했고, 이에 화답하듯 김정은 위원장이 남북 대화를 제의하면서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 남북군사당국회담과 각 분야 회담 개최 등 '1·9 합의'가 만들어졌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제재와 압박의 결과로 남북대화가 이뤄졌다고 자평하면서 남북대화를 100% 지지한다고 밝혔다.

평창올림픽 기간 동안 충분한 의사소통이 이뤄진 이후 곧바로 이뤄진 남측 특사단과 김정은 위원장과의 면담에서 3차 남북정상회담 개최, 정상 간 핫라인 설치, 비핵화의지 확인, 북미대화 용의 표명, 전략도발 중단, 태권도 시범단과 예술단 초청 등 6개항의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로써 남북관계 복원이 빨라지고 비핵화를 목표로 한 북미대화도 가능해졌다.

남과 북이 예상보다 빨리 4월 말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하고 군사적 긴장 완화와 긴밀한 협의를 위해 정상 간 핫라인을 설치하기로 함으로써 전쟁위기로 치닫던 한반도 위기를 해소할 수 있는 돌파구를 열었다.

북한이 수령 중심의 유일체제(수령체제)를 운영하고 있어 최고 지도자와 담판하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다. 남과 북이 정상간 상시 소통창구로 핫라인 설치와 정상회담 개최를 합의함으로써 북 핵위기 해소와 남북관계 개선을 추진할 열쇠를 찾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북미정상회담을 추진하게 된 배경에는 북한이 비핵화 대화를 추진할 수 있다는 쪽으로 입장 변화를 보였기 때문이다. 북미정상회담이 성사되려면 비핵화에 이르는 방법론의 차이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찾아야 한다.

핵무력 완성을 선언한 북한은 지금까지 개발해 놓은 핵은 대미 전쟁억제력으로 두고, 2차 공격 능력을 갖기 위한 대량생산 등 미래의 핵을 동결하려는 '부분 인정 부분 동결' 협상을 꿈꾸는 지도 모른다. 트럼프 대통령은 동결협상을 반대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 차례 동결합의를 했다가 파기한 과거경험을 더 이상 반복하지 않겠다는 것과 비핵화가 실현될 때까지 '최대의 압박정책'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북한은 제재와 대화는 양립할 수 없다고 반발해 왔다. 따라서 북미정상회담을 통해서 비핵평화 프로세스를 만들어내려면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결단이 전제돼야 할 것이다.

북한은 통일을 위한 화해협력의 궤도에 단번에 진입하는 것이 최고지도자의 뜻이라며 속도전으로 나오고 있다. 하지만 지속가능한 평화협력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선 이전의 반복된 합의 불이행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社說

제주4.3, 범불교적 연구·추모 시급

제주 4.3항쟁이 올해로 70주년을 맞는다. 이에 맞춰 제주 4.3항쟁 당시 제주불교계의 구체적인 피해 사례를 조명하는 학술대회가 3월 14일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주최로 열렸다.

이날 학술대회에서 제주불교 전문가인 한금순 제주도 문화재위원은 제주4.3항쟁기 제주불교의 수난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들을 발표해 눈길을 끌었다.

한 위원에 따르면 제주 4.3항쟁 당시 승려 피해는 14개 사찰 소속 승려 16명으로, 총살 10명, 수장 2명, 고문 후유증 사망 1명, 일본으로 도피 1명, 행방불명 2명이다. 피해자 대부분이 근대 제주불교 활동을 주도한 스님들로 이들이 희생되면서 제주불교 활동 전반에 큰 손실이 발생했다.

재산 피해도 막대했다. 당시 피해 입은 사찰은 37개소로 전소된 곳만 18곳이다. 전소시킨 후에는 토벌대 주둔소로 활용하거나 면사무소로 사용되기도 했다.

제주도민들에게 제주 4.3항쟁은 아프지만 아프다고 이야기 할 수 없는 상처였다. 연좌제로 인해 폭도로 구분됐던 사람들은 자신들이 피해자임을 밝힐 수 없던 시절이 매우 길었기 때문이다.

그나마 제주 4.3항쟁을 다시 이야기할 수 있게 된 것은 지난 노무현 정부에 와서 가능했고, 이제는 자신의 가족이 피해자임을 알릴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불교는 피해를 입었어도 피해를 입었다고 말하지 않고 있다. 민중들을 위해 희생했지만, 후학들의 무지로 그들을 방치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는 그들을 잘 기억해야 한다. 그래야 그들의 사상과 유훈을 이어나갈 수 있다. 잘 기억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연구가 필요하다. 제주 4.3항쟁에 대한 불교계의 지속적 관심이 요구된다.

불교 통일기금 조성 필요하다

4월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앞두고 남북대화가 급진전을 이루고 있다. 얼마전까지 북핵문제로 경색됐던 한반도 정세에 훈풍이 불고 있다.

불교계는 10년간의 경색된 남북관계 속에서 고군분투 해왔다. 2009년과 2014년 불교 통일로드맵을 발표하며 장기적인 과제를 제시하기도 했다.

문제는 이러한 로드맵이 실천되지 못했다는 점이다. 결국 남북간의 정치적인 벽을 넘지 못한 것이다.

이번 남북 대화 국면 속에서 불교계는 새로운 로드맵을 준비해야 한다. 그동안의 통일 로드맵은 한계가 도출됐다. 새로운 로드맵은 남북 정치 상황에 영향 받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가장 큰 과제는 기금 조성이다. 통일전 불교 통일인식 개선, 통일 후 북한 사찰 복원, 신도 조직화 등에는 많은 재원이 필요하다.

현재 불교 각 종단은 종단 산하 기관의 사업에 예산 배정을 통해 통일을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사업은 남북관계 경색 등 정치변화에 따라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 장기적인 로드맵 집행을 위해서 불교 통일기금 조성이 필요한 이유다.

정부는 이미 남북협력기금법을 제정해 정부 예산의 일정부분을 적립하고 있다. 또 이러한 남북협력기금은 통일 이후에는 민족 동질성 회복, 문화유산 복원 등에 쓰일 통일기금으로도 확대가 가능하다.

현재 조계종의 경우 일부사찰의 쌀 판매 수익금을 기반하여 북한 돕기 운동을 펼치고 있다. 이처럼 사찰의 자원을 활용한다면 통일기금 조성도 어려운 일은 아닐 것이다. 불교통일기금 조성은 불교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발행인 : 혜도 대표이사 : 박종수 편집국장 : 김주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구지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512-5003
전북지사 : (063)910-8977
부산지사 : (051)405-9402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주지국 : (054)634-3429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법정 스님 8주기 추모 단상

무소유는 살림이다

변택주 작가

"〈무소유〉가 없으면 마치 늘 손목에 걸고 다니던 염주를 잃어버린 것처럼, 평정을 잃는 사람들을 적잖았어요."

소설 〈발원, 요석 그리고 원효〉를 펴낸 시인 김선우가 '이 사람 괜찮은 사람이네' 싶어 애기를 나누다보면 법정 스님과 맞닿는다면서 꺼낸 말씀이다. 이처럼 법정 스님하면 누구나 '무소유'를 떠올린다. 그러나 스님이 가리키는 무소유에 어떤 뜻이 담겨 있는지는 깊이 살피려드는 사람은 드물다. 스님이 드러낸 무소유는 아무것도 갖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만 쓰면서, 적은 것에 기꺼워하며 살라는 말씀이다.

어떤 분이 스님에게 끝이 날카로운 만년필을 하나 드렸다. 스님은 당신 성깔에 꼭 들어맞는 펜 끝에서 나오는 사각거림을 한껏 누렸다. 그러다가 여행길 만년필 가게서 똑같은 만년필을 만난 스님은 반가운 마음에 하나를 더 샀다. 그런데 웬 걸, 두 개가 되고 나니 하나였을 때 품었던 살뜰함이 사라지고 말았다. '아차!' 싶었던 법정 스님, 새로 산 만년필을 얼른 다른 이에게 쓰라고 건네고 나니 소중함이 되살아났다고 했다. 가볍게 한 말씀 같지만 그 안에 담긴 뜻은 깊다. 펜 한 자루를 들고 글을 쓸 때 나머지 한 자루는 쓸모를 잃는다. 그러니까 제 구실을 잃은 펜을 다른 사람에게 건네 쓸모를 '살려' 냈다는 말씀이다. '살림'이 무엇인지 넌지시 드러내 보였다는 은근한 말씀이 아닐 수 없다.

'살림'은 부처님 가르침 밑절미에 깔려있는 말씀이다. 불자들이 예불 올릴 때마다 다지는 사홍서원, 네 가지 넓은 다짐 가운데 가장 앞서 나오는 것이 괴로움에 빠진 모든 이웃을 수렁에서 건져 올려 '살리기'이다. 그리고 육바라밀, 여섯 가지 으뜸가는 삶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보시, '지닌 것을 내어주기'이다. '이웃을 다 살리려고, 애써 지어 지닌 것을 다 내어주는 것'이 불교가 그리는 '바람직한 삶'이라는 말씀이다.

일찍이 원효 스님은 "귀일심원 요익중생, 한마음 뿌리로 돌아가 이웃을 두루 이롭게 한다"고 말씀했다. 이것을 법정 스님은 '맑고 향기롭게'라고 간추리셨다. 맑고 향기롭게는 "중이 밥값이나 하고 가야겠다"고 하면서 법정 스님이 팔 걷고 나서서 만든 시민모임이다. '맑고 향기롭게'란 저마다 본디 지닌 맑음을 한껏 드러내, 사회 곳곳에 앓는 이들을 두루 찾아 '살려' 내어 향기롭게 두루 여울지도록 하겠다는 다짐이다. 이토록 곱씹어 봐도 무소유는 가지지 말라는 말이 아니다. 열심히 땀 흘리며 애써 지어들인 모든 것을 내가 쓸 것만 남기고 되돌려 살기 버거워하는 이웃이 생기지 않도록 거듭 '살리'라는 말씀이다.

늘 무소유를 드러내며 말씀과 지음이 한결같던 법정 스님, 마지막 가시는 길 또한 만장은 물론 널도 없이 입던 옷 그대로 평소 쓰던 대나무 평상에 누워 불에 드셨다. 무소유는 살림이다.

앞장서 봄을 여는 매화를 보고 사람들은 머지않아 온갖 꽃들이 피어날 것이라며 부푼다. 마찬가지로 부처님 깨달음은 온 누리로 이어지는 예고편이다. 그래서 한 겨울에 피는 매화를 '석가모니 눈'이라고 한다. 추위를 떨치고 피어나는 매화처럼 법정 스님 삶 또한 뭇 사람 마음에 찌든 끝 간 데 없는 욕심과 모르는 데서 겪는 시달림을 녹여냈다. 스님이 가신지 어느덧 여덟 해, 세상은 어수선하기 그지없다. 남녘에서 들려오는 매화 소식에 그리움 가득한 날이다.

영혼의 세계(빙의)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영가의 생각을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몸에 들어온 이유를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영가의 병이 사람에게 옮겨온 경우)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 (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빛은 영가가 천상으로 가는 길이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조상영가, 전생영가로 인해 잡귀가 들어온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 않고 살이 찌시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근육이 풀어지며 통증으로 고통 받는 분, 몸이 굳어지며 감각이 없는 분**, 병원 등을 수십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 풍수에 관한 모든 것 상담 가능 ◀

천 광 수 련 원 ☎ 043) 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

굴셀건
80ml × 60팩
13만원
지리산 다슬기 眞 골드

無색소, 無방부제, 無화학첨가물로 만들어진 다슬기 엑기스!
껍찔채 가마솥으로 재래식 중탕해 고농축 멸균처리로 누구나 안심하고 드실 수 있습니다.
신장 기능 강화에 좋은 다슬기, 간 기능에 좋은 껍질까지 들어간 2배 엑기스!
느릅나무 유근피 원액

물 맑고 공기 좋은 지리산 일대 국산 야생 느릅나무 껍질(유근피)!
가마솥에 오래 달여 진공포장해 편리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위장을 맑게! 염증은 싹~ 가라앉히는 효과!
100ml × 60팩
6만 5천원
평안할 康
제품문의 : 칠성상회 (02) 879-2007
입금안내 : 농협 1282-17-003433 (주)한메소프트
입금금액 : 지리산 다슬기 진골드 130,000/느릅나무 유근피 원액 65,000원

황금룡을 집안으로

황룡나한과 복호나한

황룡나한은 용위에 큰복을 실어다 줄 것이며
복호나한은 악귀를 물러치고 삼재를 소멸하여 들어온 복을 지켜 줄 것입니다.

나한은 6가지 신통력과 8가지 해탈법등 삼장에 두루 통달하여 열반에 들지않고 영생을 누리며 번뇌를 아주 떠난 부처에 버금가는 성자 이시다.

황룡나한은 미륵불의 화신이라고 하며, 황금룡을 타고 다니며 중생들에게 복을 전해 주신다고 하며 복호나한은 맹수를 다스리고 악귀를 물리치며 삼재을 소멸하여 중생들의 수호신이 되어 준다고 한다.

부처님께서 열반에 들기전 18명의 나한들에게 부탁 하시기를 미륵불께서 세상에 나오실때까지 불법을 수호하고 중생들의 복전이 되어줄것을 당부 하였으니 16명의 나한들은 그들의 권속들과 함께 세상의 여러곳에 거처하며 불법을 설파하고 황룡나한과 복호나한은 거처를 정하지 않고 세상을 두루 돌며 중생들에게 복을 전하고 악을 몰아내며 중생들의 수호신이 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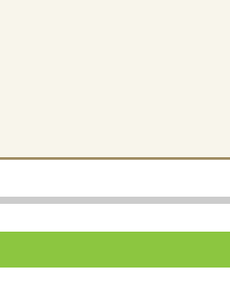


- 족자 크기 : 세로 120cm × 가로 54 cm
  족자 1개 금액 : 10만원
  족자 2벌 구입시 19만원에 드립니다.
- 그림 크기 : 세로 67cm × 가로 44 cm
  금액 : 그림당 7만원
- 구 입 :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구입하시는 모든 분께 18나한 설명서 를 보내드립니다.

"운명의 화살은 일직선으로 날아가는 법이 없더라"

불법이 꽃을 피웠던 통일신라,
그러나 어둠이 짙으면 새벽이 더욱 밝게 열리듯이
법멸의 월식 기간이 있었으니,
그 시대를 건너야 했던 왕과 여왕,
화랑과 고승들, 그리고 천하제일을 다투는 검객들의
사랑과 운명이 밤하늘과 별처럼
오늘 우리의 가슴을 적신다.



작가 정의성 (鄭義成)

신라의 김대성 공은 전생의 부모를 위해
석불사를 지었고 현생의 부모를 위해
불국사를 지었습니다.
그 멋들어진 효성이 천이백년이 훌쩍 지난
지금에도 남아 있습니다. 저도 작게나마
부처님께 이 책을 지어 바쳐
부모님의 행복을 빌고자 합니다.



대공 大恭의 난 亂
정의성 역사소설 | 신국판 | 704쪽 | 값 22,000원
현대불교신문사

현실을 꿈처럼 재해석하게 하는 불교적 환타지,
무협소설 같은 속도와 긴장,
삼국지를 연상시키는 지혜와 술수의 맞대결…

이 소설은 통일신라시대 중기에 일어난 대공의 난을 다루고 있다.
모름지기 소설은 첫째, 재미가 있어야 하는데 작가 정의성의 〈대공의 난〉은 그 첫째를 충족시키고도 남음이 있다. 암흑의 시기를 통과하는 청춘남녀들의 사랑과 비극이 폭염 속의 단비 같고, 장마 속의 햇살 같은 신들린 작가의 손에 의해 반전에 반정을 거듭하며 절묘하게 펼쳐진다.
〈삼국사기〉,〈삼국유사〉가 갖는 비통일적인 특성들이 작가의 상상력에 의해 결합, 재창조되어 역사 속의 인물들을 더욱 생생하게 눈 앞에 되살려냄으로써 특별한 재미와 함께 인생사의 오묘한 이치를 사유하게 된다.
역사에 대한 깊은 연구와 방대한 자료조사, 검술과 진법에 대한 작가의 해박한 지식과 갈고 닦은 내공이 작품 속에 녹아 있어 삼국지를 연상시키는 박진감을 선사하면서, 영화나 드라마처럼 생생하게 펼쳐진다.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 구입처 : 현대불교 현불샵 ☎ 02)2004-8216

BTN 대표이사 서성우

“오로지 전법”… 울산불교 재가운동 大母



김민희 대표는… 1955년 경주시 보문동에서 태어났다. 어릴 때부터 분황사에 다니며 불교와 가가워졌으며, 경주불교학생회 활동을 이어갔다. 위덕대 불교학과 석사, 동국대학교 대학원 선학과 박사를 수료했으며, 현재 울산에서 나무명상 카페를 운영하고 전법에 매진 중이다. 울산불교교육대학 총동문회 4~6대 회장을 역임하고 울산불교교육대학과 동국대 서울캠퍼스 강사를 역임했다. 제2차 여성불자 108인에 선정되었으며, 위덕대학교 대학원 학생회장 공로상과 동국대 강사로 활동 할 당시 석탑강의상을 받았다.

그대는 자비보살

김민희(63) 나무명상 대표(울산불교교육대학 총동문회 고문)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어려서부터 시작된 불연

초3 때부터 분황사 인연

등교 전 법당 들러 청소

경주불교학생회 활동

10대 당시 서원 새기며 전법

부처님 삶에는 나무가 많이 등장한다. 마야부인은 석가모니 부처님을 무우수 아래서 낳았고, 부처님은 보리수 아래서 대각을 이뤘다. 그리고 많은 법회를 나무가 이룬 숲에서 열었으며, 사라쌍수를 사방에 두고 열반에 들었다. 나무는 숲을 만들어주고 숲은 많은 것들을 품어준다. 하물며 불법(佛法)으로 숲을 이룬다면 그 숲이야말로 더할 나위없는 숲일 것이다. 울산 태화강 옆에서 나무명상 카페를 운영하는 김민희 대표는 울산이 불법의 숲이 되길 기원하며 평생 부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 3월 12일, 김 대표를 만나기 위해 달려간 나무명상 카페에는 ‘Who am I?(나는 누구인가?)’라고 적힌 간판이 걸려 있었다. 마치 울산 시민을 향해 던지는 화두 같았다. 그 화두 아래서 김민희 대표를 만났다.

전법의 회향, 나무명상 카페

1층 카페에 들어서자 오른쪽에는 부엌이 정갈하게 자리 잡고 홀에는 의자와 테이블, 벽에는 불두(佛頭), 인도여행 사진 그리고 부처님 말씀이 적혀있다. 카페 안쪽에는 나무로 짜인 관이 검은색 천으로 덮여 있고, 관 앞에는 초와 방석이 놓여 있다. 기자가 카페에 관이 있는 것을 보고 당황하자 김 대표는 “죽음이 주는 가르침을 통해 좀 더 효과적으로 부처님 말씀을 전하기 위한 것이다”고 했다.

곧이어 불자들이 문을 열고 들어왔다. 김 대표의 설명에 맞춰 7명의 참가자들은 죽음 명상을 시작했다. 그들은 죽음명상에 앞서 김 대표가 준비한 종이에 자신의 얼굴을 만들고, 김 대표는 참가자들이 그린 그림을 토대로 각자의 심리 상태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다. 그리고 각자 유언장을 작성하는 순서가 됐다. 갑자기 분위기가 엄숙해졌다. 참가자들은 사랑하는 가족과 살아온 날들, 이루지 못한 것들, 재산 문제 등 자신의 삶을 정리하고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잠시 후 참가자들은 하나 둘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유언장을 관 앞에서 읽으며 참가자들은 가족에 대한 생각에 눈물을 흘렸다. 참가자들은 관에 들어가기 전, 열심히 살아온 자신에게 수고했다며 절을 올렸다. 그리고 참가자가 관에 들어가자 김 대표는 관 뚜껑을 닫고 망치로 힘차게 내리쳤다. 엄숙한 순간인데 김 대표는 진행하는 동안 작은 유머로 분위기를 밝히며 오히려 웃었다. 죽음은 슬픈 것도 괴로운 것도 엄숙할 필요도 없다는 가르침을 자연스럽게 참가자들에게 전달했다.

김 대표는 “옷을 갈아입는 것과 같다. 체육 할 때는 체육복, 잠을 잘 때는 잠옷을 입어야 하는 것처럼 죽음 역시 옷을 갈아입는 것과 같다”며 “죽음을 연습하면 삶에 대한 집착을 잊고 두려움 없이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고 했다. 죽기 직전 까지 많은 사람들은 고민에 휩싸여 울고 집착하고 괴로워하지만, 막상 관에 들어가 누우면 편안해서 눈물이 나지 않는다고 김 대표가 설명하자, 참가자들은 “정말 그렇다. 막상 누우니 너무 편안해 참된 비움이 무엇인지 맛을 본 것 같다”고 소감을 말했다.

김 대표는 카페를 1층 커피숍과 2층 명상센터로 나눠 운영 중이다. 호흡명상을 배우기 위해 2층으로 올라간 참가자들은 자신들을 울산불교교육대학 총동문회 임원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김 대표를 총동문회 고문이고, 역대 회장을 역임한 주역 중에 주역이라며 울산불교의 산 증인이자 결실을 일궈낸 장본인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가 운영하는 나무명상 카페는 단순히 명상에 대한 강의를 하기 위한 카페가 아니다. 전법이라는 김 대표 평생 원력의 회향과도 같은 것이다.

재가불교 원동력, 울산불교교육원 개원

울산은 1960년대 울산공업센터 기공식을 시작으로 산업화의 길로 들어섰다. 갑자기 빨라진 개발의 속도로 인해 울산은 급격한 환경의 변화를 겪는다. 가난한 어촌에서 산업도시로 변모해 나갔다. 울산의 모든 삶의 지표는 확장되고 성장했다. 하지만 물질적으로 부유해지고 화려해진 삶의 모습 뒤엔 그로인해 발생한 부작용도 함께 늘어갔다. 바빠진 삶, 가속화되는 삶의 속도는 가치관의 변화를 가져왔고, 그 가치관의 변화 중 가장 큰 변화는 인간보다 물질이 앞서 있는 것이었다. 한 마디로 인성이 상실되어 가고 있었다. 자신을 돌아볼 틈 없이 세상의 속도에만 몰두해야 했다. 자신은 물론 주위를 살필 겨를도 없이 오직 물질만을 쫓는 삶을 살 게 된 것이다.

하지만 오탁악세에도 어딘가에는 연꽃이 피는 법. 늘 시절을 걱정하는 이는 있어왔다. 울산불교사암연합회 스님들은 불제자로서 여법하지 못한 시절과 그 시절에 놓인 대중을 걱정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시절에 필요한 불법을 펴기로 원력을 세웠다. 1993년 울산불교교육원을 개원했다. 울산불교교육대학의 전신인 울산불교교육원은 매년 200여 명의 재가 불자들을 교육하는, 재가불자교육의 요람으로 발전했고 울산불교의 중심으로 자리 잡게 된다.

울산불교교육대학은 매회 졸업생을 배출했고 올해 37기 입학생을 맞아 2600여 명의 회원이 활동하는 울산불교의 대들보가 됐다. 울산불교교육대학을 졸업한 불자들은 총동문회에 가입했다. 지속적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의 전달과 실천 속에 성장하기 위한 네트워크였다. 회원들은 대부분 주부 불자들로, ‘어머니 불교’로 불리며 따뜻한 자비 나눔을 이어갔다. 울산불교교육대학 총동문회는 매년 ‘소년소녀 가장 돕기 일일찻집 무루(無漏)음악회’를 개최했으며, 지난 해 19회를 맞았다. 음악회를 통해 모은 성금은 고스란히 장학금으로 전달했고 그 금액만 1억 3천5백만 원에 달한다. 장학금 모금 뿐 아니라 음악회는 울산 불교를 대표하는 자비나눔 행사로 자리 잡아 울산불교의 위상을 높였고, 울산 시장을 비롯해 사암연합회 대표 스님들이 함께해 격려하고, 불교문화를 전하는 야단법석으로 자리 잡았다. 특히 불자들이 하나로 화합하는 재가불자들의 구심점이 되어 주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군법당 포교에 뛰어들어 어머니의 정성이 깃든 손맛으로 따뜻한 음식을 군장병들에게 지어주고 있으며, 연등축제에서 매년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울산 지역 수해 복구를 위한 자비성금도 전달해 지역민과 함께 하는 불교로 활동했으며, 이웃 종교 축제인 크리스마스에 선물도 나눠주며 화합하는 불교, 열린 불교에 앞장섰다. 2600여 명의 회원들은 각 사찰에서 봉사하고 배운 바를 실천하는 각오로 기도와 수행 정진에 진력하고 있다.

B2면에 계속

INSIDE

B3 윤창화의 중국 선원 생활과 철학 — 승당(僧堂=禪堂)의 기능과 역할, 내부구조

B5 문화 — 영화 ‘무문관’ 4월 개봉

B6 학술 · 문화재 — 제 모습찾은 경주 사천왕사 녹유신장상

‘3·3·3’으로 자기 단속… “수행은 나의 힘”

〈삼업·삼학·삼독〉

‘김민희 대표’ B1면에서 계속

총동문회 임원들은 울산재가불교의 힘이자 숨은 공로자로 김민희 고문을 꼽았다. 박영란 울산불교교육대학 총동문회 회장은 “김민희 고문님이 계셨기에 지금 현재 동문회 활동도 가능하고 교육대학도 이어 올 수 있었다”며 “20년 넘도록 저희 활동의 기둥이 되어 주셨을 뿐 아니라 불교 수행의 선배로 이유를 묻지 않고 따를 수 있는 신뢰를 주고 있다”고 했다.

김 대표가 처음 울산불교교육대학을 찾은 것은 1994년 6기로 등록하면서 부터이다. 경주에서 태어나 자랐던 김 대표는 결혼 후 남편을 따라 울산에 오게 됐다. 김 대표가 느낀 울산의 첫인상은 낯설고 차가웠다. 울산에서 신행생활을 하다가 김 대표는 울산불교교육대학이 만들어진 것을 알았고 권유도 받았지만 처음엔 망설였다. 왜 망설였는가하고 묻자 “그냥 고집이었다”고 짧게 답한 후 “그런데 돌아보니 너무나 가고 싶어 하는 제 마음을 숨길 수가 없었고 망설일 이유도 없다는 걸 알았다”고 했다. 김 대표는 울산불교교육대학에 등록하자마자 학생회장을 권유 받았다. “부처님 일에 망설일 것이 무엇인가”라며 그 자리에서 수락한 김 대표는 졸업 후 총동문회 4대 회장으로 선출됐다. 또 5대~6대 회장을 연임하며 총동문회를 이끌었다.

김 대표가 이끌던 총동문회 활동은 눈에 띄게 성장했다. 소년소녀가장 돕기를 위한 성금은 세배 가까이 늘었고, 총동문회는 이때부터 단복을 맞춰 입고 활동했다. 불교에 대한 인상을 좀 더 아름답게 그리고 단정하게 전하고 싶었던 김 대표의 제안으로 시작 된 일이다.

“불교 이미지가 너무 초라하게 보이지 않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시작했어요. 화려하게 장엄된 부처님의 모습까지는 아니어도 정법을 드러내는 밝고 단정한 이미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회원들이 잘 따라줬습니다”

총동문회 회원들의 모습은 자랑스러움 그 자체였다고 했다. 아름다운 불자들의 모습에 행사 자체가 빛이 났고 회원들도 자긍심이 생겼다.

김 대표는 밖으로는 불교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하고 동문회 안으로는 운영 방법을 바꿔 내실을 다졌다. 먼저 각 기수별 이사회를 구성해 많은 회원들이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다.

“울산불교교육대학이 어려움을 겪을 때도 많았어요. 사람 수가 줄어서 월세는 계속 밀렸고 갈 곳을 고민하며 발품을 팔았죠. 집에서 설거지를 하다가 번쩍 떠올랐어요. 전세로 옮기면 일단 숨통은 트겠다 싶어 사암연합회 스님을 바로 찾아가 의논했습니다. 현재 불교대학 모습이 처음 자리를 옮겼을 때 꾸몄던 모습 그대로입니다”

김 대표는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를 이겨 내기 위해 직접 발품을 팔아 바닥재며 벽지, 칠판 등 강의를 위해 필요한 것을 마련했다. 모자라는 관리비를 위해선 등을 받았다.

회장직을 내려놓은 김 대표는 이후 불교공부를 전문적으로 해 좀 더 체계적으로 부처님 말씀을 전달하고 싶다는 의지가 생겼고 50세 되던 2005년 위덕대 불교학과 석사 과정과 이후 2010년 동국대학교 대학원 선학과 박사 과정을 수료했다. 김 대표는 언제 어디서나 오직 전법만을 고민했다. 박사 과정 수료 후 동국대에서 선학과 학생들을 지도했는데, 새로운 교수방법으로 불교에 대한 호감도를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말로만 설명하는 것 외에 다양한 방법을 시도했는데, 엄마 같은 느낌이라 학생들이 편안하게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눈높이를 맞춘 강의법이 적중 했던 것 같습니다.”

60세가 되던 해, 김 대표는 강사직을 내려놓았다. 당시 다채로운 강의로 석탑강의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석탑강의상은 설문조사 결과 상위 5% 안에 든 우수한 교원 및 강사를 선정해 시상하는 상이다.

“불교를 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울산에서 서울까지 체력이 더 이상 견디질 못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다시 전법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문을 연 것이 명상카페입니다. 올해 들어 4년 차인데 많은 불자 혹은 비불자들이 찾아 쉼을 얻고 있습니다.”

태화강에 흐르는 불심

김 대표가 불교를 처음 접한 것은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이다. 경주 보문동에서 태어난 김 대표는 할머니 집이 분황사 맞은편에 있었다. 불자였던 할머니를 따라 분황사를 찾다가 이후에는 할머니 집을 찾지 않고 학교를 마치면 바로 분황사로 달려갔다.

“초등학교 때 아무것도 모르고 올라갔지만 절이 너무 좋았어요. 그 때 주지 스님이 불심 도문 스님이셨습니다. 어릴 때이니 학교 마치면 주지 스님 방에 책가방을 휙 던져 놓고 뛰어 놀았어요. 그럴 때면 스님께서 ‘부처님께 삼배는 해야지’라고 말씀 하시곤 하셨죠”

초등학교 때부터 뵙던 스님들이 너무 친숙했고 편안했던 김 대표였다. 학교 가기 전 법당에 들러 청소를 하고 행자 스님들에게 목탁 치는 법을 배우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이후 경주여고에 입학해 경주불교학생회에 가입하며 도반들을 만났다.

“스님들의 가르침이 무서울 정도였습니다. 도반들과 철야정진을 하고 밤새 기도하는 일은 예사였지요. 한 번은 저녁 7시 쯤 법당에 학생들이 들어갔는데 스님께서 문을 탁 닫으시며 내일 아침까지 기도하라고 하시더군요.”

김 대표는 밤새 기도했는데 언제 시간이 갔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집중했다. 문이 열리고 나서야 기도시간이 끝났다는 걸 알았다. 도반들과 함께 기림사에서 석굴암까지 걸어갔던 경험을 말하며 부처님 앞에서 물러나지 않는 불퇴전의 마음을 알았다고 했다.

“추운 겨울 걸어서 가니 땀이 나고 목이 너무 말랐어요. 석굴암에 도착해 매달려 있던 고드름을 따서 목을 축였죠. 그러고 나니 한기가 몰려오더군요. 다시 절을 시작했습니다. 스님께서 앞으로 나가 원력을 말하라고 하셨고, 저는 부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 것을 서원했습니다.”

10대 때부터 지금까지 김 대표는 부처님과 약속했던 서원을 새기며 전법을 이어가고 있다. 평범하다고 자신을 소개했지만 평생 전법을 이어가는 힘은 수행에서 출발했다. 매일 새벽 일어나면 바로 등을 세웠다. 30년 이상 된 버릇이라고 설명했다.

“법륜 스님이 저희 경주불교학생회 출신이세요. 정토회를 시작할 당시 울산을 찾아오셨는데, 잠자다가 눈을 뜨면 이불 안에서 망설이지 말고, 즉 번뇌를 일으키지 말고 등을 바로 세우라고 하셨어요.”

김 대표는 그 가르침을 곧바로 실천했다. 새벽 3시 혹은 4시 쯤 자리에서 눈을 뜨면 작은 베개를 깔고 앉고 이불을 무릎에 덮었다. 그리고 곧장 정진했다. 특히 일일시호일, 매일 좋은 하루라는 가르침을 집착 없이 주인 된 삶으로 정의하고 3·3·3을 기억하며 자신을 단속했다. 3·3·3은 신구의 삼업을 계정혜 삼학으로 지켜보고 탐진치 삼독을 방어하자는 자신만의 약속이다.

김 대표는 마지막으로 울산 불교를 위해 구심점이 되어 줄 핵심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부처님오신날 연등축제를 태화강변에서 진행합니다. 울산을 대표하는 태화강에는 자장율사가 창건한 태화사가 원래 자리했습니다. 자장율사는 당나라에서 모셔온 진신사리를 통도사, 황룡사 9층목탑 그리고 태화사에 모셨지요. 태화사 복원을 위한 연구와 학회를 지속적으로 열어 신라 불국토, 울산을 되살려야 합니다.”

취재를 마치고 울산의 강, 태화강을 건넜다. 화합의 물줄기라는 의미를 지닌 태화강(太和江)은 울산을 대표하는 어머니의 강이다. 울산 한 가운데를 가로질러 유유히 흐르는 태화강은 1960년대 급속히 진행된 산업화의 부작용으로 죽음의 강으로 불렸다. 수질오염으로 인해 물고기는 떼죽음을 당했고 사람들은 악취로 괴로워했다.

울산시와 시민들의 노력으로 태화강에는 현재 은어, 연어, 황어, 수달, 삵 등 1000여 종의 동식물이 서식하고 있다. 생명의 강을 넘어 생태계의 보고로 부상하고 있으며 기적을 낳은 생명의 강으로 불린다. 태화강의 변화는 곧 울산 산업 도시 변화의 상징이 됐다.

태화강의 변화처럼 김 대표의 불심(佛心)은 격동의 시간에 메말라가던 울산 시민들에게 희망을 안겼다. 부처님오신날 태화강 주변으로 올해도 연등은 밝게 빛날 것이다.



2008년 소년소녀 가장 돕기 장학금 전달식.


나무명상 카페에서 ‘죽음명상’을 진행하는 김민희 대표(왼쪽)와 참가자들.



울산불교교육대학 6기 졸업식.

울산 재가불교운동 평생 헌신

전법회향 위해 명상카페 운영

총동문회 4~6대 회장 역임

일일 찻집 ‘무루음악회’ 개최

성금 전액 장학금으로 전달

군장병 급식 등 군포교 참여

현재 총동문회 고문으로 활동

제2차 여성불자 108인 선정



(사)대한불교한마음조계종

(사)대한불교한마음조계종은 불조의 혜명에 굳건히 의지하고 현재 봉착한 한국불교의 위기를 진단하여 종파의 분열과 무너진 법계질서를 바로잡아 새로운 승풍을 진작하여 일불제자의 승가정신을 구현하고 이를 통한 한국불교의 중흥을 목표로 하는 창종의 변을 제방에 고합니다. 한 마음 한 뜻으로 정진의 길에 함께 할 제방의 큰스님들과 법사님을 모십니다.

종단사업
- 사회복지 및 장애인 복지사업
- 장례문화연구 및 납골당 운영사업
- 승려등 수행자의 복지사업

승 정 원 장 월해 총 무 원 장 법천당 청운
감 찰 원 장 성호 종 회 의 장 법륜 호 법 원 장 해월
포 교 원 장 덕해 교 육 원 장 영호 규 정 원 장 혜성
감 찰 부 장 경오 호 법 부 장 문경 포 교 부 장 장문
규 정 부 장 성철
서울교구원장 법혜 대전교구원장 수진 충남교구원장 혜성
울산교구원장 정오 부산교구원장 법진 경남교구원장 불해
경북교구원장 천호

한마음 108종도 일동

본 종은 종도화합의 종풍을 확립하고자 상생을 위한 상호협의를 종무행정의 기본으로 삼고자 합니다.

본 종단은 문화관광부 허가 제 2017-7호. 법인등록 194621-0000530으로 등록된 사단법인 종단입니다.

수경(부산), 청하(제주), 경수(목포),
만호(진주), 대명(공주), 해진(순천)
상기 스님들의 신규입종을 전 종도와 함께 환영합니다

종도모집

입종서류
- 사찰 및 승려 등록 신청서 1통
- 주민등록증 사본
- 반명함판 사진 3매
- 법당사진 내 외 (사찰등록 하실분에 한함)
- 타종단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 입종 종도에게는 승려증 (법사증 · 포교사), 사찰 등록증, 주지 임명장과 간부스님에 한하여 추대장 및 위촉장 수여합니다.
※ 본 종단은 개인 사암의 재산권에 대해서는 일체 관여하지 않습니다.

(사) 대한불교한마음조계종
총무원장 법천당 청운

■ 총본산 : 경남 남해군 삼동면 동부대로 1122번길 74-35
전화 055)867-0024.0025 / 팩스 055)867-8009

수행처라면 어디나 僧堂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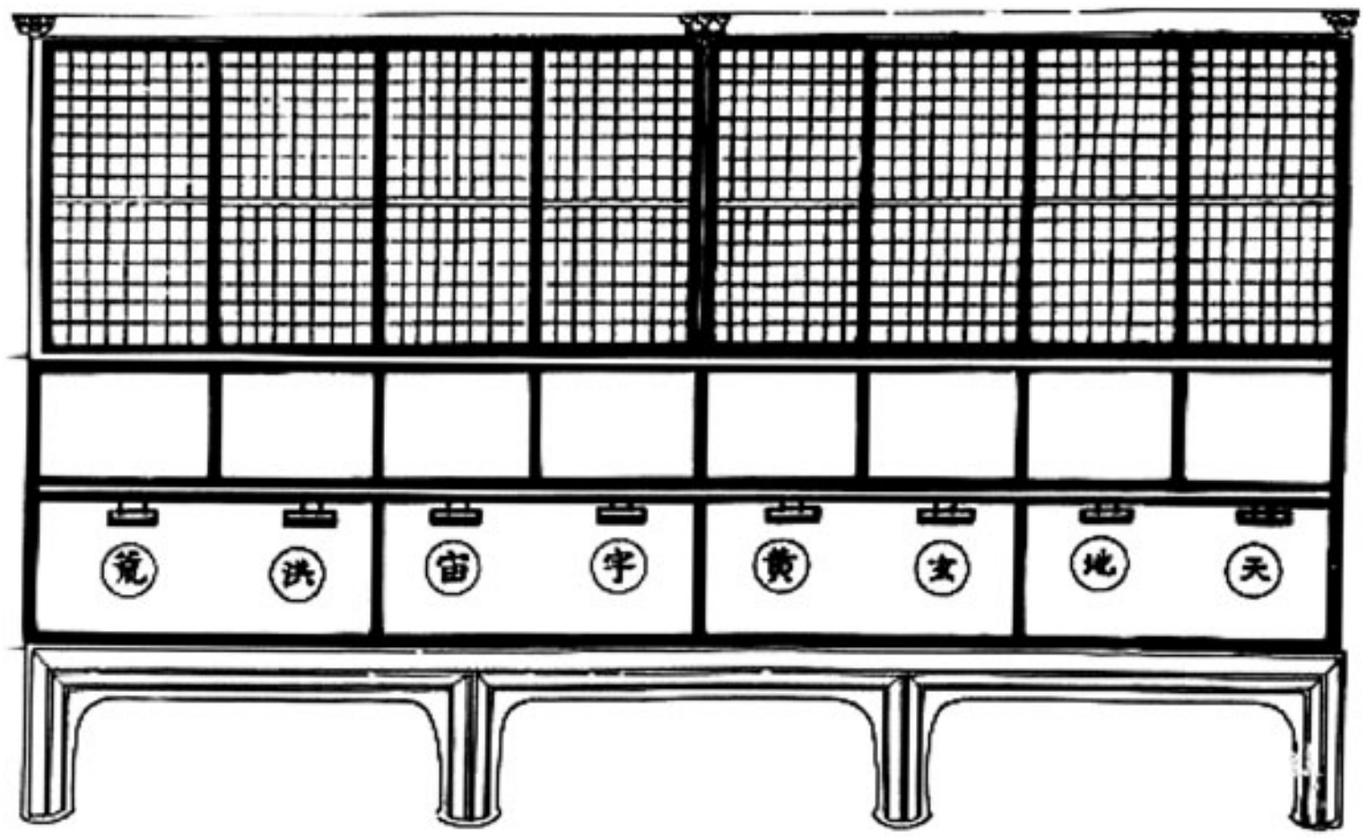
〈승당〉



윤창화의

중국 선원 생활과 철학

⑥ 승당(僧堂=禪堂)의 기능과 역할, 내부구조



남송 오산십찰도(五山十刹圖)에 수록되어 있는 항주 경산사(徑山寺) 승당(僧堂) 장련상(長連床). 안 쪽에 천자문 순서로 천(天) · 지(地) · 현(玄) · 황(黃) · 우(宇) · 주(宙) · 홍(洪) · 황(荒) 8자가 적혀 있는데, 한 칸 씩으로, 가로 폭은 약 90-100센티 된다. 이것이 한 납자가 생활하는 공간으로, 장련상 하나에 모두 8명이 생활한다. 안쪽 벽면 맨 위쪽은 창문이고, 아래는 개인 사물함이다. 윗 단에는 개인 용품을 보관하고, 하단에는 이불과 베개를 넣는다.

승당(僧堂)을 '선불장(選佛場)'이라고도 한다. '부처를 선발하는 곳'이라는 뜻인데, 깨달은 이, 부처가 이 승당=선불장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그러나 수행처라면 어디나 다 선불장이라고 할 수 있다.

붓다는 좌선을 중시했다. 물론 인도에서 좌선(명상)은 승당에서만 하는 것은 아니다. 나무 아래, 석굴 등 어디서든지 비를 피할 수 있는 곳은 다 좌선당이고 선불장이다.

깨달은 부처, 납자, 수행자는 승당=좌선당을 가까이 해야 한다. 특히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번뇌망상을 극복하고자 한다면 승당과 친해야 한다. 지혜는 칼날처럼 번득거려도 좌선(선정)을 하지 않으면 간혜(乾慧, 지능만 반짝반짝)가 되어 구두선을 면치 못한다. 말로만 깨달았다고 큰소리칠 뿐, 행동은 중생이나 마찬가지이다.

선승으로서 인격을 갖추고 번뇌 망상을 극복하자면 좌선, 선정 공부는 필수적이다. 선정수행을 하지 않으면 행위를 무시하는 이른바 막행막식의 무애선으로 빠질 확률이 99%다. 우리나라 선승들이 걸핏하면 '음주식육이 무방반야'라고 하면서 계행을 무시하는 것은 이 때문인데, 큰 착각이다. 부처님은 그러지 않으셨다. 또 앉아만 있고 진정으로 자기 자신을 관조하지 않는다면 그 역시 무용지물이다. 도거(棹擧, 망상)를 잠재우지 않는다면 그런 좌선은 무의미하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고 반야지혜를 무시하면 안 된다. 지혜를 공부하지 않으면 어두워진다. 그것을 '맹선(盲禪)' '맹선자(盲禪者)'라고 하고, 또 '암선(暗禪)' '암증선사(暗證禪師)'라고 하는데, 그냥 앉아만 있을 뿐, 지혜(智慧)와 안목이 없는 것을 가리킨다.

맹선은 아무리 좌선을 하고 노력해 봐야 점잖은 수행자는 되어도 정법안을 갖춘 안목 있는 선승은 되지 못한다. 법문도 할 줄 모른다. 해도 한두 가지 외에는 불가능하다. 지혜작용이 없기 때문이다.

조사선의 맹주인 마조도일, 임제의현, 조주선사, 운문선사 같은 이는 이 두 가지를 모두 갖춘 선승들이다. 두 개의 날개를 모두 갖추면 날 수 있고 하나는 날려고 해도 불가능하다. 그래서 〈육조단경〉과 〈대승기신론〉, 보조국사 지눌의 〈보조법어〉 등에서는 정혜쌍수를 강조했다. 선정과 지혜를 같이 수행하지 않으면 반쪽 기능을 갖춘 선승에 불과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당송시대 선방의 내부 구조

중국 당송시대 선원총림의 승당(선당) 내부 구조는 어떤 모양일까? 그리고 선당에서 생활상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이 시대는 이른바 선의 황금시대로 남전, 마조, 황벽, 백장, 위산, 조주, 임제, 운문, 원오극근, 대혜, 천동정각 등 탁월한 선승들이 무수하게 배출되었던 시대이기도 하다. 이들도 모두 선당에서 나온 선지식이다.

승당(僧堂)은 납자들의 생활공간인 동시에 좌선하는 곳이다. 중국 당송시대 승당 즉 선방의 내부 구조는 우리나라 선방 구조와는 완전히 다르다. 우리나라 선방은 평면의 온돌 구조로서 바닥은 장판이다. 그 위에서 좌복을 깔고 벽을 보고 좌선을 한다.

그러나 당송시대 선종사원의 선방은 온돌구조가 아니다. 가운데는 벽돌이 깔려 있는 복도이고 사방 벽 쪽은 여러 개의 평상(平床)으로 연결되어 있다. 납자들은 모두 여기서 공양과 좌선, 취침을 하는데, 이 평상을 '장련상(長連床)'이라고 한다. 여러 개의 긴 평상이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다. 언뜻 보면 목조 마루 같지만 실제는 여러 개의 평상이 연결되어 있다. 또 이것을 '연상(連床)', '장상(長牀)', '장련탑(長連榻)', '장련단(長連單)' '좌상(坐床)' 등이라고도 한다.

도판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장련상 하나의 크기는 가로 폭은 약 7, 5미터-8미터 가량 되고, 세로 길이는 약 2미터 가량 된다. 그리고 벽 쪽에는 도판과 같이 천자문 순서로 천(天) · 지(地) · 현(玄) · 황(黃) · 우(宇) · 주(宙) · 홍(洪) · 황(荒) 8자가 적혀 있는데, 오늘날 1, 2, 3, 4, 5, 6, 7, 8과 같다. 이것이 한 칸 즉 한 납자가 생활하는 공간으로서 약 90-100센티가 된다.

정혜쌍수 아니면 반쪽짜리 수행
당송 시대 승당 구조 우리와 달라
중국 선당은 온돌 없어
사상적 영향권, 다른 문화

장련상 벽 쪽 상단에는 도판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창문(창호지 사용)이 있고 하단에는 사물함이 상하 2단으로 설치되어 있는데, 위 칸에는 잡화(雜貨)를 넣고, 아래 칸에는 이불 등 침구를 넣는다. 이것을 '단상(單箱, 상자, 박스)'이라고 한다.

그리고 앞 천정에는 가사(袈裟)를 걸 수 있도록 의가(衣架, 椸架라고 함. 횃대, 옷걸이)가 설치되어 있다. 당대(唐代) 승당에는 사물함이 없었기 때문에 개인용 도구는 모두 걸망에 넣어 벽에 걸어 두었다. 방부가 허락되면 걸망을 벽에 걸어 두었기 때문에 입방을 '괘탑(掛塔)'이라고 한 것이다.

사물함 밑에는 법랍에 따른 계랍패(戒臘牌, 수계 나이 즉 법랍패), 즉 명패(名牌)를 붙인다. 그 자리를 '명단(名單)', '단(單)', '발위(鉢位, 발우를 두는 자리라는 뜻)', '피위(被位)', '좌위(座位, 앉는 자리)', '단위(單位, 명패)'라고 한다. 객승이 입방을 하면 법랍에 따라 계랍패(명패)를 붙이고, 해제하고 나가면 명패를 떼어 낸다. 그것을 '기단(起單, 명패를 뗀다)'이라고 한다.

그리고 선당 출입구 쪽에는 소형 장련상을 설치한다. 이곳은 6지사 · 6두수 등 소임자들이 좌선하는 곳이다. 소임자들은 모두 개인 거처가 있고, 승당에서는 좌선과 공양만 하기 때문이다. 또 소임자들은 수시로 공무(公務)나 사중(寺中)의 일로 출입해야 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장련상 안쪽(벽쪽)은 갈포(褐袍)를 깔아서 취침할 수 있게 했고, 앞쪽(복도 쪽)은 목판인데 공양할 때는 여기에 발우를 펴놓고 한다. 좌선할 때는 장련상 위에 포단(蒲團, 방석)을 깔고 한다. 대혜 선사 서간문인 〈서장(書狀)〉에는 '포단상사(蒲團上事, 포단 위의 일)'라는 말이 자주 나오는데 이는 곧 좌선을 뜻한다.

중국 선원총림 가운데 가장 컸으며, 남송시대 최대 총림인 경산사 · 영은사 · 천동사 등 남송 5산(五山)의 선당 내부도를 보면, 사방 외에도 중간에도 장련상(長連床)이 여러 줄 설치되어 있음을 볼 수 있는데, 1,000명이나 되는 많은 납자들을 수용하자면 중간에도 설치하지 않으면 안 되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선방도 대중이 많으면 가운데에 한두 줄 자리(中座)를 더 만드는데, 그와 같다고 할 수 있다.

큰 선당의 경우는 전당(前堂)과 후당(後堂)으로 나눈다. 전당과 후당의 구분은 선당 안에 모셔져 있는 승형문수상을 중심으로(대략 반) 출입구 쪽인 앞쪽을 '전당'이라 하고, 뒤쪽을 '후당'이라고 한다. 또 선당 안쪽을 내당(內堂), 출입구 쪽을 외당(外堂)이라고 한다.

선원에 대중이 많을 경우에는 전당수좌(前堂首座)와 후당수좌(後堂首座)를 둔다. 대중이 많아서 수좌 1명으로는 관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간혹 선어록을 보면 전당수좌, 후당수좌라는 명칭이 있는데, 각각 전당과 후당을 관리하는 수좌이다.

선당 내에는 좌선하는 자리도 정해져 있다. 주지(방장)가 좌선하는 자리는 복도의 승형문수상 앞에 선의(禪椅, 의자)가 있는데, 그 의자에 앉아서 좌선한다. 수좌 · 서기 · 전좌 그리고 청중(淸衆, 납자들)은 선당 안쪽, 즉 내당에서 좌선한다. 지사(知事) 가운데 감원 · 도사(都寺) · 감사(監寺) · 유나(維那) · 부사(副寺) · 직세(直歲) 그리고 6두수(六頭首) 가운데 지객 · 지욕 · 지전 · 방장시자(侍者) · 객승은 모두 외당(선당 출입구 쪽)에서 좌선한다.

중국 선당은 온돌이 없다. 따라서 겨울이 되면 한기(寒氣)를 막기 위하여 화로를 설치한다. 화로는 선방 중앙 좀 넓은 공간에 바닥을 조금 파고 설치한다. 연료는 숯(炭)이고, 이 숯을 담당하는 소임을 탄두(炭頭)라고 한다. 숯을 피워서 냉기를 제거하는 정도이다. 건물이 높고 커서 숯가스로 인한 두통 같은 것은 없다. 가을에는 음력 10월 1일에 설치하여 다음 해 2월 1일에 철수한다.

승당에 화로를 설치하는 것을 '개로(開爐)'라고 하고 철거하는 것을 폐로(閉爐)라고 하는데, 설치하고 나서는 방장으로부터 법문을 듣는다. 화로를 설치한 후에 듣는 법문을 '개로상당(開爐上堂)'이라고 하고, 철거한 후에 듣는 법문을 '폐로상당(閉爐上堂)'이라고 한다.

현재 중국 영파 천동사와 아육왕사 선당(禪堂)은 청대에 건축되었지만, 선당 내부는 당 · 북송시대 선당 형식이라고 할 수 있고, 그 가운데서도 당대 선당 형식이다. 그리고 일본 후쿠이(福井)에 있는 영평사(永平寺)와 요코하마(橫浜)에 있는 총지사(摠持寺, 조동종), 임제종 향악사(向嶽寺) 등 일본 선종사원의 선당 내부는 모두 남송시대 선당 형식이다.

당 · 북송시대 선당 형식과 남송시대 선당 형식의 차이는 벽 쪽에 설치된 사물함의 유무로 구분할 수 있다. 즉 사물함이 없으면 당 · 북송시대 형식의 선당이고, 있으면 남송시대 형식의 선당이다.

우리나라 선원 가운데 중국 전통 승당과 같은 곳은 한 곳도 없다. 온돌 문화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선사상적으로는 중국선의 우산 권 속에 있으면서도 문화적으로는 거의 별도로 전개된 점에 대해서는 향후 더 고찰해야할 부분이다. 그래도 비슷한 곳은 칠불암 아자방(亞字房)이라고 할 수 있다. 아자(亞字)을 보면 가운데는 복도이고 벽 쪽은 복도보다 조금 높은데, 여기가 장련상이 놓여 있는 자리이다.

반면 일본 조동종 영평사, 총지사(摠持寺), 동복사, 묘심사, 남선사 등 일본 선종사원의 선당은 당송시대 승당 구조 그대로이다. 후쿠이에 있는 영평사는 겨울이면 영하 10도까지 내려가지만 여전히 선방 내부 구조는 복도와 장련상 구조의 선방이다. 온돌구조가 아니라는 것이다.





티베트 스승에게 듣는 연기법의 지혜 게시 소남 갈첸 지음/하늘호수 펴냄/1만 8천원

티베트의 위대한 스승 쫑까빠 대사님(1357~1419)의 가르침중에서 공성과 연기법에 대해 가장 보배로운 가르침이라 일컫는 〈연기찬탄송〉의 깊은 뜻을 한글로 번역한 것이다. 〈연기찬탄송〉 티베트원서와 이에 대한 티베트 본토의 큰 스승인 람림 린뽀체의 주석서를 바탕으로 한글로 번역해 한글티벳불교사원 광성사에서 이틀에 걸쳐 8차례 총 13시간 동안 강의한 내용을 책으로 엮은 것이다. 이 책은 한마디로 불교에 대한 소개를 다루었는데, '불교는 무엇'이고 '부처님은 어떤분'이신지에 대한 답이 들어있다. 저자는 연기와 공성이 둘이 아닌 하나, 즉 공성의 심오한 뜻을 연기로 완전히 깨달아 부처님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믿음을 얻은 뒤, 부처님께서 연기법을 자유자재로 설해주신 면에서 찬탄하는 중요한 논서이다. 김주일 기자

"삶의 방향과 정진, 가피의 길서 가능"



허공은 가득하다

지광 스님 지음
능인출판 펴냄
1만 3500원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불자들이 기도공덕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이 가피일 것이다. 그렇다면 가피란 무엇일까? 자신이 정한 방향을 향해 삶의 궤도를 일치시키려고 노력하는 의지, 그리고 한걸음 더 걸어가려고 하는 정진의 자세, 즉 실천적 행동을 일으키는 근원에 있는 것이 가피라는게 능인선원장 지광 스님〈오른쪽 사진〉의 지론이다. 보통 사람들은 가피란 단어에 익숙치 않다. 불교 특유의 용어이기에 그렇기도 하지만, 보통 사람들이 가피를 체험하는 예가 흔치 않아서이기도 할 것이다. 가피란 개념으로만 존재하는 단어가 아니라 체험을 통해 확신하게 되는 단어이다. 흔히 가피를 현전가피, 몸중가피, 명훈가피 등 이렇게 체험자의 표현에 따른다.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의 삶 전체, 그 어느 곳 어느 상황이건 모두가 가피이다. 가피의 세계는 자신을 던지는 곳에, 자신을 버리는 곳에, 이기심과 집착을 내려 놓는 곳에 피와 땀과 눈물을 머금고 태어난다. 삶의 방향과 정진은 그 가피의 길 위에서 가능하다.

하지만 현실을 바라보자면 어두캄캄하다. 도대체 가피는 어디로 실종돼 버린 것일까? 잃어버린 가피의 의미를 새롭게 발견하는 것이 개인적 고통과 세계적 난관을 돌파하는 유일한 방법일 것이다. 저자 지광 스님은 독자들에게 가피의 의미를 제대로 인식시키기 위해 이 책을 펴냈다고 밝힌다. 이 책은 여러해 전에 〈법보신문〉에 '가피이야기'란 제목으로 연재된 글중 중복된 내용을 정리한 46편을 골라 한데 묶은 것이다.

책 제목을 〈허공은 가득하다〉라고 정한 이유를 저자 지광 스님은 "허공이 부처요, 우리 모두의 마음이요, 내 마음이요, 가피 그 자체이기에 달리 다른 제목을 찾을 수 없었다"고 고백한다.

한편 지광 스님은 1985년 서울 서초동에 능인선원을 열어 전법활동을 시작해, 사회복지법인 능인종합사회복지관을 설립 운영중이며, 국내외 포교를 위해 능인불교선양원을 설립했다. 특히 불교 연구와 후학 양성을 위해 경기도 화성에 능인대학원 대학교를 설립했다. 해외포교에 관심을 기울여 미국에도 국제대학 설립을 추진중이고, 중국 캐나다 태국 미국 등에 분원을 설립했다. 1999년 조계종 포교대상, 2003년 조계종 사회복지단체 대상을 수상했고, 2005년에는 민주화 유공자로 선정됐다. 2008년 서울대학교서 〈간화선 수행론 연구〉로 철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저서로는 〈정진〉 〈선, 명상의 향연〉 〈법고대통〉을 비롯한 여러 권의 수상집과 경전해설서, 교리서 등이 있다.



가피, 체험 통해 확신하게 되는 단어
신문연재 글 중 46편 골라 한데 묶어
이기심과 집착 내려놓으면 가피 생겨

지광스님이 말하는 가피의 명문장

- 한마디를 하더라도 마음속에서 수만 번 생각을 해야 합니다.
- 역설적이지만 우리가 잘 사는 법은 결국 버리고 비우는 것입니다.
- 불안한 마음이 들 때는 남을 위해 선한 일을 하십시오.
- 위기는 변화로 나아가는 기회이며, 자신을 단련시키는 훈련입니다.
- 말은 공명합니다. 아름다운 말을 아끼지 마세요.
- 업이 있을 뿐 운명은 없습니다.
- 무아의 본질이 드러나려면 수없이 깨져야 합니다.
- 한 순간도 방심하지 않고 자신의 한 생각을 다스려야 합니다.
- 완전한 몰입을 위해서는 완전한 방전이 필요합니다.
- 우리의 운명은 평소 무엇을 보고 듣고 생각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 과거의 생각이 지금을 만들었다면, 지금 생각은 미래를 만듭니다.
- 우리의 운명은 평소 무엇을 보고 듣고 생각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불교의례에 담긴 의미와 문제 살핀 철학서



불교의례

이성운 지음
조계종출판사 펴냄
1만 8천원

불교의례, 그 몸짓의 철학은 의례의 순서나 방법을 알려주는 의례집이 아니라, 의례에 담긴 의미와 문제를 살피는 철학서다. 또 의례의 상황별 광략에 따라 소리를 짓고 쓸기도 하여 문파마다 의식문의 차이가 생긴 전승의 문제에 화두를 던지는 문제작이기도 하다.

저자는 의례 설행이나 의문의 전승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놓치지 않고 물음표를 던지고 있다. 이런 문제 제기가 다소 아프게 느껴질 수도 있다. 하지만 이 또한 오늘날에도 여전히 분분하게 논의되는 철학적 견해에 대한 것들이기에 오랫동안 의례 현장서 불교의례를 연구하는 저자의 이런 노력과 시도가 더 의미 깊다고 하겠다.

"불교예경의 처음을 삼귀의로 할 수 있을까 하는 물음에 대해 크게 의심하는 경우는 보지 못했다. 하지만 수계의식적인 측면을 제외하고는 쉽게 동의하기 어렵다. 부처님 혹은 불교와의 만남은 대개 예경으로 시작한다. 삼귀의에는 인사에 관련한 서술어가 존재하지 않는다. (…) '귀의'에 공경의 의미와 예경의 의미가 없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예경의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불교의례'라고 하면 스님들만 하는 것이라고, 좀 어렵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불교의례, 그 몸짓의 철학을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절에 가서 인사를 드리고, 참선 하고, 공양을 올리는 일상적인 행위가 모두 의례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삼귀의를 할 때 '스님들께 귀의합니다'라고 하는데, 그때 '스님들'이라고 하는 것이 바른가, '승가'라고 해야 할 것인가, 그도 아니면 '참모임'이라고 할 것인가. 또 대웅전에 예경할 때도 각단 존상에 예경할 때처럼 모신 존상의 명호를 부르면서 예경하는 것이 예의가 아닌가. 49일간의 중음기간 그리고 재탄생의 길을 떠난다고 보는 불교적 윤회관에서, 매년 기일에 모시는 조상신관과는 어떤 차이가 있으며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등, 이 책은 우리가 신행 과정에서 쉽게 접하는 의례의 의미를 이야기하고, 의례 설행 그 너머의 문제까지도 깊이 그리고 함께 생각할 수 있도록 펼쳐진 법석이라고 하겠다.

진리를 구하는 구법의 몸짓은 수행의례로 나타나고, 중생을 교화하는 몸짓은 공양과 시식의례로 드러난다. 구법과 교화의 의례는 상구보리, 하화중생이라는 불교의 교리와 정신을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역사와 설화 등 전통문화까지 고스란히 담은 우리 문화의 중요한 보고라고 하겠다. 이런 소중한 의례를 바르게 실천하는 것은 불교수행의 완성이다. 열심히 기도하고 염불하는 것만큼 의례에 대해 제대로 알고 바르게 설행하는 것이 깨달음에 한발 더 다가가는 일이라고 불교의례, 그 몸짓의 철학은 말한다.

불교의례, 그 몸짓의 철학는 법회의 시작인 귀의부터 수행, 공양, 시식을 거쳐 사후에 올리는 귀환의 몸짓인 다비까지, 전체 총 5부에 걸쳐 소개한다. 1부는 '귀의' 편으로,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청정한 대중에게 귀의하는 몸짓의 의미와 그를 대표하는 삼귀의, 예경, 수계에 대한 이야기다. 특히 아침저녁 예불의식으로 정착된 칠정례에 대한 논의를 중심에 두고 많은 부분을 할애한다. 2부는 괴로움서 벗어나 해탈을 이루는 '수행'의 몸짓, 그 과정을 탐구한다. 진언과 송주, 염불과 예참, 좌선 그리고 출정(出定) 이후 수행자의 몸짓에 대해서 알아본다. 3부에서는

깨달음을 향한 몸짓, 불교의례
불교 현실적 실천이 바로 의례다

불교의 대표적인 공양의례인 '불공'에 대해서 알아본다. 공양에는 부처님께 바쳐 올리는 공양으로 널리 알려진 '육법공양'과, 향에서 공양물이 나와 일체 성현들께 공양을 올리는 것을 마음속으로 관상하는 '운심공양'이 있다.

4부서는 고통에 빠진 불특정 다수에게 보시를 베푸는 '시식' 의식의 구조와 의미 그리고 그것이 장치되어온 역사 등에 대해 시간과 공간을 넘나들며 본질을 찾는다. 한국과 중국에서 시식의식은 비교적 그 원형이 잘 보존되었음에도 유학을 숭상한 문화로 인해 대승불교의 육바라밀을 실천하는 몸짓이라기보다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 의식으로 그 의미가 축소되었다. 마지막 5부에서는 주검을 처리하는 불교의례인 장례와 다비를 톺아본다. 관혼상제 같은 생활의례 중 불교에 남은 가장 정교한 의례가 장례의식이다. 전통 불교 다비작법은 대사스님이 열반하였을 때 쓰이던 것이었지만, 조선 중후기를 지나며 불교 일반장례법으로 정착되어 심지어 재가불자들의 장례에도 적용되며 현실적이지 못하게 되었다. 이 장에서는 임종과 장례, 봉안으로 나누어 불교의 몸짓을 살핀다. 김주일 기자

황토와 편백



황토 편백 찜질침대 산사에 황토구들을 놓을 수는 없을까?
황토와 편백나무는 면역력 증강과 피부재생 및 노화방지에 탁월한 효능이 있습니다.
잠이라도 푹 주무시고
참선수행하시는 스님들께 감기 없는 겨울을 보시하고 싶습니다.
• 현금 특별 판매가 : 135만원
구입처 010-7358-0380
배원호 합장
황토구들 침대



면발광 LED 인등
발명특허 제10-1350047호



법당장엄일체
수미단 닫집
최저의 비용으로 최고의 장엄을.
성불원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 418-1
010-6857-0108
http://www.sungbulwon.co.kr

문을 열 수 있는 건 오직 '한 생각' 뿐

영화 '무문관' 4월 19일 개봉

TBC 창사기념 다큐, 영화로 재탄생
무문관 통한 수좌의 구도과정 그려
배우 전무송 씨 무문 스님 역 열연
최첨단 카메라, 특수촬영 영상미
휴스턴국제영화제 종교영화 대상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무문관'을 기록한 영화가 개봉을 앞두고 있다. 어떤 이의 출입도 허락되지 않는 곳, 무문관. 그곳에서 천 일 동안 수행한 11명 스님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아낸 휴먼 다큐멘터리 '무문관(감독 · 박대원, 96분)'이 다음스토리펀딩을 오픈하고 오는 4월 19일 개봉할 예정이다.

5년여에 걸쳐 완성한 영화 '무문관'은 2016년 TBC가 창사 21주년 특집으로 제작, 방송했던 다큐멘터리 '무문관'을 영화로 다시 제작한 것이다.

그 동안 수행자가 아니면 볼 수도 경험할 수도 없었던 무문관과 무문관을 통한 수행의 과정은 선종의 수행법 중 하나다. 두어 평 남짓한 독방의 문을 밖에서 자물쇠로 채우고 하루 한 끼의 공양을 하고, 바깥과 철저하게 단절된 채로 선정에 드는 수행이다. 영화 '무문관'은 육체적, 정신적 한계를 극복해가며 천일 동안 고독한 수행을 이어가는 수좌들의 모습을 담고 있다.

영화는 2016년 방송되었던 '무문관'과 영상적으로 전혀 다른 작품이다. 전작과 마찬가지로 무문관을 통한 수좌들의 구도과정을 그리고 있지만 영상적 형식과 미학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 휴먼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제작된 영화 '무문관'은 영화적 형식으로 재구성됐다. 수행자들의 인터뷰를 위주로 구성됐던 전작과는 달리 재연영상을 이용함으로써 영화적 완성도를 높였다.

"무문 스님, 왜 개에게는 불성이 없습니까?"

수좌가 물었다. 그리고 수좌는 무문 스님이 내리친 주장에 문 밖으로 나뒹군다. 그리고 내레이션이 이어진다.

"조주의 무(無), 그것이 바로 무문관의 첫 번째 관문이며, 이 관문을 이름하여 무문관이라 했다."

영화는 무문관의 역사적 배경을 설명하는 영상과 내레이션의 프로롤그로 시작된다. 이 장면은 양산 통도사 극락암과 서운암에서 촬영한 것으로, 무문 스님 역은 배우 전무송 씨가 맡아 열연했다.

2013년 5월 감포 무문관, 11명 수좌의 천일 무문관 수행으로 이어지는 영화는 월정사와 지장암 기린선원, 부산 해운정사 등에서 동안거 장면과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 등을 촬영한 영상들로 재구성됐다.

소설 〈만다라〉의 김성동 작가가 참여하여 구성을 다듬고, 4년 동안의 기록을 재편집과 후반 작업을 거쳐 극장용 와이드스크린에 최적화된 색깔을 입혔다. 또한 고품질의 영화를 만들기 위해 최첨단 알렉사XTS 카메라와 팬텀 고속카메라를 사용했으며, 라이트닝 번개기와 살수차 등을 동원하여 극적 효과를 높였다. 아울러 불교의 정중동 미학을 표현하기 위해 타임랩스 촬영, 미속촬영 등 특수촬영으로 순도 높은 영상을 완성했다.

영화 '무문관'은 제50회 휴스턴 국제영화제에서 물질 위주의 경쟁사회에서 진정으로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인지 생각하게 하는 작품으로 평가되어 종교영화 부문에서 대상을 받았으며, 제24회 불교언론문화상 대상, 제43회 한국방송대상 지역 다큐TV부문 작품상, 제20회 일경언론상 대상을 받는 등 방송가에서도 뜨거운 화제를 불러일으킨 바 있으며, 이를 계기로 극장용 영화까지 제작되었다.

영화 '무문관'은 수좌들이 수행을 이어가는 3년여의 세월 동안, 흐르는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사계절의 모습을 롱테이크 기법으로 담고, 영상으로 표현하기 어려운 선불교의 세계를 특수 촬영기법으로 표현하여 영상 미학 면에서도 깊은 인상을 준다. 삶의 여유를 잃어버리고 바쁘게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지금 어디쯤 가고 있는지 한 번 되돌아보게 하는 영화 '무문관'이다.



영화 '무문관' 포스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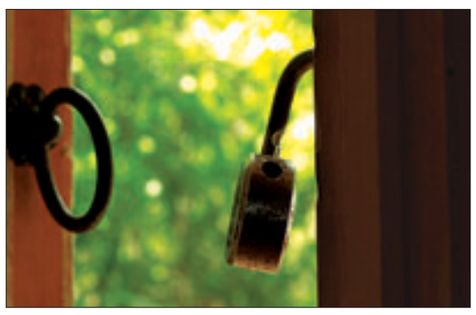
"내가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내가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그것도 모르고 살다가 죽을 수는 없거든요. 결국은 그것을 알고 가고자 그렇게 힘들고 해도 그 길을 선택해서 가는 거예요."

영화의 주제다.

박대원 감독은 "오탁악세의 오늘에서 수행자로서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가는 이들이 있다는 것을 영화를 통해서 보여주고 싶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4월 19일 전국에서 개봉될 예정인 영화 '무문관'은 지난 7일 CGV 대구점에서 진행된 대구 시사회를 시작으로, 3월 23일 오후 2시에는 메가박스 제주점에서 제주 시사회를 진행하고 4월 4일 오후 6시에는 부산 영화의 전당에서 부산 시사회를 진행할 예정이며, 서울 시사회도 계획 중이다.





영화 '무문관'의 주용 장면들.

제2회 '무소유 어린이 글짓기 대회'

5월 5일 어린이날, 길상사

(사)맑고 향기롭게(이사장 덕일)는 어린이의 정서 함양과 문예 창작 능력 향상을 위하여 '제2회 무소유 어린이 글짓기 대회'를 5월 5일(어린이날)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서울 성북구 성북동 '맑고 향기롭게' 근본도량 길상사에서 개최한다.

(사)맑고 향기롭게는 이번 글짓기 대회를 통해 단순 흥미 위주의 활동이 아닌 맑고 향기로운 가치관과 예술 창작 기질을 키울 수 있는 시간을 가지고, 가족단위 참가자들과 방문하는 어린이들이 즐겁게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불교 그림 스크래치, 비누 만들기)과 불교문화행사(단주 꿰기) 등을 함께 운영한다.

(사)맑고 향기롭게 이사장 덕일 스님은 "사찰에서 즐겁게 자신의 재능을 펼치고 어린 시절 아름다운 추억의 한 페이지가 될 이번 대회에 많은 참여를 바라며, 앞으로 법정 스님께서 주창한 맑고 향기롭게 운동과 무소유 사상을 어른뿐만 아니라 어린 세대까지 더욱 전파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어린이날 진행되는 '제2회 무소유 어린이 글짓기 대회'의 참가 대상은 전국 초등학생이며 15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참가 부문은 저학년(1~3학년)과 고학년(4~6학년)으로 나누어 운문과 산문으로 진행된다.

참여를 원하는 초등학생은 (사)맑고 향기롭게 홈페이지(www.clean94.or.kr)에서 제공하는 참가신청서를 작성하여 3월 19부터 4월 22일까지 이메일(clean94@hanmail.net)로 접수하면 된다. 준비물은 필기도구(연필, 지우개), 원고지 받침대, 돗자리, 물 등이며 대회용 원고지는 행사 당일 접수 확인 후 지급한다.

수상자는 5월 셋째 주에 (사)맑고 향기롭게 홈페이지와 개별연락을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행사 당일 참가자에게는 맑고 향기롭게 자연 활동의 일환으로 직접 만든 에코백에 간식과 기념품을 담아 전달한다.

시상은 운문과 산문 각 부문별로 장원(무소유상) 4명, 차상(맑음상) 8명, 차하(향기상) 12명, 장려상 20명으로 수상자들에게는 총 500만원의 상금(상품권으로 지급)과 상장, 법정 스님의 아름다운 무소유 동화책을 수여한다. 시상식 당일(5월 27일)에는 장원(무소유상)을 수상한 아이들의 수상작 발표회를 진행합니다. **박재완 기자**

해인사성보박물관 교육체험프로그램

'해인사에서 문화가 있는 날' 2월~12월 마지막 수요일


한지 사각접시 만들기.

해인사성보박물관(관장 선조)은 2018년 2월부터 12월 마지막 수요일까지 '해인사에서 문화가 있는 날'을 진행한다.

해인사성보박물관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사)한국박물관 협회가 주관하는 '2018 박물관 문화가 있는 날' 수행기관에 선정됐다. '박물관 문화가 있는 날'은 국민들에게 문화가 있는 삶을 제공하기 위해 지난 2014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는 문화 사업으로 올해에는 전국의 사립박물관 중 44개관에서 진행한다. 이에 따라 해인사성보박물관은 122월까지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에 아동 및 청소년, 성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2 · 3월에는 동양적인 아름다움과 고풍스러움이 있는 '한지사각접시 만들기', 4월에는 수석 전시와 연계한 '수석도 보고 원석 팔찌도 만들고', 5 · 6 · 9 · 10월에는 '몽골의 침략에 맞선 고려 답사여행, 팔만대장경 보러 가자', 7 · 8월에는 '바람 솔솔 여름부채 만들기', 11 · 12월에는 박물관 소장유물 모형 몰드로 만드는 '향기 가득 석고방향제 만들기' 등 다양한 교육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신청인원은 선착순 30명(협의 가능 · 단체신청 가능)이며, 전화(055-934-3150) 및 이메일(chubonny@naver.com)로 접수한다. 교육 장소는 해인사성보박물관이며, 참가비용은 무료다. 해인사성보박물관은 지역민이 바쁜 일상 속에서 다양하고 풍요로운 문화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좀 더 풍성한 문화의 장을 열어갈 계획이다.

박재완 기자

청동불상 조성전문
청동불상 · 천불 · 삼천불 · 만불 · 개금 · 탱화 · 금고 · 범종

성화불교예술원
(공장 내 불교 전시관) 주 · 야 상담합니다
조형물 · 동상 · 작품 모든 주물 가능함
경기도 이천시 율면 고당리 473-2
☎ 031)641-2747, 010-5302-1022
장인정신에 입각해 혼을 불어넣은 조성.
대덕스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조성.
40여분의 개금불사 전시로 스님들의 폭넓은 선택기회 마련.
탁월한 재질, 성세함, 깨끗한 개금처리의 우수성.
대덕스님들의 많은 성원과 조언 바랍니다.
대표 이상식 합장
청동불 400여분 전시중!

붓다북 불교종합쇼핑몰 Buddha Book

지면에 진열된 상품들은 붓다북에서
미니불상으로
검색해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www.buddhabook.co.kr
서울 성북구 보문로 38길 11 동일하이빌 지하 1층 (주) 운주사 Tel. 02-953-7181

1300년 고찰 지킨 神將, 100년만에 제 모습 찾다

국립경주문화재硏 · 경주博, 사천왕사 녹유신장상 특집 진열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1915년 일본인 아유카이 후사노신(鮎貝房之進)은 경주의 한 절터서 특이한 석편을 수습한다. 녹유로 만들어진 신장상 석편이었고, 세 종류의 벽전은 무엇인지 파악하기 힘들 정도로 부서져 있었다. 하지만, 큰 눈과 콧수염, 날개가 달린 투구와 화려한 갑옷, 신발 또는 맨발로 칼 혹은 화살을 든 세 신장의 모습은 범상치 않은 문화재임을 알게 했다. 폐사된 경주 사천왕사가 다시 세상에 인식된 순간이다.

이후 조선총독부는 1918년에 사천왕사 발굴을 개시했고 1922년부터 '고적발굴조사사업'의 하나로 본격적인 발굴을 진행했다.

경주 사천왕사지 발굴이 개시된 100년만에 녹유신장상이 제 모습을 찾아 대중에게 공개된다.

문화재청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소장 이종훈)와 국립경주박물관(관장 유병하)은 공동으로 사천왕사 녹유신장상(四天王寺 綠釉神將像)의 3가지 유형을 3월 15일부터 8월 5일까지 국립경주박물관 신라미술관 1층에 특집 진열한다.

올해는 경주 사천왕사지 발굴이 시작된 지 100년이 되는 해로, 이번 전시는 100년의 시간동안 각각 다른 기관에 떨어져 보관되던 7점의 파편을 처음으로 복원해 최초로 공개하는 자리여서 의미가 깊다.

1915년 일본인에 의해 발견된 後
조선총독부가 1918년 발굴 시작해
2006년부터 사지 정밀조사 본격화
200여 녹유상 파편 3D스캔 복원
오는 8월 5일까지 일반에 공개해

사천왕사는 679년에 문무왕(재위 661~681년)이 경주 낭산 신유림(狼山 神遊林)에 건립한 호국사찰이다. 낭산 신유림은 신라를 공격하는 당나라의 해군을 막기 위해 명랑(明朗)대사가 밀교 의식을 설행한 곳이기에 사천왕사는 신라의 중요한 성소이기도 했다. 사찰은 고려 초까지 번성했지만 고려 말부터 쇠락하여 조선 시대에 폐사됐다.



일제에 의해 수습된 하단부와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가 발굴한 상단부 파편을 합쳐서 복원된 '왼손에 칼을 든 녹유신장상'의 모습. 경주 사천왕사지 발굴이 시작된 지 100년만에 이뤄진 성과다.

일제에 의해 다시 인식되기 시작했지만, 이는 조선총독부의 필요에 따라 이루어진 발굴로 사찰과 녹유신장상에 대한 정보를 축적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본격적인 연구 조사는 광복 이후부터 이뤄진다. 발굴 자료와 연구 결과를 토대로 벽전 파편을 조립한 결과, 최소 두 종류의 신장(왼손에 칼을 든 신장과 활과 화살을 든 신장)을 확인했다. 이후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가 2006년부터 2012년까지 체계적이고 정밀한 발굴을 진행하고, 200여 점의 파편을 3D 스캔해 세 종류의 신장을 복원했다.

또한, 이 벽전들이 사천왕사지 동·서 목탑 기단 벽면을 장식했음도 밝혔다.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는 "사천왕사 녹유신장벽전은 세 종류가 한 묶음으로 탑 한 면에 두 묶음씩 동·서 목탑 기단에 16개의 묶음으로 배치됐다"며 "벽전의 총 수는 48점임이 연구를 통해 확인됐다"고 밝혔다.

발굴의 가장 중요한 성과는 일제강점기에 수습돼 국립경주박물관서 보관 중이던 '왼손에 칼을 든 녹유신장상'의 하단부와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가 서탑지 북편서 발굴한 상단부 6점이 같은 상이었던 것을 확인한 것이다.

이에 대해 연구소는 "지난해 7점의 파편을 조립하고 빠진 부분은 같은 유형의 '왼손에 칼을 든 녹유신장상' 파편을 참고하여 이 벽전을 복원했다"면서 "이는 정밀한 발굴과 복원 과정의 결실"이라고 강조했다.

국립경주박물관에서 전시되는 것 중 하나도 발굴 시작 100년만에 최초로 제 모습을 찾은 '왼손에 칼을 든 녹유신장상'이다.

국립경주박물관은 "사천왕사의 건립과 100년에 걸친 녹유신장상의 발굴 조사 약사(略史),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의 정밀한 발굴 과정 등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라며 "전시에 나온 녹유신장벽전 뿐 아니라 월지관의 '월지 출토 금동판불상'(보물 제1475호)과 신라미술관의 '감은사지 서삼층석탑 출토 사리장엄구'(보물 제366호) 사리외함을 함께 관람하면 신라인의 불교문화의 우수성을 한 눈에 알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관람객을 대상으로 한 전시 설명회는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2시 30분까지 신라미술관 1층 불교미술 제1실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가야 불교, 해양 루트로 전래"

동아시아불교문화학회 등 10일 춘계 국제학술대회

파사석탑, 인도와 교류사 단초 해양 무역루트 전개 등도 조명



동아시아불교문화학회와 가야불교문화진흥원 동명대 인도문화연구소는 3월 10일 가야대 대강당서 '해양문화교류와 불교 전파'를 주제로 춘계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했다.

해양루트를 통한 가야 불교 전래 가능성을 모색하는 학술대회가 열렸다.

동아시아불교문화학회와 가야불교문화진흥원 동명대 인도문화연구소는 3월 10일 가야대 대강당서 '해양문화교류와 불교 전파'를 주제로 춘계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허왕후의 인도 도래와 해양 루트를 통한 불교 전래 가능성들을 확인하는 연구 논문들이 발표돼 눈길을 끌었다.

이거룡 선문대 교수는 '파사석탑 고찰- 가락국과 아유타국의 해양문명교류 가능성' 논문을 통해 김해 허왕후릉 비각의 파사석탑을 만든 파사석이 아유타국 배의 평형석일 가능성을 제시했다.

이 교수는 파사석탑을 만든 돌은 본래 석탑의 재료로 사용되기는 어렵고, 세밀한 조각을 하기에 어려운 점을 주목했다.

그러면서 이 교수는 "파사석탑의 돌은 본래 석탑의 재료로 가락국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배의 균형을 잡기 위한 평형석"이라며 "돌과 탑이 만들어진 시기는 다르다. 이 점은 〈가락국기〉에는 없던 파사석탑 이야기가 〈삼국유사〉에 나타나는 사실과도 관련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파사석탑은 고대 가락국과 인도의 문명 교류 가능성을 시사하는 가장 중요한 사료"라면서 "파사석탑의 돌에 대한 지질학적 조사와 분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석길암 동국대 경주캠퍼스 교수와 황순일 동국대 교수는 해양루트를 통해 문명 간 교류에 주목했다.

석길암 교수는 '동아시아 해양문화 전파경로와 불교의 한국 전래'에서 중국을 경유하지 않는 해양 전래 문화인 지석묘와 벼농사에 대해 주목했다. 석 교수는 "벼농사를 중국에서 전파된 문화로 생각하기 쉽지만, 이미 중국 형성 전에 양자강 유역으로부터 한반도로 해로를 통해 직접 전파됐다"면서 "아육왕탑 전파 경로는 많은 확인이 있어야 하지만, 스리랑카-부남-양자강 하구-산동반도-요동이라고 하는 전형적 해양루트를 따른 전파를 보여준다"고 밝혔다.

황순일 교수는 '해양 실크로드와 말레이 반도'를 통해 "가야 성립 전부터 말레이 반도 중부 카오삼께오는 지중해와 동아시아를 연결하는 허브였고, 수많은 불교 상인들이 활동하며 불교를 전파했다"면서 "점차적으로 그들의 영역이 확장돼 직간접적으로 한반도에까지 이르게 됐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성민 기자

'인도문화와 붓다' 주제 인문학 강좌

(사)경기불교문화원 3~5월… 이수자 수료증 수여

(사)경기불교문화원은 3월 22일부터 5월 24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문화원 내 교육실에서 '인도문화와 석가모니 붓다'를 주제로 지역 인문학 강좌를 개최한다.

한국외국어대 인도연구소 HK+사업단 지역인문학센터(간디아수람)의 주관으로 진행하는 이번 강좌는 경기 지역 주민들에게 인도와 불교문화에 대한 관심 고취를 위해 마련됐다.

강의는 총 10강으로 조준호 고려대 연구교수가 강사로 참여한다. 조 교수는 인도 문명의 기원부터 우파니샤드, 자이나교 등 인도 종교 문화, 불교의 탄생, 붓다의 가르침 등을 강의할 예정이다.

수강료는 무료이며, 수료한 지역주민에게는 '한국외대 인문학교양대학' 명의의 수료증을 수여한다. 신성민 기자

현대불교 이상주의자 면면들을 만나다

불교평론 제73호 특집

불교계 대표 학술 계간지인 〈불교평론〉이 2018년 봄호(통권 제73호)를 발간했다.

특집으로는 '현대불교의 이상주의자들'을 다뤘다. 신규탁 연세대 교수, 방영준 성신여대 명예 교수, 김호성 동국대 교수 등이 필진으로 참여한 특집에서는 현대 선지식인 운허·소천·청담·지효·성철·광덕·숭산·법정 스님에 대한 인물사 면면들을 만날 수 있다.

또한 열린 논단을 통해 소개됐던 윤창화 민족사 대표의 '대웅전을 폐지하고 법당을 세우다', 신희정 교사의 '붓다는 무엇을 어떻게 가르쳤나' 등이 수록됐다. 신성민 기자

N D YouTube G 검색창에
대통인을 치세요!
인터넷동영상강좌 평생교육원 대통인.com
온라인 인터넷 동영상강의보기 사이트
수강상담 전화
1661-6551
(24시간 접수중)
인터넷 동영상 수강 과목

명리학	구성학	기문둔갑
매화역수	천문지리풍수	수상
육효	육임	주역
타로	물상명리	풍수지리
성명학	수맥	팔체질
꿈해몽	생활풍수	사자소학

•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공부해서 좋다.
• 역학의 모든 과목을 실력있는 강사에게 배운다.
• 누구나 저비용으로 반복하며 전 과목을 공부한다.
• 누구나 공부하면 빠른시일내 사업에 나설 수 있다.

N D YouTube G 검색창에
대통인학술원을 치세요!
오프라인 인터넷 천국공개강의 알리미 사이트 대통인학술원.com
오프라인 인터넷 공개강의보기 사이트
(자격증 취득과정)
수강상담 전화
1833-9551
(24시간 접수 중)
현재 오프라인 수강생모집 과목

과 목	강사명	개강일	수강시간	강의시간	월수강료	비 고
구 성 학	박창원	3월 20일(화)	14-17시	3개월	20만원	교재제공
자연물상 사주명리	지정도	3월 21일(수)	13-15시 16-18시	3개월	15만원	교재제공
주 역 점 (명리보다 더 잘 맞는 주역점배우기)	장호철	3월 23일(금)	14-16시 19-21시	3개월	15만원	교재제공
		3월 25일(일)	12-14시			
수암명리 (한눈에 보는 사주풀이)	연태희	3월 26일(월)	15-18시	3개월	15만원	교재제공
유내쌤타로	차두성	3월 28일(수)	10-12시	3개월	15만원	교재제공
영가견법	백암박서한	3월 29일(목)	16-18시	3개월	30만원	교재제공
육효실전		3월 29일(목)	19-21시	3개월	20만원	교재제공

• 컴퓨터나 핸드폰에서 대통인학술원을 치시고 들어가셔서 공개강의 공지를 자세히 보세요.
• 주소 :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3가 222번지 흥도빌딩 3층 301호 (지하철 2. 5호선 영등포구청역 4번 출구 30m) (자가용 → 영등포구 구의회옆 당산공영주차장 이용)

희담석 건강용품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활력을 찾으세요.

희담석 108염주세트 40,800원
(무료배송)

희담석 稀潭石 (Batu Hitam) 이란?
화산 폭발시 용암과 함께 분출된 무기물이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굳어진 화산석(현무암)의 한 종류입니다. 동남아 오지의 주민들이 예부터 치료용으로 사용해오던 것을 원적외선 파동검사등 성분 분석을 통해 인체에 유익한 에너지를 가진 것만을 엄선하였습니다. 희담석은 생명의 돌이라 불릴 만큼 분출되는 생명에너지의 양과 질이 뛰어납니다.
· 구성 : 108염주 + 합장주
· 크기 : 직경 12mm
* 희담석 염주는
· 어깨 결림 등으로 고생하시는 스님
· 목과 팔목이 늘 뻐근하고 피로가 누적된 불자
· 온종일 책상에 있는 청년불자들의 수행과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희담석 활용 100% 활용 방법
희담석(염주, 합장주)을 하루에 한두 번 정도 몸에서 잠시(약 1분정도) 내려놓으세요.
몸에서 분리된 희담석은 그때까지 희담석이 머금고 있던 몸의 나쁜 기운을 내뿜은 후 원래의 희담석 상태로 되돌아갑니다.
■ 주문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박재완의 PhotoEssay



언젠가

우리, 언제 바람이 될지 모른다
하루하루 사는 일이
바람이 되어가는 일인 것을…
바람 속에 살면서
바람이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

우리, 언제 꽃이 될지 모른다
가끔 하늘을 바라보는 일이
꽃이 되어가는 일인 것을…
꽃 피는 날에 맞춰 살면서
꽃이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

우리, 언제 비가 될지 모른다
밤새 잠 못 이루는 일이
비가 되어가는 일인 것을…
빗소리에 무너지면서
비가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

우리, 언제 흰 연기 되어
서로를 잊어야 할지 모른다
서로 놓지 못하는 '너'와 '나'가
흰 연기인 것을 알지 못한다



성낙윤의 불교매듭

⑥ 우리 매듭에 대하여

매듭은 중요한 우리 문화

전통매듭은 20여 가지가 있다. 그 중 가장 기본적인 매듭 몇 가지를 알아보았다. 이번 호에서는 매듭의 역사와 종류, 용도 등에 대해서 알아본다.

〈매듭의 역사〉

매듭의 기원이나 발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록한 문헌이나 자료는 없다. 최초의 인간은 풀줄기나 나무껍질을 꼬거나 엮어 끈을 만들고, 그것으로 엮고 맺으면서 사냥, 낚시 등 생존에 필요한 도구로 만들어 사용했다. 또한 몸을 가리거나 글자나 숫자를 대신하여 의사 전달의 방법과 기록을 남기는 용도로도 사용하였다. 이렇게 실생활에 쓰이던 생활용 매듭은 운반, 농경, 선박, 의장 등으로, 용도의 폭을 넓혀 의식용, 장식용, 공업용 등으로 발전하였다.

현재까지 전수되고 있는 매듭은 지역에 따라 표현방법이나 특징적인 성격을 달리하고 색채에서 유형을 달리하고 있어서 처음에는 동일한 형태로 발생한 매듭이 세월이 지나면서 점차로 다양해졌다고 본다. 매듭을 시작할 때는 언제나 일정한 길이의 끈을 반으로 접어서 중심을 잡고 그 두 가닥을 질서 있게 엮어 균형을 맞추어 조인다. 또한 각 지역에 따라 달라진 매듭은 동양매듭과 서양매듭으로 분류되고 한국매듭은 중국매듭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용도나 종류가 거의 같지만 한국매듭이 정서적이고 차분한 느낌이다.



생쪽매듭 등 기본 매듭을 이용한 작품들

〈매듭의 용도〉

가. 일상생활에서 사용된 매듭

매듭은 일상적으로 사용되며 의식적으로 또는 다른 특수한 용도로도 사용된다. 매듭은 실용적인 면과 장식적인 면을 모두 겸하고 있다. 그러므로 매듭은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문화 중의 하나다.

1. 숫자표시 : 옛날부터 세계 각지에서 식물섬유에 매듭을 지어 사물을 헤아려 시간의 흐름을 재거나 셈의 기록을 보존하는데 사용하였다. 페루의 잉카문명에서 문자를 몰랐을 당시 '키프'(케추아 말로 매듭)로 복잡하고, 정교한 셈 체계를 고안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모든 셈을 나타내고 모든 계산을 한 눈으로 볼 수 있게 표현하였다. '키프'는 수평으로 고정시킨 한발의 끈에 보다 가는 여러 색깔의 줄들로 매듭을 지은 것인데 줄들은 몇 가닥씩 모여 각각 다른 종류의 매듭들이 일정한 간격으로 이어져 있다.

이 '키프'는 연대 표시나 달력으로도 사용되었고, 색깔이 구체적 사물이나 추상적 관념을 표시하기 때문에 의사를 전달하는 용도로도 쓰였다. 또한 중국에서도 인구조사, 회계기록, 공문서 등과 관련된 셈을 하는 용도로 사용하였다.

2. 수렵 : 사냥의 채비에 사용되는 말의 장식이나, 활, 무기에도 매듭이 사용되었다. 실용성과 장식성을 겸한 것이다.

3. 어업 : 어로 작업에 사용되는 그물이나 낚시 도구에도 매듭이 사용된다.

4. 등산 : 암벽을 탈 때 사용되는 로프에서 매듭은 대단히 중요한 것으로, 생명이 위태롭지 않도록 단단히 엮어져야 하고, 또한 쉽게 풀어져야 한다.

5. 선박 : 선박에는 각종의 로프가 구비되어 있고 각각의 용도에 따라 로프의 매듭이 다양하게 사용된다.

6. 건축용 : 볏짚으로 지붕을 이은 초가집의 이엉이나 바람 부는 제주도 지방의 지붕에는 매듭이 사용된다.

7. 포장용(운반) : 끈을 사용한 포장에는 반드시 매듭이 사용된다. 실용적인 것과 장식적인 것을 겸함.

8. 장신구 : 장신구로 사용하는 노리개 일체는 매듭을 이용해 만든다.

9. 실내장식 : 발걸이, 방장 묶음, 유소(벽걸이), 등의 실내장식에도 사용된다.

나. 의식용으로 사용되는 매듭

1. 가마와 상여 : 가마나 상여의 네 귀퉁이에 굵은 실로 매듭을 엮어 달아서 가마나 상여의 품위를 격상시킨다.

2. 인로왕번 : 죽은 자의 영혼을 극락세계로 인도해 주는 안내자로 죽은 자가 좋은 곳으로 가기를 기원하는 뜻에서 이 깃발을 앞세운다. 인로왕번은 상여에 앞서 가는데 인로왕번 양쪽에 큰 매듭을 달아 위엄 있게 장식한다.

3. 보검과 깃발 : 의식용으로 차는 칼이나, 행렬에 앞세우는 깃발에도 매듭이 사용되었다.

4. 악기 : 박, 북, 가여금, 의식행사에 쓰이는 악기애도 매듭을 사용하였다.

5. 스님 복장에도 사용된 매듭은 불화에서 많이 볼 수 있다.

〈매듭의 형태와 종류〉

한국매듭의 특징은 두 가닥의 실을 엮고 조이는 과정에서 매듭의 형태가 이루어지고, 엮고 난 후 반드시 앞뒤가 동일한 형태로 이루어지며 매듭의 중앙에 우물정(井) 자가 생기는 것이 그 특징이다. 또한 매듭은 주체를 살리기 위한 보존 역할을 많이 하고, 횡적이기보다는 종적이다. 한국에 전래되고 있는 매듭은 그 종류가 30여종이 넘는다. 매듭은 각 형태에 따라 다른 명칭을 갖게 되는데 그 형태와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매듭의 명칭과 그 형태-

1. 도래매듭 2. 외도래매듭 3. 귀도래매듭 4. 생쪽매듭 5. 장고매듭 6. 국화매듭 7. 세벌국화매듭 8. 병아리매듭 9. 나비매듭 10. 거꾸로 나비매듭 11. 잠자리매듭 12. 연봉매듭 13. 가락지매듭 14. 안경매듭 15. 가지방석매듭 16. 가지방석 응용매듭 17. 엽전매듭 18. 석씨매듭 19. 동심결매듭 20. 매화매듭 21. 십일고매듭 22. 사색판매듭 23. 매미매듭 24. 딸기매듭

〈술의 종류〉

한국매듭은 매듭만으로도 한 작품이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대부분 한 소재를 돋보이게 하기 위한 보조 역할을 많이 하는데 그것이 보석, 금, 은 같은 귀중한 것 일 수도 있고 손으로 수를 놓아 만든 것일 수도 있다. 이러한 소재를 살리기 위해 매듭을 엮고 중간에 소재를 달거나 끼우고 다시 매듭을 한 다음 술을 달아 마무리 하는데 이 마무리 작업에 들어가는 것이 술의 역할이다.

가. 봉술

주로 노리개나 조바위, 수저집, 주머니 매듭에 단다.

* 노리개술 : 길이는 20cm 둘레는 1.5cm 정도 되는 술을 2개, 3개를 끼워서 2봉술, 3봉술 한다.
* 수저집술 : 길이는 8cm, 둘레는 0.7cm 정도 되는 봉술을 3, 5개 끼운다.
* 조바위술 : 길이 4cm, 둘레는 0.5cm정도 되는 아주 작은 봉술로 조바위 앞 ,뒤에 앞에는 5개, 뒤에는 7개 를 달아 장식을 한다.
* 딸기술 : 노리개, 유소등에 사용하는데 색동딸기술이라 하여 술을 꼴때 색색이를 섞어서 꼰술을 색동딸기술이라 한다.
* 방망이술 : 의식용, 악기등

나. 낙지발술

노리개, 유소, 발걸이 등에 사용한다.





반 야 용 선

출원번호 30-2017-00239984

극락세계로 가는 지극한 마음을 반야용선에 담아
부처님의 가피를 염원합니다.

불교의식에서 꼭 필요한 장엄의식구로서 종교적 경건함과 예술적 아름다움이 어우러진 화려하고도 우아한 장식으로 인로왕 보살님의 안내와 지장보살님이 함께 동승하여 극락왕생을 염원하는 것입니다. 정교한 조각, 우아한 단청, 화려한 휘장으로 제작된 최고의 작품입니다.



반야용선 전체 – 높이 130㎝ × 길이 160㎝

• 주문 : 현불샵 02-2004-8214 / 010-7339-8688
(제작기간 : 입금 후 15일 / 전국 어디든 직접 배송하여 드립니다.)

불교 장엄의식의 품격을 보장합니다

평생 사용 하실 수 있으며, 연(輦)만 분리하여 별도 의식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 인로왕번 – 높이 129㎝



■ 용선모체 – 높이 63㎝ × 길이 160㎝



■ 지장보살 – 높이 60㎝ × 넓이 18㎝



■ 반야용선 앞면



■ 반야용선 후면



■ 연(輦) – 높이 62㎝ × 넓이 68㎝ (받침대높이 43㎝)



■ 반야용선 받침대 – 높이 48㎝

■ 무 게 : 반야용선 전체무게 20kg
■ 금 액 : 450만원

■ 재 질 : 반야용선 – FRP / 연(輦) – 목재
■ 제조사 : 안스아트

보련기획 BORYEON

장엄불사 보련기획이 하면 가치가 다릅니다

조립식 도량장엄등설치



- 전문인력, 장비없이 조립·해체 가능
- 다목적 활용으로 경제적
- 기둥을 최소화하여 공간활용 극대화
- 도량 면적과 형태에 따른 다양한 연출

법당연등 자동승강장치



법당 고정식 연등설치



천불전



인 등



위 패



공단등



만월등



불기등



사찰 고유의 디자인으로 제작 가능

www.boryeon.com
010-5381-9355 / 031)526-2201~2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일산리 549-1